JUN 3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38 1982년 6월1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June 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연주에 열중한 정명화씨와 한인교향악단 멤버들.

정명화 청중 압도

한인교향악단, 미흡하나 성장

29밤 라이어슨극장 무대에서 드보르자의 첼로협주곡을 연주한 정명화는 한인 오케스트라와 1천여 관중들을 압도, 첼로의 여왕임을 입증했다. 공작처럼 화려한 자주색 드레스차림의 정명화가 연주하는 수십만불짜리 첼로「스트라디바리우스」는 몸통을 흔들며 절묘한 소리로 청중을 매혹했다.

이날밤8시 첫 곡 로씨니의 윌리엄·텔 서곡이 끝난후 앞이 깊이패인 풍성한 공단 드레스를 입은 정명화가 등장하자 청중은 우뢰와 같은 박수로 세계적인 대 첼리스트를 환영했다.

오케스트라가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 B단조, OP.104의 도입부를 연주할때 정씨는 눈을감고 음악에 빠져들었고 테마를 시작하는 클라리넷과 더불어 육중하고 강렬한 톤의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선보였다.

음악이 무르익자 정씨와 그의 첼로는 한몸이되어 무아지경을 헤매었다.

정씨는 중간중간 땀을 닦으며 장중하고 어두우며 또한 힘차고도 슬프게 아름다운 첼로소리로 군데군데 오케스트라의 자신없는 연주를 감싸주었다.

바이올린의 경쾌함으로 밝아진 협주곡 전3악장이 모두 끝나자 관중들은 앵콜을 부르며 떠나갈듯한 박수를 보냈고, 무대뒤로 퇴장한 정명화와 지휘자 김승순씨가 두번씩 재등장, 환호에 답했다.

1악장이 끝났을 때, 일부 성급한 청중은 박수를 보냈고, 공연중 사진프래쉬를 터뜨리는 교포도 있었다.

음악회 서두, 악단인 박영대악장(Concert Master)의 리드로 조율을 끝내자 지휘자 김승순씨가 등장, 애국가와 「오·캐나다」를 연주했다.

토론토의 대극장에서 한인교향악단의 연주로 듣는 애국가는 청중을크게 감동시켰다.

웅장한 로씨니의 윌리엄·텔 서곡이 첼로·더블베이스의 리드로 펼쳐졌다.

플룻과 오보가 정답게 주고 받는 테마에 이어 전관현악이 장렬한 종막을 고하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중간휴식후, 다시 휜넥타이에 긴 연미복차림의 지휘자 김씨가 등장, 베토벤 교향곡 7번A장조 작품92를 연주했다.

부분적으로 특히 관악부분에서 미흡한 한인오케스트라는 창단 1년반의 교향악단으로는 벅찬듯하나전 연주를 무난히 끝냈고, 청중들은 웅장한 박수로 땀에 젖은 지휘자와 긴장했던 단원들을 격려했다.

무대뒤에서 팬들과 사진촬영 및 싸인에 바쁜 정명화씨는 "연주에 만족한다. 어린 한국인 단원들과 함께 연주한것은 감동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했고, 김승순지휘자는 "최선을 다했다. 정명화씨와 같은 세계적 대가와 함께 연주한 것은 우리 교향악단의 장래를 위해 거보를 내디딘 것이다. 앞으로 더욱 분발, 이나라 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지휘자 김씨가 사는「오엔사운드」에서 10여명의 친구, 부부도 몰려와 김씨를 더욱 기쁘게했다.

한인교향악단이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씨,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와 가진 과거 공연때보다 (1)케네디언 관중이 늘었고, (2)정규단원이 증가한점(현재35명), (3)오케스트라의 질적수준이 향상된 점등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교향악단에 필수적인 각 악기의 리더가 될만한 연주자확보, 연주회마다 드는 경비충당 문제등은 한인오케스트라 내지 교민사회가 안고있는 과제이다.

〈조미래기자〉

◆제4회 한인교향악단 공연의 세 주역들. 오른쪽으로부터 김승순지휘자, 정명화 첼리스트 및 박영대 악장이 연주를 끝낸 뒤 포즈를 취했다.

—일간발행 1주년을 맞아—

『사랑』은 바로 『부채』

오늘이 바로 82년6월1일 우리 교민사회에 일간지〈토론토·한국일보〉가 창간된지 꼭 1년째되는 날이다.

후유~.

업무에 쫓겨 「1주년기념사」조차 못쓰고 넘어갈뻔 했다. 오늘을 맞아 지난 366일을 돌아보면,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이같은 어려움을 무사히 넘긴것은 오로지 교민들의 성원과 사랑때문이었다.

이제 1년후 신문에 인쇄되는 숱한 투고, 외부필자의 기고, 구두로 전해주는 충고등, 교민들이 얼마나 우리 신문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체온으로 느낀다.

그 사랑을 우리는 「부채」라 부른다. 「질책」과 동의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민사회를 가속도로 발전시키고, 우리 2세들에게 「자랑스런 민족」상을 심어주며 이질적이요, 자칫 배타적이기 쉬운 이 사회에서 「존경하는 코리안」이 되도록 좋은 신문을 만드는것이 바로 교민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외친다.

이래서 때로는 교민의 벗이요, 때로는 길잡이인 우리 토론토·한국일보는 이민의 문화적·사회적자아(Identity)를 밝혀가며, 이민의 정치·경제적 권익을 확보하며, 아울러 한국·캐나다 양국간의 교량 역할을 위해 내일도, 내년도, 내후년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사회의 「빛과 소금」 그것이 바로 우리 전사원의 염원이며, 생명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5만 캐나다교민 사회의 과거 지원에 감사하며, 장래의 협조를 크게 기대한다.

전사원을 대표해서
토론토 발행인 김 명 규

일간발행 1주년 특집 16면 발행

오늘로 일간발행 만1주년을 맞는 토론토·한국일보는 기념특집호로 평소에 3~4면이던 토론토판을 6면으로 늘여 총 16면을 발행한다.

▲1면-정명화와 한인교향악단 공연.
▲2면-사설및 포틀랜드 기사.
▲3면-특집논단, 이민사·한국사·캐나다사(김정근 논설위원)
▲4면-여행상식(김창범씨)및 연재소설(고종옥작), 연재만화(삼국지: 고우영작)
▲5면-시(송태순씨)및 연예기사.
▲6면-81년도 본보에 비친 외부투고 일람표.
7면부터 12면 한국일보(서울판)
▲7면-외래어표기 통일·장여인 사전
▲8면-국제뉴스
▲9면-기발한착상들
▲10면-어린이독감
▲11면-한일배구정기전
▲12면-나의 이력서
▲13면-광고(전면)
▲14~15면 안내광고
▲16면-전면광고

◀연재 예고▶ 추리소설「제5의 사나이」

일간발행 1주년특집

「제5열」의 작가 김성종씨의 야심작

생활안내상담『바바라에게 물으세요』

본보 제호가 〈캐너더뉴스〉였던 시절, 79년1월부터 1년간 연재된 추리소설「제5열」은 독자들의 인기를 독점, 장안의 화제였다.

본사는 일간발행 1주년을 맞아 「제5열」의 작가 김성종(필명 추정)이 다시 그 필봉을 휘두른 야심작 추리소설「제5의 사나이」를 모국자매지 「일간 스포츠」 제공으로 6월중부터 연재한다.

남성미 넘치는 전장한 필치로 흥미진진한 수수께끼를 엮어내는 추리소설가 김성종씨가 「최후의 증인」, 「여명의 눈동자」, 「제5열」등에 이어 새로이 심혈을 기울인 역작「제5의 사나이」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상당한 지위에 덕망있는 남자가 의문의 살해를 당하자 수사진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살해당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수사진과 범인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숨가쁘게 감쳐진다. 범인은 오히려 교묘히 수사망을 피하면서 또다른 범행을 저지른다.

여러 얼굴을 가진 신비의 인물"제5의 사나이"가 범인으로 지목되지만··· 수사진은 좀처럼 그 꼬리를 잡지 못한다. 여기에 미모의 아가씨가 얽혀들어 아슬아슬하고 아기자기한 스토리가 전개된다.

과연 제5의 사나이의 정체는? 그는 왜? 무엇 때문에 범행하는가?

삽화는 힘찬 필치의 서양화가 박남씨가 맡아 추리소설의 분위기를 더욱 돋운다.

◆ 작가의 말 ◆

"「제5의 사나이」는 내가 꿈속에 그리고 있는 얼굴이다. 현실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사나이, 끝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나이, 모든 여성들이 흠모하는 사나이, 결코 죽지 않는 사나이···· 그래서 「제5의 사나이」는 나의 추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지난 몇달을 바닷가에서 쉬고 있다가 상경하여 붓을 잡으려니 짠 바닷내음이 코끝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칠흑같은 밤, 광란하는 바다 저쪽으로 사라져 버린 작은 불빛 하나. 조각배 위에서 손을 흔드는 제5의 사나이, 그와의 만남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그것을 써야할 필요를 느낀다."

북미생활 에티켓 안내

북미생활의 에티켓이나·일상생활의 작은 궁금증등을 풀어주는『바바라에 물으세요』를 본보 미주본사의 협조로 주1회씩 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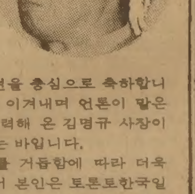
상담은 LA·한국일보의 영문판 담당기자인 바바라·엥거(Mrs. Barbara Enger)씨가 맡는다.

영어학석사인 엥거여사는 한국에 4년간 머물면서 외대, 성균관대, 동아대등에서 영어강사직을 맡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습성, 모르는 점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

특히 우리들이 평소 알고 싶었던 점, 갑갑했던 점, 혼동됐던 점등을 잘 설명해 줄 것으로 큰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이규현대사 축전—

본보발행 1주년맞아



토론토한국일보의 창간 1주년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며 언론이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김명규 사장이하 모든 직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캐나다 양국관계가 해를 거듭함에 따라 더욱 넓이와 깊이를 더해감에 비추어 본인은 토론토한국일보가 높은 이상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민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 그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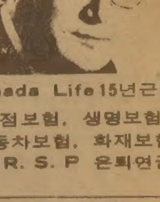
또한 나아가서 교민과 모국과의 유대강화, 한국·캐나다 양국관계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한국일보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주캐나다대사 이규현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보라매 창립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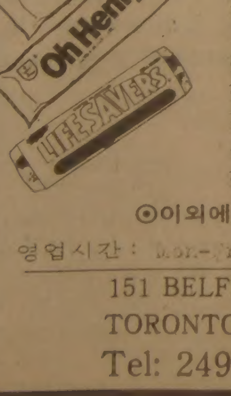
친애하는 공군전우 여러분 지난날의 보람의 광장을 싱싱하고 구김살 없는 대화의 광장이였읍니다.
우리 다시한번 좌석을 마련하여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고저하오니 보라매 회원여러분께선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원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일 시 : 1982년6월5일 저녁7시30분
장 소 : 한인회관
안 건 : 회칙통과, 임원선정, 기타사항.
문의처 : 767-2241 윤여경
638-0656 정해문
251-9587 위정남
630-2400 이광한

보라매 발기총회
회장 윤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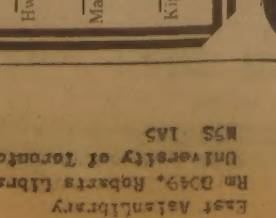
FALLIS U-SAVE CASH & CARRY

세일기간 : 5월19일~6월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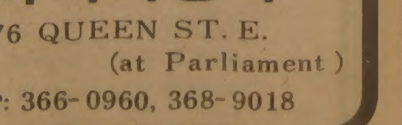
모든 LOWNEY'S 초코레트바 Reg.36's	$9.45
오·헨리 Reg 36's	$9.19
Cadbury Thick Bars 36's	$13.07
Rowntree Dairy Box 1Lb	$9.73
Black Magic 1Lb	$10.61
Life Savers	$4.09
Hershey's Reg.36's	$8.99
DELSEY Toilet Tissue 24/2's	$17.99
HEINZ TOMATO Juice 24/10oz.	$7.99
POP Wilson Product	$5.59
Coke, 7-Up	$5.99

⊙이외에도 많은 Special 품목이 있읍니다.
영업시간 : Mon.-Fri(8a.m.-4p.m.) Sat.(8a.m.-2p.m.)
151 BELFIELD RD, REXDALE, P.O.
TORONTO, ONTARIO M9W 1G8
Tel: 249-8411



8.15 경축
모국방문단모집

출발일 : 1982년 8월 10일
귀 환 : 자유
요 금 : 그당시 적용되는 가장저렴한 단체요금
정 원 : 30명 (선착순)
특 전 : 8. 15 경축식 참석 관광및 산업시찰 (3 박4 일)
등록마감 : 1982년 6월 15일
예약금 : 1인당 $100.00
※여권및비자일체수속및봉사제공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at Parliament)
☎: 366-0960, 368-901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인빈시블 항모 피격

포트·스탠리 함락 목전에

엑소세미사일로 무장한 알젠틴공군과 해군은 30일 영군함대에 공격을 가해 인빈시블항공모함을 크게 파손시켰다고 알젠틴군사령부가 30일밤 발표했다.

알젠틴군사령부 코뮤니케는 또한 두대의 알젠틴군 스카이학기가 피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국방성은 스카이학기피격 및 인빈시블항모의 파손을 부인하고 영국의 전함들이 포트·스탠리항외 알젠틴측 요새에 포격을 퍼부어 포트·스탠리항 함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중립적인 노티샤스알젠티나스통신은 이보다 앞서 군소식통을 인용, 인빈시블항모가 침몰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알젠틴 관영 텔람통신은 19,500톤의 인빈시블항모가 알젠틴군의 엑소세미사일1기와 4대의 스카이학·전폭기의 포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영국해군 최대규모의 항공모함 인빈시블호에는 영국 왕위계승 제2위인 에드워드 왕자가 헬리콥터 조종사로 소속돼있다.

장관 불신임안 부결

—사채스캔들 사건관련—

(서울29일=연합)한국 국회는 29일 김준성경제기획원부총리와 나웅배재무, 정치근법무장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야당이 사채스캔들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동으로 발의한 3개의 불신임안은 숫적으로 우세한 정부여당인 민정당파의 표대결에서 모두 무참하게 패했다.

소위 장여인 사채스캔달을 토의하기위한 특별국회는 28일 5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전대통령은 22명의 각료중 11명을 해임시켰다.

야당은 최근 내각경질에서 예상과는 달리 경제관제 각료들이 유임된데 불만을 터뜨렸다.

국회는 1일 역시 야당에서 발의한 스캔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유창순국무총리의 사임건을 토의한다.

=리틀 야구=

82년7월3일(토)
코로네이션·파
70년1월1일이후 출생 자녀. 교회팀, 한글학교팀, 지역팀등 출전함.
연락처 : 한국일보사
전 화 : 533-2361

교 민 동 정

◆임경진(전 축구협회장)=지난주 토론토 세인트·마이클병원서 콩팥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결과가 좋, 아 본인이나 가족및 친지들이 기뻐하고 있다. 임씨는 오래동안 신장병으로 시달려 왔다.

음악박사 유회자씨

콘서바토리 교수로

토론토의 음악가 유회자씨가 오는 가을학기부터 로열·콘서바토리·오브·뮤직의 교수로 일하게 됐다.

파이프·올갠과 피아노및 음악이론을 담당할 유씨는 음악박사이며, 씨알학교 교장으로 그동안 토론토에서 10여 차례 개인연주회(파이프·올갠, 하프시코드)를 가진 바 있다.

◆유회자 씨

유씨는 71년 캐나다로 오기전 미국 오레곤대학에서 작곡으로 석사, 올갠연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서울음대 시절에는 작곡을 전공(피아노 부전공)했다.

유회자씨는 78 년도에 일본 NHK와 파이프·올갠을 협연하고, 한국 세종문화회관 개관기념 초청 음악회에서도 파이프·올갠을 연주했다.

명백한 결산보고등 당부

체육회 자문위원·임원 회합

오는 8월14일로 예정된 제2회 8·15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캐나다대한체육회는 27일 체육회자문위원단과 집행부의 첫 연석회의를 시내 아리랑식당에서 가졌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이번 대회가 계획성있고 끝이 깨끗한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년 제1회체전때 6천달러를 기증, 가장 큰 후원자였던 토론토총영사관의 박영철부총영사는 "작년 제1회 대회는 범교민적으로 큰 의의가 있었으나, 잡음도 있었고 결산이 흐렸다"면서 "이번 대회에는 다시 이런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구상회박사는 한국사람의 행사에서 탈피, 외국인들도 참가시키는 문제를 토의 해보자. 또한 이런 행사를 통해 숨은 스포츠 인재를 발굴하자"고 말했다.

이병권회장은 답변에서 "1회 대회때는 경험부족으로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다. 금년에는 6월초부터 본격적 계획을 짜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9명의 자문위원들은, 이밖에 「교민체전은 재정문제등에 있어서 범교민적 뒷받침이 따라야하며 될 수 있는한 교민들의 선에서 자금을 조달하자」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4월 조직된 체육회 자문위원은 모두9명 이다.

이날 임원진측에서는 7명이 참석했다.

한편 체육회는 사무실을 482 블루어·스트릿·웨스트(미도파선물센터 3층)으로 정했다고 체육회는 밝혔다.

교포 의상디자이너 박숙희양

6일,미용을 겸한 패션쇼 주관

교포의상 디자이너 박숙희(24)양이 헤어스타일리스트 엘비라스·라이언씨와 같이 미용쇼를 겸한 의상쇼를 유명옷본 전문회사 매콜(The McCall Pattern Co.)의 후원으로 개최한다.

박양이 조직 주관하는 쇼에는 모두 12명 모델이 출연, 박양의 작품에 엘비라스의 헤어스타일이 가미된 쇼로 진행된다.

오는 6일 셔본스트릿 401번지 토론토식당극장(Talk of Toronto Dinnertheatre)에서 2시와 7시 두차례에 걸쳐 벌어지는 이 패션쇼에는 박양이외에도 세리단칼레지 의상학과 학생4명의 작품이 출품된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디자인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박양은 세리단칼레지 의상학과 출신으로 지난 4월초까지 스포츠웨어 전문회사 죤·휘시스(John Forsth)사에 패션디자이너로 일했었다.

81년도에는 한국, 대만, 일본등지로 출장, 직접디자인한 작품을 제조하기도 했다.

박양은 79년도 미스캐나다 선으로 선동우회이사장 박광철씨의 장녀이며, 금년도 미스캐나다 미 박은희양의 언니이다.

금년 8월중 파리로 가서 의상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라는 박양은 "본격 패션쇼로 처음이나 많은 교포들이 참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72년 캐나다에 이민온 박양은 토론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뒤, 미국 켄터키대학에서 미술공부를했고, 죤·휘시스회사 디자이너로써 몬트리얼에서 근무, 불어도 유창하다.

박양의 패션쇼는 디너를 겸한 쇼로 입장료는 $30, 작품의 평균가격은 약150달러짜리 이다. 티켓문의는 박숙희양(929-0006)이나 엘버라스미용실(977-8860).

◆자택에서 디자인에 열중한 박숙희양.

社說 값진 땀의 결실

—제2회 한인민족상 수상자들

제2회 한인민족상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지난25일밤 심사위원회(위원장 구상회박사)가 18명 후보들을 놓고 근4시간에 걸쳐 숙의·검토끝에 비밀투표로 선발한 4개부문 4명의 수상자는 적격자를 뽑은 것으로 평가되는줄 안다.

본사가 "높이 든 횃불에 빛나는 민족문화"라는 표어를 내걸고 제정한 이 캐나다 한인민족상은 캐나다사회 각분야에서 공이 큰 인사를 선정, 표창하기 위한것으로 작년부터 예술·학술·공로·봉사의 4개부문에 걸쳐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제1회때는 추천된 14명후보중 학술상에는 해당자가 없었고, 예술상에 2명(음악가·무용가), 공로·봉사상에 각1명-도합 4명에 시상했다.

이번 제2회에는 학술상(경제)·예술상(무용)·공로상(체육)·봉사상(한인회·한글학교에 봉사) 각 1명으로 고루 선정되었다.

작년에는 수상후보들중 11명이 메트로·토론토 거주자였고, 에드몬턴, 키치너, 런던이 각1명이었다. 타지방에서는 유력한 후보의 추천이 적었던 탓으로 수상자 3명이 토론토인, 지방으로는 키치너인 1명이 수상했다.

제2회 후보 18명중에서는 11명이 메트로·토론토 거주, 런던과 에드몬턴이 각2명, 르자이나, 위니펙, 오타와가 각1명씩이었다. 과반수 이상이 토론토인이었으나, 수상자는 공로상1명뿐, 나머지는 위니펙(봉사상), 에드몬턴(예술상), 르자이나(학술상) 거주자가 각1명씩 선정됐다.

특이한것은 1,2회 공히 예술상에 무용가가 선정된 점이다. 문학계와 미술계는 이 나라 사회에서 활기있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한명도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는 현상은 유력한 후보들을 해당단체가 추천하지 않은 것도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추측된다.

2년에걸친 후보 추천에서 얻어진 결론은 전국의 각 단체들이 "민족상" 수상자로 발군의 공적자들을 많이 추천해 주어 그 공로에 맞갖은 보답이 돌아가도록 최대의 성의와 우애를 행동화하는 열의가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공적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앞장서서 스스로를 후보로 추천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주위에서 우수인물을 발탁, 밀어주는 것이 순리라 하겠다. 내년도 제3회 민족상 추천기간에도 전국각지구 한인회·교회들을 비롯한 각 단체가 해당자들을 많이 추천하는 것이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번 수상자들의 공적을 보면 학술상의 권오율박사는 경제학교수요, 그 방면의 정부관리를 겸하여 크게 활약하고 있으며, 작년도분 학술논문으로 권위있는 상을 받은 실력자이며, 인품이 높은 분이다.

예술상의 김영숙씨는 민속음악인및 무용가로서 활약이 큰 한국무영문화재 전수자이다.

공로상의 박재선씨는 철저한 체육인으로 토론토를 중심삼아 교포스포츠의 산 증인이며 일등공로자이다.

봉사상의 김원겸박사는 학계활동도 크지만 한글학교를 통한 봉사등으로 한인사회를 위한 기여도가 크고 길다.

우리 한인사회는 명예로운 이 상의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경의를 표해,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그들의 후계자가 가하급수적으로 속출 되도록 힘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청중을 매혹시킨 선율

김옥현씨 피아노 졸업연주회

(몬트리얼 정관성지국장) 피아니스트 김옥현씨의 대학원 졸업연주회가 지난5월20일 200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몬트리얼 메길대학교 음악대학의 폴락·콘서트홀에서 있었다.

4년전(78년2월,3월)같은 장소에서 성악가 이주연씨와 조인트·리사이틀과 맥길·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일 있는 김씨는 뛰어난 테크닉의 완숙한 연주로 청중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연주곡목은 모찰트의 NINE VARIATION ON A MINUET BY DUPORT, IN D MAJOR K.573과 프로코피에브 SONATA NO.2 IN D MINOR OP.14, 크로드데뷔쉬의 IMAGES 1er 2nd SERIES였는데, 모찰트의 가볍고 빠른 템포의 곡과 프로코티에브의 무겁고 강한 터취곡을 자유로이 연주, 피아니스트로서 누구의 곡이든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날의 주인공 김옥현씨는 66년 서울예고 졸업, 70년 서울음대(피아노)를 졸업, 72년까지 모교인 서울예고 강사와 바로크합주단 단원으로 활약했다.

72년 국립교향악단과 협연, 국립극장에서 리사이틀을 가진 후 72년 캐나다로 이민와서 73년 할리팍스(달하우시대학)에서, 76년 킹스톤(퀸스대학), 77년 몬트리얼(메길대학)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76년 메길대학에 입학, 77년에는 콘체르토·솔리스트·컨테스에서 수석 입상했으며, 78년에는 메길대학의 78년도의 피아노 솔리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78년 칼가리로 이주, 칼가리대학에서 공부하면서 79년과 80년 연주회를 가졌으며, 80년부터는 칼가리대학에 Accompanist로 있었으며, 6월 이곳 메길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 곧 칼가리로 돌아가 마운트·로얄대학에서 교편을 잡게 될 것 이라고 한다.

◆피아노 앞의 김옥현씨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점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 은, 주식, Bonds, RRSP에 대한 문의는
361-3428(B), 447-1374(R) : 강 상 욱.
RRSP를 왜 남에게 관리시키는가? 자기돈은 자기가 관리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기존 RRSP를 자기관리 RRSP로 옮기는데는 비용은 전혀 들지않으며, 유지관리비로 1년에 $100만내면 된다. 자기가 관리하면 무자점점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공 고

〈한국 T.V 아나운서 모집〉

한국T.V 아나운서를 아래와 같이 모집코자 하오니 뜻과 취미가 있고, 한인사회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으신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아 래 ——

⊙이력서 1통(성명 · 생년월일 · 현주소 · 학력 · 경력 · 현직업)
⊙사진1매 (규격 5×7이상)
⊙마감 : 6월7일(월) 오후5시
⊙보내실곳 : 한인회 (20 Mobile Dr. Tor. M4A 1H9)
★심 사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 :
3. 면접장소 : 한인회 사무실
*서류심사후 개별적으로 전화연락 함.

토론토 한인회 회장 박인순

Y 어린이여름학교

노인및 성인 영어교실(월~목 : 오전9시반~11시반)무료
어린이여름교실
●일 시 : 7월5일(월)~8월27일(금) (8주간)
매주 월~금요일 오전9시반~오후3시
●곳 : Heydon Park Secondary School
(College 남쪽 두블럭 Dovercourt선상에있음)
●대 상 : 유치원생~9학년생 약80명(선착순)
●회 비 : 월 $110 (단, 한집에서 2명이상이면 할인있음)
●과 목 : 한글 · 한국문화 · 수영 · 운동 · 소풍 · 영화 · 미술.
선택 : 태권도 · 피아노 · 무용 · 미술(공작)
개인과외지도 : 기타 · 영어 · 수학 · 과학 · 불어 · 미술
●교사진 : 김정숙 · 권혁임로스정 · 김필숙 · 우종수 · 홍진숙 · 윤영희
(예정) 김 이 반 이정희 · 강미희 · 김한미 · 김영인 · 조안리 · 최귀앙 · 김창렬.
●문의처 : MR. 김(536-1166) 931 COLLEGE ST TORONTO M6H 1A1

일부신교 거센 반발 불구

사상최초로 영국땅 밟는 교황

「서민의 교황」요한·바오로2세가 28일 영국땅에 키스를 했다. 2천년가까운 캐톨릭역사상 처음있는 교황의 영국나들이다.

1천1백54년 사상 유일한 영국인교황이었던 아드리안4세조차도 조국인데도 찾지못했던 영국을 요한·바오로2세는 바티칸내 영국신교도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방문한 것이다.

그의 방영은 캐톨릭과 성공회의 화해라는 점에서도 적지않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교황에 대한 암살위협속에서 뿌리깊은 불화만 재확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또한 큰 것이다.

교황의 방영엔 문제점도 많다는 얘기다. 요한·바오로2세는 이탈리아에서나 또는 그동안의 해외여행에서 계속 로마캐톨릭교회의 보수적인 교리를 되풀이 강조해왔다. 교황은 이혼·낙태·산아제한·성직자의 결혼·여성에대한 성직서품·동성애·비캐톨릭교회와의 친교등을 강력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 상륙해서도 이같은 보수적 교리를 강론할 경우, 비캐톨릭계 영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들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미 교황에대한 반감은 나타났다. 북아일랜드의 호전적인 반캐톨릭세력을 이끌고있는 자유장로교회의 이안·페이슬리목사는 지난3월 교황의 영국방문 반대데모를 주도했으며, 교황이 앞으로 영국9개도시를 순방하는 것을 저지하기위해 또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황의 영국방문은 시기도 나쁘다. 영국인의 캐톨릭에대한 반감도 문제지만 포클랜드전쟁이 터진후 많은 영국인들 사이에는 맹목적인 호전적감정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로마·캐톨릭교회는 군사혁명의회의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있으며, 포클랜드전쟁에서 영국군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찬양했다"면서 페이슬리목사는 "교황도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침공을 비난하지 않은만큼 그런 교황의 영국방문은 영국인의 가슴에 깊은 모욕을 남길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영국을 방문중 로버트·런시 캔터베리 대주교(왼쪽)와 러시아정교의 메트로·폴리탄 교구장 앤토니와 나란히 예배에 참석한 요한·바오로2세 교황.

"예수·모세·석가와 대화했다"

문선명 법정증언, "나는 구세주될 것"

(뉴욕) 통일교 교주 문선명(62)씨는 자기는 예수와 모세및 석가모니와 수차례 대화했으며 진정한 구세주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27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79년11월 통일교포 앤토니·콜럼브리토씨를 납치했다는 혐의로 통일교에 의해 피소된 반통일교도인 갤런·켈리씨의 납치합법성 여부 재판에서 문씨는 "자기가 구세주라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을 받고 "나는 내가 진짜 구세주라고 말한 적은 없고, 구세주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었다"고 답변했다.

전세계에 3백만명의 추종자를 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문씨는 켈리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통일교는 사기"라는 주장을 들었다.

오웬판사는 통일교측 변호인이 문씨의 종교적 신념과 사생활에 관해 질문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자 "통일교는 자선과 금욕을 설교한다. 문씨가 자기 설교대로 생활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내가 판결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문씨는 예수, 모세, 석가와 수차례 만나 의사를 소통했고 그들과 때때로 한국말로 대화했다고 증언했다.

판사가 어떻게 예수, 모세, 석가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가라고 묻자 문씨는 "어릴때부터 그림으로 보아왔다"고 답변했고, 예수는 1936년 한국의 어느 산에서 처음 만났으나 모세, 석가를 만난 때는 잘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 문선명씨

첫날재판인 26일 통일교에서 이탈한 한 교포는 문씨가 금욕을 내세워 교인의 결혼을 되도록 지연, 결혼허가를 받기까지 3년, 결혼식후 동침 허가까지 7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문씨의 변호사는 이날 문선명교주가 증언대에서는 수모를 면하도록 원고 콜럼브리토씨가 자신을 납치한 갤런·켈리씨에 제기한 $9만 배상소송을 취하했으므로 문씨를 증언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으나 판사는 이를 묵살했다.

미시사가한글학교 학예회 백설공주 연극등 다채로와

미시사가 한글학교(교장 문가자, 이사장 이춘수) 학예회가 오는 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까지 미시사가 한글학교강당에서 열린다.

그동안 재학생들이 배운 노래와 연극과 춤 백설공주·신델렐라, 고전무용등을 모아 보여주는 이날 학예회에는 특히 학부형회에서 준비한 한국고유음식으로 다과회도 마련된다.

오는 19일(토) 리차드·메모리얼·파(미시사가·로드×레익셔)에서 운동회도 가질 미시사가 한글학교는 퀸·엘리자베스·시니어·퍼블릭·스쿨(하이웨이 10×Q.E.W. 바로 남쪽)에서 수업한다.

여름한글학교도 7월5일부터 4주간

미시사가 여름 한글학교가 7월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열린다.

던다스와 하이웨이 10의 T.L.케네디고등학교에서 있을 여름한글학교의 등록금은 $40.

연락처는 279-5974 Mrs.김, 827-7057 Mrs.최, 접수는 12일 마감이다.

교 민 동 정

◆김문랑(전 토론토한인회장)=오랫만에 고국서 온 조카를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즉 이번 가톨릭성령세미나 지도신부단장으로 토론토에 온 김대군 신부(천주교서울대교구 관리국장, 서울대음대 교수였던 고 정훈모씨의 아들)은 김문랑씨의 5촌(?) 조카

토론토에 호스텔등장 1박에 $6, 여행자 위해

토론토 최초의 호스텔(예산 절약형 여행자들 전용의 숙소)이 지난 23일 개장됐다.

223 처치·스트릿(Shutter 와 Dundas사이)에 소재한 침대 74개의 이 호스텔은 그레잇·레익스·호스텔링협회(The Great Lakes Hostelling Association)의 소유로 회원은 1박에 $6, 비회원은 $9이다.

이 호스텔은 국제호스텔협회 소속업소이며, 국제호스텔협회는 68개국에 5천개의 호스텔을 산하에 두고 있다.

야유회겸 총회 이화여고 동창

이화여고 동창의 봄맞이 야유회가 5일(토)11시부터 개최된다.

총회도 겸할 이번 야유회는 예년과 같은 장소인 다운스뷰·펠츠파(Sheppard & Keele 과 Jane사이)에서 개최되며 연락처는 송민자(Mrs. Shin 494-4906) 송영덕(Mrs. Imm 293-4949).

오타와 튤립관광 몬트리얼 한인노장회

(몬트리얼 정관섭지국장) 몬트리얼한인노장회(회장 방용섭)는 지난 21일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타와 튜울립관광을 떠났다.

몬트리얼 다운타운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날에서 출발, 오타와로 가서 국회의사당을 경유, 대사관 관저에서 이규현대사내외가 차린 점심식사를 했다.

점심후 튜울립공원에서 자유시간을 갖고, 인간박물관을 구경한 후, 오후5시 오타와를 출발, 7시반 몬트리얼에 도착, 해산했다.

한편 노장회는 오는 6월8일 연방정부노인회보조기관 창설1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하나로 그동안 틈틈이 만든 작품전시회에 한국미술·수예등 6점을 출품할 것 이라고 한다.

일간발행 1주년특집

이민사·한국사·캐나다사

김 정 근
(온타리오주 복합문화성 이민사연구실 연구원·본지 논설위원)

◇김정근씨

아케이디언(Acadian)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캐나다의 동부에 살고 있다. 이들의 선조들은 1605년경에 지금의 노바·스코시아 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한 프랑스계통 사람들로서 주로 농사를 짓고, 어업과 모피상업에도 종사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들의 정착생활은 캐나다에 있어서 일대 비극이라고 할수 있는 사건속에서 일세기 반만에 갑작스레 중단되고 말았다. 1750년대에 들어서 두차례에 걸쳐 이들은 영국점령군에 의하여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며 살아온 고장으로부터 사정없이 축출되었으며, 모두 배에 실려 미국의 여러 주와 서인도제도 등지로 산지 사방 흩어졌다.

이민의 생체험은 소중한 사료
「아케이디안」역사 거울삼아야
이민사는 한국사이자 캐나다사

그후 이들은 쫓겨간 곳에서 많이는 동화되었고, 더러는 에트닉으로 근거를 유지하며 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아주 소수는 천신만고 끝에 자기들이 원래 살던 캐나다의 동부지방으로 살아 생전에 돌아오기도 했다. 이렇게해서 자기들의 옛고장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오늘날 노바·스코시아 지방과 뉴·브른스윅 지방에 산재하는 아케이디언들이 유래하게 된 것이다.

공꾸르상(Prix Goncourt)은 프랑스 언어권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이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상의 심사위원회는 1980년도 수상자를 한 캐나다 사람 그것도 가냘픈 아케이디언, 여성을 선정했다. 그녀는 몬트리얼에 사는 작가 안토닌·마이예(Antonine Naillet)였다. 수상작품은 마이예여사가 평생동안 채집해온 구전에 근거해서 쓴 아케이디언의 과거를 소재로 한 역사소설 이었다.

『벨라지 고향에 돌아오다(Pelagie: The Return to a Homeland)』가 바로 그 소설이다. 200여년 전에 영국점령군이 아케이디언들을 쫓아낼 때 후환을 염려해서 그들의 가족사항과 커뮤니티에 관계되는 일체의 문서들을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후, 아케이디언들은 쫓기고 놀림을 당하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이렇다할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만한 능력과 기회가 없었다. 이런 조건 앞에서 작가는 자신의 선조들이 경험한 이 비극적인 인간 드리마를 재현해내기 위하여 구전(Oral History)에 많이 의존했다.

마이예여사의 아케이디언에 대한 스토리가 금년초 영역되어 나왔을때, 문학 비평가 로버트·풀포드(Robert Fulford)는 "이 작품은 마이예여사 자신의 동족이 기도한 아케이디언들에게 역사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인류의 상상력 속에 그들의 존재를 심어주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아케이디언으로 불리우는 한 그룹의 사람들과 그들이 당한 비극과 강인한 의지로 버티어온 역사는 한 동정적인 작가의 손에 의하여 마침내 캐나다사 내지 세계사의 무대 위에 올려지게 될 것이다.

물론, 위에서 예시한 한 캐나다적인 사건의 전후는 오늘 캐나다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캐나다사에 이런 대목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해주는 스토리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아케이디언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필자가 제시해 보려는 것은 인간의 드라마와 그 드라마를 기록해 내는 손의 관계이다. 기록해주고 표현해주는 손이 없을때, 인간의 드라마는 사람의 기억속에서 망각되며, 흐르는 역사의 바다속에서 마침내는 그 드라마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처리되고 마는 예가 허다한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케이디언들의 존재는 마이예여사의 손을 기다려 2세기 이상을 인간의 기억으로부터 영원히 망각을 당해버릴수도 있는 위험속에서 묻혀지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민사회 속에 드라마가 있다는 말을 다른 기회에 해본적이 있다. (『무엇을 이민사에 쓸 것인가?』 토론토·한국일보, 1982·4·17일자) 강렬하고, 극적이며, 인간이기에 겪을수 밖에 없는 값진 경험이 이민사회 속에서 엮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서 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 이민자의 경험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차이를 두고 사는 다른 인간들과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국내에 있는 동포들과 또 우리아닌 다른 캐나다사람들과 이 경험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지않을까? 이와같은 질문들을 다시 좀더 확대해서 말해 본다면 이민의 생체험이라고 하는것이 바람직하기로는, 한국사 속에 편입되어야 마땅한 일이 아닐까? 동시에 같은 체험은 캐나다사 속에도 포함되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됨으로써, 두나라의 역사기록은 풍부해지고, 드라마를 몸으로 엮고 있는 이민자신들의 삶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어떤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위의 질문들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자신이 이민이 된 처지에서는 그다지 힘이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논리적인 자명성으로 해서 일정한 설득력이 거기에 있을법도 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이민살이를 해본 사람이면 다 아는 일, 그러나 안해본 사람은 잘 모르는 일, 이 이민의 드라마를 어떻게 한국사속에 등장시키며, 다시 캐나다사속에 포함시킬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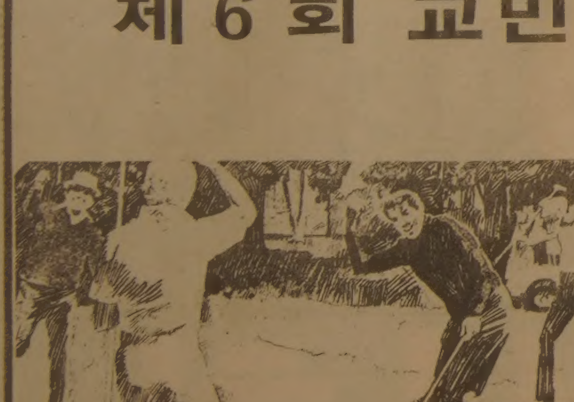
한국사의 기록자와 캐나다사의 기록자들이 다같이 전통적으로 이민의 생활과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따라서 그들의 생체험에 대한 기록에 인색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된다. 필자나름으로는 이민자의 생체험이 본국사와 캐나다사의 무대위에서 응분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민자 자신들이 스스로의 체험에 대해 상상력을 갖고, 기록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록의 책임은 역사전문가에게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점에서 이민사회 자체 안의 언론, 문학, 학문, 예술에 종사하는 이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본다. 이민사회의 드라마를 표현에 옮기는 손의 역할이 이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민생활의 흔적을 자료로서 모아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한 한국적 안토닌·마이예의 손을 기다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이민사자료 구함

보내실곳 : 한인이민사 연구실
주소 : The Koera Immigration Resource Centre
C/O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Tel : 1-(416)533-2361

제 6 회 교민친선골프대회



1982년 6 월12일(토요일) 12시
GLEN EAGLE GOLF CLUB
진행위원 : 홍진표, 김홍량, 한아네스
심사위원 : 정정홍, 김현모, 고광남

★시 상
▲GROSS CHAMPION – 5등까지 (ANNUAL TROPHY)
▲NET CHAMPION – 5등까지 (ANNUAL TROPHY)
▲LADY GROSS 1, 2, 3등
▲HONEST GOLFER
▲NEAREST HOLE
▲LONGEST DRIVER
▲HOLE-IN-ONE(세계일주비행기표)
▲CP AIR – 한국여행사 제공

★행운권 추첨
특등 : NO.4 WOOD(1955) ORIGINAL MacGREGOR
1 등 : GROSS GOLD PEN
2 등 : 한국일보 (1년 구독권)
3 등 : CART (BAG BOY)
4 등 : DECORATOR CLOCK
5 등 : ALARM CLOCK RADIO(PANASONIC)
6 등 : PUTTER (BEAU WOOD PASSAGE)
7 등 : 냄비 세트(4 P.C.)
8 등 : BELT·Y샤쓰·TIE (3명)
9 등 : 골프장갑 (5명)

기증업체
J.C. GOLF ENTERPRISE 정정홍
한인연합상사 김현모
한국일보사 김병규
MUNAMI TROPHY & SPORT 이기훈
IMPERIAL LIFE 김홍량
아리랑 식당 장순채
NORTH YORK AUTO BODY 송대헌
CITY LITE SIGNS 홍진표

시합규정
1. Low Gross 동점일 경우 SUDDEN DEATH로 결정함. 그외에 GROSS 동점일 경우 EAGLE,BIRDIE,PAR순으로 결정함.
2. NET WINNER 동점일 경우 LOW HANDY 순으로 결정함.
3. WINTER RULE
O.B가 난 지점에서 칠 경우만 PANALTY 2점을 가산하고 이하는 PANALTY 1점(ROUGH에서 공을 움직일때, LOST BALL, TEE OFF를 다시 할때, 공이 물에 빠져 칠수 없을 경우)

NEAREST 15th HOLE
HOLE IN ONE 9th HOLE
LONGEST 1st HOLE

주의사항
TEE OFF TIME은 예정보다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고BACK NINE부터도 시작할수도 있읍니다. TEE OFF순서는 앞뒤로 바뀔수는 있으나, TEE OFF MEMBER 는 바뀔수 없읍니다. 이상 대회 진행위원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간 표

1) 12:00	강공선	오현표	김종욱	김현모
2) 12:07	박영철	윤여경	곽창수	이기훈
3) 12:14	정길수	김창갑	최상수	고광남
4) 12:21	김경철	차선겸	원장호	김 효
5) 12:28	최호영	백광수	강태영	김진기
6) 12:35	함태호	심재환	이무교	김홍량
7) 12:42	박종선	김만구	이창복	정정홍
8) 12:49	최동호	김태진	정용주	김성태
9) 12:56	차인규	이영현	박상남	김용기
10) 1:03	최충식	하청남	최상철	김영옥
11) 1:10	백경락	박기복	김형도	조용철
12) 1:17	조기연	이호영	백운산	이동환
13) 1:24	안 덕	남상현	박기복	신우원
14) 1:31	조의문	이창록	장순채	김용대
15) 1:38	김진형	배가덕	유좌석	박광철
16) 1:45	김종호	송종보	홍 철	김진환
17) 1:52	한천석	김성용	김영상	한용식
18) 1:59	심용웅	양해룡	송대헌	이종후
19) 2:06	박동일	김은하	손한익	서경승
20) 2:13	Mrs. 김희선	Mrs. 김테레사		
	Mrs.배자영	Mrs. 홍미자		
21) 2:20	장인수	한강국	신용목	홍진표

주최 : 토론토한인천주교회 한맘골프클럽
후원 : 토론토·한국일보 토론토한인골프협회

〈여행상식〉 ④

CPAir를 이용한 모국방문

김창범(신세계여행사)

◇김창범씨

돌아오는 날이 가까워지면 늦어도 1주일전 복편예약을 확인하거나 새로 해야한다. 여름철에는 1주일전에 예약해도 힘들다. 주5회 내지 7회 운항하는 캐나다항공이지만 수·금·일요일의 3회는 홍콩에서 출발함으로 중국인으로 가득차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다른 요일을 택하는 것이 용이하다. 조선호텔 구내의 CPA지사(도성사)에서 예약할 수 있다.

김포공항에는 늦어도 출발 1시간반 전까지는 나와야 한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출국신고용지를 받아 기입하고 항공권과 여권을 보이고 짐을 체크인한 다음 탑승권을 받는다. 짐은 물론 토론토까지 부친다. 공항세 3,000원을 준비해서 지불한다. 2층에 올라가면 조흥은행 지점에서 쓰다남은 한화를 100불까지는 바꾸어준다. 입국할때 교환하거나 시내 외환은행등에서 교환한 영수증이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전액 교환해준다.

출국수속도 많이 간소화됐다. 안전검열이나 세관검사도 극히 간단하다.

동경에서 내리면 CPA직원을 찾아서 연결편의 탑승권을 받는다. 서울에서 타고온 비행기에 따라 터미널이 다른 곳에서CP를 타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리따공항은 항상 안전검사가 철저하다. 이 터미날에서 저 터미널로 가는데도 반드시 탑승권을 보이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CPA에 일단 올라타면 벌써 집에 돌아온 기분이다. 또 다시 9시간의 태평양 횡단이 시작된다. 시차극복에 힘써야 한다.

뱅쿠버에는 아침 11시경에 착륙한다. 기내에서 나누어준 통관용지에 해외구입품의 가격을 적어서 제출한다. 1년에 한번 나갔다오며 7일이상 해외에 머무르면 150불까지 면세된다. 통관용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선물받은 것은 없는지, 견본으로 가지고 들어온 상품은 없는지, 식품이나 파일은 없는지 질문이 많다. 입국수속이 끝나면 짐운반대에서 짐을 찾은 후 간단한 통관절차를 받는다. 목적지가 다른곳이면 다시 그옆의 콘베이여 벨트에 실려 보내진다. 세관옆에 CP직원에게 국내선 탑승권을 받아 밖으로 나와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출발라운지로 나온다. 뱅쿠버에서는 보통 2~3시간의 여유가 있다. 하오 1시가 되면 지정 Gate로 나와서 비행기에 올라탄다.

토론토도착이 밤 8시40분이므로 겨울철에는 어두운 밤이고 여름철에는 해가 아직 넘어가고 있을 무렵이다. 2층으로 해서 터미널에 나와서 아랫층으로 내려오면 마중나온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집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갈때는 장시간의 여행에서 오는 피로와 긴장이 풀리고 고국의 소식을 전하느라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품위가 없어요?』—뮤지칼 「나인」에 출연, 이번 토니상 여우주연 부문에 후보로 오른 아니타·모리스가 화제에 오른 검은 레이스 차림새를 보여주고 있다. 〈뉴욕— 〉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및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외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㊽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예상한대로 사목회의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기이에 본당신부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고, 마르당 제2보좌신부를 제외한 나머지 신부들과 편신도사목위원 3명도 부리노를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그들의 말인즉, 공의회가 시도하고 있는 쇄신운동이 토착화를 지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써거스단 식의 흥행주의적 전도방법은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었다. 그런식의 전도는 가톨릭교회의 전통성을 파괴하고, 또 권위와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라고까지 말하며 흥분하기도 했다. 부리노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토론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교회의 이름으로 부리노에게 가두복음전도를 금할 것을 명령하라는 강경파도 있었으나 그것을 명령할 권한을 아무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그외 별의별 말들이 오고 갔으나, 아무런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회의는 끝나고 말았다. 나는 담담한 심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며칠동안 기이에 본당신부는 어딘지 분주하게 다니고 있었다. 부리노 자신도 어떻게 해서 자기의 가두 복음전도가 신문에 기사화 되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신문기사를 읽고 놀란듯했으나 그것을 기분나쁘게 생각하는것 같지는 않았다. 본당 신자들도 서로 만나기만 하면 부리노의 가두 복음전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론을 내세워 열을 내고 있었다.

그 다음 주일이 또 다가왔다. 남들이 뭐라 하든 부리노는 가두 복음전도를 돕겠다는 사람도 여러명 있었다. 나는 부리노의 요청에 따라 주일 성경말씀을 정성들여 풀이해 줬다.

주일날 오후 2시경에 나는 기이에 본당신부와 함께 부리노의 가두 복음전도 현장에 나갔다. 벌써 7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의자를 갖고 나와 앉아 기다리는 사람도 수십명이나 되었다. 호기심 속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리노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번에는 여러개의 신문사에서 나온 듯 신문사 카메라맨같은 사람 여럿이 분주하게 사진찍고 있었다. 그 중에는 티비 무비카메라도 한대 있었다. 부리노는 열심히 노래 불렀고, 또 주일성경말씀 풀이도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 무슨 영화를촬영하는 현장같은 인상이었으나 그는 하나도 어색함 없이 침착하게 자기 할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분명 어느 영화의 주인공같았다. 아니, 그는 주님의 복음전도를 위한 훌륭한 배우였다.

군중속에 섞여있는 기이에 본당신부와 나를 사람들은 적의의 눈으로 흘겨보는 것 같았으나 부리노를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은 동정과 존경과 신뢰심으로 충만돼 있었다.

그날밤 티비 뉴스에 부리노의 가두 복음전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음은 물론, 시내 5개 신문사중 3개 신문사가 다음날 아침과 저녁에 그것을 크게 보도했다. 티비해설이나 신문기사는 부리노에게 적극적인 호의를 표시하며, 교회의 보수성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이제 부리노의 가두 복음전도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하나의 사도적 사업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또 받아들여졌다. 나는 이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 드렸고, 평화로운 심정으로 기이에 본당신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부리노에 대한 교회의 공식태도와 본당 신부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다.

다음날 매주 월요일 오전에 정기적으로 있는 주중 사목회의는 사정상 연기되었다. 그리고 기이에 본당신부는 교구청의 호출로 하루 종일 외출중이었다.

본당 사무실에는 부리노의 가두 복음전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하는 교우들의 전화가 수없이 걸려왔다. 그리고 본당의 신부들은 나에게 노골적인 혐오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밥상에서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 일이 예상외로 복잡해지는 것같은 인상속에 내 마음이 다소 불안해졌으나 나는 애써 태연하게 본당신부의 귀가를 기다렸다.

오후 늦게 돌아온 기이에 신부는 나를 자기 서재로 불렀다. 그때 그분의 표정은 뜻밖에 도 밝았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듯 싱글벙글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그분은 나에게 스캇치 한잔을 권하며 입을 열었다.

"태오신부, 나는 당신이 내 보좌신부로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소."

"사목생활을 처음 시작한 풋나기 신부로서 저도 신부님같은 이해심 많고 덕스러운 분을 본당신부로 뫼신 것을 주님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옵니까?"

그분에 대한 내 평소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며 나는 그분의 동정을 살폈다.

"물론……"

그분은 시가에 불을 붙이며 내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줬다.

"그래서요?"

나는 궁금해서 그분의 답을 재촉했다.

"오늘 그레고알 보좌주교님과 함께 당신과 부리노의 가두 복음전도에 관해 장시간 이야기한 바 있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레고알 주교님께서도 당신이 갖고 있는 사목적 정열과 창의력을 높이 평가하시며 당신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었소. 그래서 당신에게 훈장을 주라는 그분의 말씀을 갖고 왔소."

"뭐 훈장이라고요?…… 제가 뭘을 했길래, 저에게 훈장을 주신단 말씀입니까? 그게 농담의 말씀이시겠지요?"

나는 기이에 본당신부의 속마음을 알길 없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농담이긴! 지금 나는 진담을 말하고 있는 중이요. 당신이 아니었던들 부리노는 아직 회개하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그의 가두 복음전도도 있을 수 없었을 꺼요."

"부리노의 회개에는 제 도움이 얼마쯤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으나, 그가 시작한 가두 복음전도에는 제 영향력이 전혀 없읍니다. 다만 주일 성경말씀을 풀이해 줬을 뿐 입니다."

(계 속)

주제: "북녘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
북한 선교를 위한
강사

북한선교회 이사장
충현교회 당회장 김창인목사
남북미성회
NKFM
기간 : 1982년6월3일(목)~6일(주) 시간 : 매일저녁8시
장소 : 중앙교회 502 Bathurst St. (Bathurst S .×College St)
주최 : 북한선교회 전화 : 961-8361 · 759-2006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잘생긴 남성

재클린스미스, 톰셀릭이 1위

브룩쉴즈와 결혼하겠는가에 남자 83%가 사양

미국에서 가장 잘생긴 남성은 누구이며,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누구인가? 또 TV에서 가장 지겨운 배우는 누구인가?

최근 피플지는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응답자의 60%가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2세) 갖가지 흥미있고 의외의 결과를 얻어냈는데, 조사내용은 연예인에 관한 것, 그밖에 사회제반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결과중 재미있는 것을 간추려 소개한다.

▲브룩·쉴즈와 결혼하겠는가? (남성에게) 쉴즈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성에게)

—83%의 남성과 90%의 여성이 「사양하겠다」는 이유중에는 질투심도 들어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쉴즈같이 되거나 쉴즈와 결혼하면 그 긴장을 견디어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쉴즈 또래의 틴에이저들은 42%가 쉴즈와 결혼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재클린·스미스(35)가 1위. 79년도 같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스미스는 그동안 보·데릭에게 수위를 빼앗겼으나 다시 그 자리를 되찾았다. (보·데릭은 금년도에 8위로 떨어졌다.)

2위는 빅토리아·프린시펄(32), 3위는 리즈·테일러(45세 이상에게 인기있음)가 차지했다.

항상 그렇듯이 남성과 여성의 미의 관점은 이 조사에서도 차이가 났는데, 여성들이 리즈나 린다·에반스(「다이너스티」출연)을 좋아하는 반면, 남자들은 보·데릭이나 린다·카터를 좋아했다.

▲가장 잘 생긴 남성은?

—톰·셀릭(37), 로버트·레드포드(44), 버트·레이놀즈, 폴·뉴만의 순.

▲좋아하는 TV여배우는?

—20년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스테파니·파워스(39·「하트·투·하트」출연)가 1위, 작년의 톱이었던 빅토리아·프린시펄이 2위, 3위는 린다·에반스가 차지했다.

▲좋아하는 TV남배우는

—알란·알다가 4년째 1위, 다음이 톰·셀릭, 로버트·와그너의 순.

▲가장 좋아하는 남·녀 영화배우는?

—캐더린 헵번과 헨리·폰다가 각각 1위, 다음은 샐리·필드와 폴·뉴만이 각각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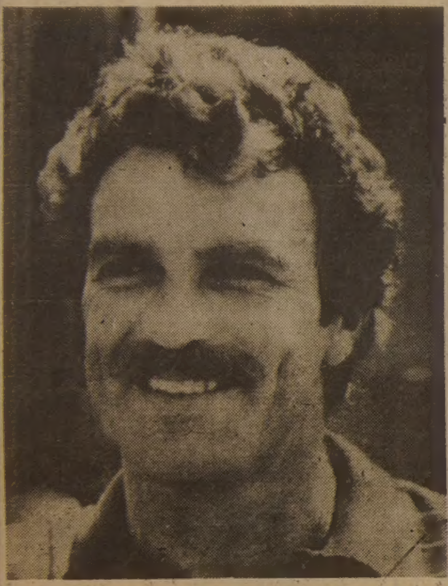
▲가장 좋아하는 남녀가수는?

—남성은 1위가 케니·로저스, 2위가 빌리·조엘, 여성은 바브라·스트라이샌드, 다이아나·로즈, 올리비아 뉴튼·존의 순서.

▲가장 인기있는 뮤직그룹은?

—「홀과 오츠」, 「사이먼과 가펑클」, 「포리너」의 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뽑힌 재클린 스미스양.



◇가장 잘 생긴 남성으로는 톰 셀릭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연속 4대행사 런던한글학교

(런던 강상권지국장)런던한글학교(교장 홍석재)는 4가지 행사를 연속 가진다.

지난 29일 제4회 운동회를 기본스공원에서 가졌으며, 6월5일 차담 근처의 Dlesden "앤글롬의 박물관"및 Rondlau공원으로 소풍가고, 이어 12일에는 졸업식이 있다.

졸업식에 이어 운영위원회를 열고, 81년학년도 결산보고·학교운영보고 및 82학년도 이사회를 구성한다.

시 부러진 시

송순태

요즘 우리네 신문에는 시가 귀해서
시가 귀해서, 슬퍼서
부러진 팔이 시를 씁니다.

시인은 다 숨어버렸나요.
생활이 부끄러워서 다 숨어버렸나요.
시는 죽어서, 울면서 거치른 황야로
바람되어 떠나버렸나요.
시가 귀해서, 슬퍼서
시인도 아닌 시인이 부러진 팔로
시를 씁니다.

하루종일 방안에 들어앉아서
부러진 서정의 팔의 고통을 새기며
부러진 지성의 팔의 고통을 새기며
목마르게 시를 찾지만
우리네 바닥에는 시가 귀해서
메마른 동공에 눈물 고이게 하는 시가 귀해서
아름답게 눈물 흘리게 하는 시가 귀해서
시인도 아닌 시인이 부러진 팔로
사보테같은 시를 씁니다.

고향에서 오는 소식은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소식의 귀퉁이 어딘가에 시처럼 훈훈한
소식이 있나 찾아보지만
우리네 신문에는 시가 귀합니다.
우리 가슴에 따뜻한 온기 되살려 주는
시인은 어디 갔나요.
가난한 잔을 비워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운 노래, 청아한 음율로
충만히 채워주는 시인은
어디 갔나요. 정말이지 어디 갔나요.

경거—ㅇ퀴같은 시를
부러진 팔로 쓰면서
가슴 답답하고 아파서
숨어버린 시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마음을 아름답게
부활시켜 주는 시를 얻으려고
하루종일 방안에 들어앉아서.

돈없는티를 꼭 내야하나…

上流層 매너

가진 돈은 없더라도, 행동만은 상류층답게 할수 없을까.

돈이 없다고해서 꼭 돈없는 티를 내며 행동할 필요는 없다.

상류층 엘리트들의 매너는 돈을 들이지않고도 얼마든지 익힐수가 있기 때문이다.

헝겊손수건은 일회용 내프킨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면서도, 부자들의 사치품으로 꼽히는 물건중의 하나이다.

▲적게 사더라도 고급스런 의상을 선택하라.

그리고 항상 깨끗이 하고 다니라.

구두에도 똑같이 신경을 쓸것.

비싼 의상을 입고, 발에는 나무로 된 높은 굽에 모조가죽을 댄 샌들을 신은것처럼 흉한것은 없다.

▲의상은 코튼, 린넨, 울, 실크등의 자연섬유만을 택하라.

의상에 주름이 생기는것에 신경쓰지 말것. 부자들은 자연섬유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이해한다.

▲돈이야기는 되도록 하지않는다.

진짜 부자들은 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로서리에 가서 낯선사람에게 오렌지의 가격에 대해 불평을 하거나, 자신의 우표수집이 얼마나한 가치가 있는지 자랑하거나, 어제 산 핸드백에 얼마를 지불했는지 자발적으로 말하지말라.

에티켓북 정독…손수건 꼭휴대토록 즐겨쓰는 어휘익히고 돈 얘기 피해

게다가 가난한만큼 가난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자신의 사기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갖고온다.

여기 부자들의 습관에 대한 힌트를 소개, 적은 비용으로 돈 많은 사람들의 매너를 익히는데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테이블매너를 익힐때까지 에티켓·북을 정독한다.

이것은 어떤 고급레스트랑에 가더라도 편안한 마음을 갖게해주며, 디너포크로 디저트를 자르는 앞사람을 보고도 웃지않는 매너를 가르쳐준다.

점잖은 태도는 진짜 부자들의 중요한 특징이다.

▲매일 헝겊손수건을 갖고다니며 사용하라.

▲대부분의 시간에는 TV를 꺼놓아라.

과다한 TV시청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또는 아무것도 할수없을만큼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상징이다.

▲새가구를 들여놓지 못하게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귀족다운 태도를 개발하도록.

즉 동작이 느린 판매원이나 티켓을 떼는 경찰, 예의없는 웨이트리스등등과 언쟁을 하지않는것을 의미한다.

▲상류층들이 쓰는 어휘를 익혀두라.

예를 들어 미국 상류층들은 「rich」「napkins」「I'm going to be sick」라는 말을 쓰는 반면 그렇지않은 사람들은 「wealthy」「serviettes」「I feel ill」등의 말을 사용한다.

ㄴ카친선 교민실태 파악차 국정자문위원단 내방

(오타와 이태은지국장) 지난 5월24일~26일까지 오타와를 방문한 국정자문위원들은 국회의원 의장을 비롯, 정계인사와 한카의원연맹 의원들을 방문했다.

25일 아리랑식당에서 오타와 교민회 역대회장 및 한인모임 대표들을 초청, 만찬을 겸한 한국정세에 관한 대담을 가졌다.

이번에 내방한 국정자문위원은 박충훈(전 국무총리및 대통령권한대행), 민복기(전 대법원장), 이형근(전 합군회장 및 반공연맹이사장), 이영복(현 천도교교령), 김옥진수행원(사무차장)씨 였다.

국정자문위원들은 연1회 미국·유럽·남미등지를 시찰, 국제정세 및 교포활동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무보수직이며, 수당만 지급받는 기관이다. 이날 만찬회에는 이규현대사의 오타와 방문 환영인사와, 자문위원들의 소개가 있은 후, 대담과 토론을 가졌다. (연설요지 별항)

교민의 벗
한국일보 · 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축
일간지 발행 1주년기념

성실한 신문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신문
신속 · 정확한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더욱 발전하시고,
교민사회의주춧돌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밭식품 : 274—5401 서울식품 : 291—8317
삼복식품 : 743—8270 제일식품 : 532—1054

일간발행 1주년특집

81년도 1년간의 <토론토－한국일보> 필자및 글 총목록

본보에 비쳐진 문화자산 조감도

81년도는 본보의 획기적 기념의 해였다. 1~5월은 <캐너더뉴스> 제호로 매주2회(수·토) 간행됐고, 6월1일자부터는 <토론토 한국일보>로 제호를 고침과 동시 일간으로 발행(매주5회)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더욱 밀접하게 독자들과 직결되는 신문 만들기로 편집방침을 세워 문화·사회·경제·예술등 각 방면에 걸쳐 폭 넓은 자료와 보도기사를 실었다. 특히 집필자 여러분께 독자와 함께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

75년4월 창간된 본보는 만7년을 보내는 4.25로써 총806호를 맞이했다. 지난 1년간의 기획기사등을 집계하면 총381이 된다. 1. 평론·소론·문화시언— 86 2. 사설— 46 3. 칼럼들— 51 4. 행사·특보— 35 5.문학·예술— 163

(1) 시사·정치

▲통일에 도움못주는 북한방문(이범석)……489(1 .17)
▲이민－호적정리후 이민신청해야(서더랜드)…… 489(1.17)
▲모국의 교민정책은 건재한가?(윤방현)……491(1.24)
▲우리의 자세(김광석)…… 493(1.31)
▲북한의 연방제 비판…… 494(2.4)~501(2.28)
▲한미관계에 새 기틀(정상회담)……494(2.4)
▲붉은 마수를 경계하자(주홍길)……495(2.7)
▲한국방문 후감(강우석)…… 500(2.25)
▲3.1운동과 해외동포(윤방현)……501(2.28)
▲3.1운동이란?…… 502(3.4)
▲남북통일－미주교포 앙케이트…… 509(3.28)
▲레이건 저격받아…… 510(4.1)
▲헌법개정안중 기본권조항의 의미……511(4.4)
▲"나는 분노의 인간"(발렌싸)……512(4.8)
▲평화통일 자문회의에 다녀와서(정일송)……561(7.9)
▲한·가 정상회담과 이민문제(윤방현)…… 630(9.28)
▲트루도 방한과 캐나다 교포(오기송)…… 631(9.29)
▲조국은 하나(박부용)…… 655(10.27)
▲캐나다 헌법안 개요……695(12.14)~703(12.23)

◇경제

▲81년의 캐나다 경제전망(엄승용)……489(1.17)
▲수출한국의 현장과 전망(토론토무역관)487(1.1)~490(1.21)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하나(심상수)……491(1.24)
▲토론토에 이상 부동산붐……502(3.4)
▲중동산유국의 경제력과 후진국 영향(엄승용)…… 514(4.15)
▲세무감사(심상수)……515(4.18)~517(4.25)
▲에너지문제 해결이 큰 관건(엄승용)…… 556(7.3)
▲캐나다및 퀘벡주 경제전망(정회수)… 580(7.31)~601(8.25)
▲82년도 캐나다예산안 해설(심상수)…674(11.19)~691(12.9)
▲인플레 억제 위한 예산(엄승용)……677(11.23)
▲실업인협동조합(김학량)……695(12.14)

◇사회·매스컴·문화시언·제언

▲신년사(이규현·강우석·이상훈·정인기·박희민·강신봉·이형인·이용태)……487(1.1)
▲닭해를 맞는 인사말(김창훈)……489(1.17)
▲호뭇한 동향모임(박옥규)…… 489(1.17)
▲가짜버스표 사건(최충식)…… 490(1.21)
▲「뿌리」찾은 갈색눈(안토니오·코레아)……490(1.21)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가(천주교 모금)……495(2. 7)
▲위니펙 재봉사들의 실태…… 496(2.11)~497(2.14)
▲시집출판기념회를 보고(박옥규)…… 497(2.14)
▲이민과 건강(박태식)…… 497(2.14)
▲김영욱씨 초청협연－한인교향악단…… 498(2.18)
▲상도의 확립(이석현)…… 499(2.21)
▲심포니 향연에의 초대(윤용섭)……499(2.21)
▲내가 기대하는 실협(조한철)……503(3.7)
▲불의의 재물(김재광)…… 508(3.21)
▲가계경영과 장부정리…… 508(3.21)
▲이민선배에 제언(이병수)…… 508(3.21)
▲우리 이러지들 맙시다(조정대)……509(3.28)
▲교포상인간의 경쟁(박희민)…… 513(4.11)
▲한국인의 이미지(박희민)…… 513(4.11)
▲인간도덕과 상도덕(박찬도)…… 517(4.25)
▲부처님 오신날(삼우)…… 519(5.2)
▲부처님 오신뜻은(석광옥)…… 520(5.6)
▲일간지 발행에 즈음하여(김명규)……528(6.1)
▲일간발행 축사(트루도·데이비스·이상훈·홍순관·황순일……528(6.1)
▲제1회 민족상 수여를 축하(구상회)……535(6.9)
▲한국체육 60년 회고담(김분량)……597(8.20)
▲한번 생각해 봅시다(조남유)……609(9.3)
▲새 회장단에 드린다(함필용)……619(9.15)
▲스포츠 단상(유승민)……621(9.17)~692(12.10)
▲코리안·파워(서만수)…… 662(11.5)
▲실협선거전에(최충식)……673(11.18)
▲실협회장선거에 즈음하여(이상철)…… 676(11.21)
▲「한국일보－토론토」에 답한다(오기송)…… 679(11.25)
▲이민가정의 가족세도(김보경)…… 682(11.28)~684(12.1)
▲「코리안·파워」의 비판(박찬도)…… 685(12.2)~686(12.3)
▲취임사(차선겸)……688(12.5)
▲이임사(이형인)……688(12.5)
▲비판에 대한 답변(서만수)……702(12.22)
▲가족함께 즐거이(윌리엄·데이비스)……705(12.25)
▲송구영신의 변(원종범)…… 708(12.29)

(2) 사설

▲새해의 과제…… 487(1.1)
▲정정당당한 상도의…… 489(1.17)
▲레이건의 미소작전(한미정상회담이 가져오는것) 491(1.24)
▲이민사 정립……493(1.31)
▲이민지의 한민족…… 495(2.7)
▲한미해빙……497(2.14)
▲유종의 미(사업의 끝은 깨끗이) ……499(2.21)
▲공동전선(주선거에 참여하자) ……501(2.28)
▲회고와 전진(본보 500호 돌파에) …… 503(3.7)
▲친목에 철하라(친목계의 부작용 지양) ……505(3.14)
▲통일염원(미주교포의 앙케이트 결과를 보고) … 507(3.21)
▲대통령에 기대한다(이민정책에 영단을) …… 509(3.28)
▲다시 상도의(교포가게끼리의 굳은 유대) ……511(4.4)
▲캐라반 불참의 파장(한인회와 교민의 책임) …… 513(4.11)
▲이민삶의 부활(부활절이 가져오는 참뜻) ……515(4.18)
▲연합회에 대한 제언(장기계획 수립과 민주원칙을 확립하라) …… 517(4.25)
▲교회의 비중(이민사회의 등대구실) …… 519(5.2)
▲지도자의 처신(최근 한인회의 분규) ……521(5,9)
▲한인민족상(제1회 수상자 결정에 부쳐) …… 523(5.16)
▲이민1세의 책임(자녀교육이 제1의적) …… 525(5.23)
▲발전적 매듭(<캐너더뉴스>의 고별사) …… 527(5.30)
▲역사적 출진(<한국일보－토론토>발행) ……536(6.10)
▲참산없는 감옥(이민사회 노부모의 카타르시스) …541(6.16)
▲도약대(본사의 3대행사) ……547(6.23)
▲온정의 채질(본보에 대한 교민의 격려) …… 562(7.10)

▲파업망국(우편노조 파업의 장기화) ……568(7.17)
▲역사적 행사가 돼달라(전캐나다 한국인 체육대회) ……573(7.23)
▲이민중가운동(우리가 잘살 길은 이민중가에) ……580(7.30)
▲빈집살림(한인회 정상화의 길) ……587(8.8)
▲체육대회의 명암(전진을 위한 제언) ……599(8.22)
▲교포실업인 배척운동(미국사건은 강건너 불 아니다) ……641(9.9)
▲한인회 출범(새회장단에 바란다) ……621(9.17)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트루도 방한에 즈음하여) 627(9.24)
▲민속의 접목(황·백합동 추석놀이를 계기로) ……635(10.3)
▲굳은 유대를(외환은행 진출에) ……641(10.10)
▲예술행사(「현대한국초대작가전」의 결산) ……647(10.17)
▲모국어의 비중(현상문예·우리말대회를 보고) ……653(10.24)
▲취업이민의 명암(위니펙봉제협회의 경우) ……658(10.31)
▲해야할 일들(한인연합회에 촉구한다) ……665(11.9)
▲경솔의 어리석음(북한행은 재삼 고려해야) ……668(11.12)
▲당당한 대결(실협선거에 거는 기대) ……676(11.21)
▲당당한 상도(商道)(잇달은 범법사건을 보고) ……682(11.28)
▲예술의 비중(문협등 활동을 중심으로) ……688(12.5)
▲한인회관 이전문제(다수교포가 이전희망) ……694(12.12)
▲광고와 언론(그 함수관계) ……700(12.19)
▲메리·크리스마스(성탄의 현대적 의미) ……705(12.25)

(3) 칼럼들

◇제 5 계절

▲복합문화주의 사회(안토니오·코레아)……656(10.28)
▲이민훈련병(박충도)……661(11.4)
▲여름학교를 끝내고(김숙희)…… 667(11.11)
▲2천년대의 도서관(유형승)……673(11.18)
▲뿌리를 찾기까지(안토니오·코레아)……679(11.25)~680(11.26)
▲예술과 에로티시즘(박충도)…… 685(12.2)
▲할일 많은 한국인학교(김숙희)……691(12.9)
▲명탐정"호옴즈"(유형승)……697(12.16)
▲한국과 이태리 공통점(안토니오·코레아)…… 703(12.23)

◇안상엽「기쁜소리」

▲두개의 행복…… 489(1.17)
▲두개의 사랑…… 491(1.24)
▲돈벌이……495(2.7)
▲텔레비와 어린이교육…… 499(2.21)
▲노름판 대화…… 501(2.28)
▲죽겠네"…… 503(3.7)
▲사순절(Lent)……506(3.14)
▲유행과 봄…… 509(3.28)
▲성공과 실패…… 511(4.4)
▲누구를 위해 사나……513(4.11)
▲죽음보다 강한 힘……515(4.18)
▲골병든 인간…… 517(4.25)
▲어린이와 어른…… 519(5.2)
▲장한 어머니…… 521(5.9)
▲매력있는 부부의 잡담……523(5.16)
▲집과 가정…… 525(5.23)
▲결혼관……527(5.30)
▲칭찬도 욕일까…… 530(6.3)
▲죄인이 누군가…… 538(6.12)
▲피묻은 손…… 549(6.25)
▲망하는 원인…… 559(7.7)
▲여름이 오면…… 568(7.17)
▲"조국"의 뿌리…… 593(8.15)
▲값비싼 수학여행…… 599(8.22)
▲자녀와 그장래…… 603(8.27)
▲가야할 길…… 611(9.5)
▲결혼의 노래…… 617(9.12)
▲모태에서 묘지까지…… 627(9.24)
▲감사하며 살자…… 639(10.8)
▲사랑의 힘…… 650(10.21)
▲서로의 관계…… 657(10.29)
▲귀와 입……662(11.5)
▲보고싶은 사람…… 667(11.11)
▲나와 우리…… 674(11.19)
▲놀부의 심술…… 686(12.3)
▲메시야……692(12.10)
▲고마운 분들…… 705(12.25)
▲최후의 웃음…… 710(12.31)

◇강찬영「법률상담」

▲세금납부……489(1.17)
▲파산……493(1.31)
▲거주지 임대…… 499(2.21)
▲임대계약……573(7.23)

◇학술·종교·교육

▲새해설교「생각하며 살도록…」(김상호)…… 487(1.1)
▲희망의 시그난(이상철)…… 488(1.14)
▲생활영어(민병철)……504(3.11)~709(12.30)
▲자녀와 함께 푸는 수학문제……506(3.14)~511(4.4)
▲자녀교육 안내(김지일)…… 522(5.13)
▲영어회화의 첩경(민병철)…… 523(5.16)
▲노력만이 영어극복의 길(박창진)……630(9.29)
▲칼레지와 대학의 비교…… 629(9.20)~635(10.3)
▲현대 미국양서 100권…… 635(10.3)
▲심리상담의 필요성(김보경)…… 636(10.5)
▲노벨상－그 취지와 연혁……659(11.2)
▲미국에서 가장 인기높은 대학…… 686(12.3)
▲성탄은 이웃사랑의 계절(김재준)……705(12.25)

(4) 행사 특보

▲80년도 교민사회 10대뉴스……487(1.1)
▲교민단체 업적및 계획……487(1.1)
▲차원높은 문예잔치「문학의 밤」……487(1.1)
▲3명의 교포 바이올리니스트…… 487(1.1)
▲제4회 신춘문예 발표…… 487(1.1)
▲문협합작집「이민도시」……487(1.1)
▲전두환·레이건 정상회담……491(1.24)
▲「코리안·콘벤션81」개최……499(2.21)
▲김지하 시인 상 받아…… 500(2.25)
▲교포어린이 11명 키와니스대회 입상…… 500(2.25)
▲선교TV「생명의 말씀」첫방영…… 501(2.28)
▲라이온스·클럽 탄생……506(3.14)
▲구자승·장지원 부부전……5 08(3.21)
▲한인교향악단 공연…… 509(3.25)
▲연주는 끊임없는 도전(김영욱)……510(3.28)
▲안병원씨「한국아동음악상」수상……511(4.1)
▲「원더랜드」개장(4.23)……517(4.25)
▲제1회 민족상수상자 탄생……522(5.13)·552(6.29)
▲한인민족상 규약…… 524(5.20)
▲<캐너더뉴스>사 행적조감도…… 527(5.30)
▲한인교향악단 백건우씨와 협연……542(6.17)
▲6.25.캐나다군의 참전…… 548(6.24)~553(6.30)
▲고국연예인단 쇼…… 558(7.6)
▲토론토에 한국교육원(원장 고재혁)……599(8.22)
▲현대한국작가 초대전…… 633(10.1)
▲미국서 암약하는 소련간첩……642(10.12)
▲토론토에 불우청소년의 집……649(10.20)
▲복합문화주의 10년…… 649(10.20)
▲자금까지 인류인구 5백억명…… 656(10.28)
▲트루도수상 방한수행(이태은)…… 655(10.27)~680(11.26)
▲한인합창단"메시야"공연……691(12.9)
▲영향력 있는 81년도 여성 25명……694(12.12)
▲밤낮없는 초비상 지하요새……695(12.14)~696(12.15)
▲토론토한인교회 폐쇄…… 697(12.16)
▲81년 교민사회 10대뉴스……710(12.31)

(5) 문학·예술

◇시작품

▲밝아오는 해(이석현)…… 487(1.1)
▲아침(엄혁)……488(1.14)
▲은혼가(박옥선)……489(1.17)
▲탈춤(변은숙)……490(1.21)
▲반드시 밝아오리니(조정대)…… 491(1.24)
▲겨울 물오리(이원수)…… 493(1.31)
▲세월의 강(권순창)…… 495(2.7)
▲백성(김대호)……499(2.21)
▲너를 사랑해(안토니오·코레아)……501(2.28)
▲14시간(이정원)……503(3.7)
▲수난절에(박옥선)……506(3.14)
▲성 금요일(이석현)…… 510(3.38)
▲도시이야기(엄혁)……516(4.22)
▲귀로에서 : I (송광호)……519(5.2)
▲이민의 노래(이석현·안병원 곡)…… 519(5.2)
▲부재중(김삼우)……523(5.16)
▲다시 님을 향하여(박옥선)……531(6.4)
▲이민시간(송순태)……577(7.28)
▲변명(박성민)……605(8.29)
▲가을의 퇴근(변은숙)…… 613(9.8)
▲오후 한때(이석현)…… 641(10.10)
▲시 그제 : 들국화,길(문인귀)……657(10.29)
▲밤에쓰는 편지(조정대)…… 668(11.12)
▲가난한 그대(송순태)…… 672(11.17)
▲서울손님(2)(박옥선)……682(11.28)
▲무언곡(조미래)……702(12.22)
▲싼타클로스(박옥선)……705(12.25)

◇소설

▲머리카락 보일라(1)~(4)(서만수)……490(1.21)~496(2.11)
▲눈이오는 소리(1)~(6)(박성민)…… 498(2.18)~507(3.18)
▲사슴을먹고 사는 사람들(팔리·모왓)… 528(6.1)~710(12.31)
▲손자(서만수)……540(6.15)
▲상주(이태준)……618(9.14)~621(9.17)
▲모래성(박성민)……660(11.3)~676(11.21)
▲그밤의 사건(프랑소아·꼬뻬)……705(12.25)
▲살아있는 선물(검돌)…… 705(12.25)

◇수상

▲세배(유인형)……489(1.17)
▲「Sophi's Choice」(박문회)……496(2.11)
▲화목의 합창을(주수자)…… 497(2.14)
▲도약의 단계까지(이재숙)…… 508(2.21)
▲마음의 고향(김미화)…… 508(3.21)~510(3.28)
▲Disposal 시대(여동원)…… 513(4.11)
▲그 영원한 목가(권순창)……517(4.25)~553(6.30)
▲캐네디언 랩소디(신동헌)……518(4.29)~593(8.15)
▲어머니(김숙희)……521(5.9)
▲별들(유인형)……531(6.4)
▲안전통로(유인형)……574(7.24)
▲여름휴가(조남유)……585(8.6)
▲<이태리 기행>예술의 향기(유희자)……632(9.30)~688(12.5)
▲낙서(1)(홍기만)……637(10.6)
▲낙서(2)(홍기만)……656(10.28)~657(10.29)
▲꿀핑 위도우(원옥재)…… 658(10.31)
▲이민,구멍가게,그리고 조그만 나(김영희)……664(11.7)~705(12.25)
▲낙서(3)(홍기만)……667(11.11)
▲수상 2제(유인형)…… 678(11.24)~680(11.26)
▲낙서(4)(홍기만)……692(12.10)
▲EL CAPITAN(장연탁)…… 697(12.16)
▲낙서(5)(홍기만)……703(12.23)
▲조국을 위하여 우는 사람들(강신봉)…… 708(12.29)

◇작품평·예술론

▲제4회 신춘문예 심사평(이석현)……489(1.17)~492(1.28)
▲<신간평>삶의진통속의 실존적 확신(이석현)……495(2.7)
▲고호작품전에의 권유(장연탁)…… 503(3.7)
▲<신간평>여동원저「이민낙서」(박충도)……507(3.18)
▲파이프올갠 음악의 역사적 배경(유희자)…… 510(4.1)
▲문학과 시대정신(이석현)…… 511(4.4)
▲올갠독주를 듣고(안병원)…… 513(4.11)
▲작가의 양심문제(박충도)…… 521(5.9)
▲현대조각 감상(장연탁)…… 524(5.20)
▲순수미술가와 상업주의(김정진)…… 577(7.28)
▲제6회 사진대회 심사평(이인덕)…… 625(9.22)
▲실협제1회 문예작품 심사평(이석현)…… 639(10.8)
▲감동어린 순간(이양원)…… 645(10.15)
▲환희와 감격의 대곡「메씨아」(박재훈)……676(11.21)
▲한국소설－어제 오늘(박동규)…… 679(11.25)~680(11.26)
▲제3회 토론토한인교향악단 연주(안병원)…… 700(12.19)

◇독자투고·학생문예

▲꿈을키우는 나날(이옥화)…… 493(1.31)~500(2.25)
▲철부지의 꿈(이미영)…… 647(10.17)
▲우리집(김남현)……653(10.24)
▲왜 한국말이 중요한가(김남회)……648(10.19)
▲우리말의 중요성(석남일)…… 668(11.12)
▲「메시아」를 듣고(한인석)…… 703(12.23)
▲대한의 딸들에게(이상온)…… 705(12.25)
▲ 88년 서울올림픽(장윤천)……710(12.31)
▲「제5계절」을 읽고(서정길)……684(12.1)
▲무엇을 물려주려고(문경훈)…… 494(2.4)

◇취미「영화안내」

▲영화안내 : Fort Apache the Bronx(정홍택)……499(2.21)
▲영화안내 : "Tess "(정홍택)…… 503(3 .7)
▲영화안내 : Modern Romance(정홍택)……518(4.29)
▲영화안내 : Night Hawks(정홍택)……521(5.9)
▲끝없는 사랑…… 605(8.29)
▲뉴욕탈출……611(9.5)
▲신들의 대결…… 624(9.21)
▲도시의 왕자…… 639(10.8)
▲「성 재클린」재현…… 644(10.14)
▲Rich and Famous……660(11.3)
▲Absence of Malice…… 685(12.2)

(6) 사진작품·만화·화보·휘호

◇제6회사진대회 입상작

▲특선 : 적막(박용렬)……625(9.22)
▲1등 : 나이아가라 야경(원용설)…… 629(9.26)
▲2등 : 나이아가라·폴 다운(김형찬)……633(10.1)
▲3 등 : 팡(임윤재)……636(10.6)
▲장려상 : 자연의 힘(이회진)…… 642(10.12)

◇만화

▲일지매(고우영…… 487(1.1)~516(4.22)
▲삼국지(고우영)……488(1.14)~710(12.31)
▲핼로윈 데이(황상규)…… 658(10.31)
▲산타25시(황상규)……705(12.25)

◇화보

▲패션 81……503(3.7)
▲역사적 한인체육대회…… 595(8.18)~597(8.20)
▲트루도 수상 한국방문……633(10.1)

◇휘호

▲"정론진필"(正論眞筆)(이성희)……493(1.31)

◇생활정보

▲와인의 상식……487(1.1)~493(1.31)
▲모피·밍크(정승규)……488(1.14)~497(2.14)
▲문답식 개정여권법 해설……497(2.14)
▲방문비자 만기전 결혼해야(멘델그린)……498(2.18)
▲발모가 부끄러운 아이……500(2.25)
▲가게 좀도둑을 줄이는 방법…… 501(2.28)
▲재고조사(김회학)……503(3.7)
▲모피손질과 보관(정승규)……503(3.7)~509(3.25)
▲뱅쿠버 한인버섯 경작……503(3.7)
▲서구생활과 한국음식(김문예)…… 504(3.11)
▲가게경영과 장부정리…… 505(3.14)
▲9가지 미국결혼 형태…… 506(3.18)
▲사랑은 중독(스텐턴·필)……511(4.4)
▲상점보험을 다시 검토하자(배용빈)……512(4.8)
▲책읽기는 갓나서부터…… 513(4.11)
▲봄철 머리손질…… 513(4.11)
▲젊어지는 법…… 513(4.11)
▲Cold Salmon만드는 법(명인자)…… 516(4.22)
▲담배해독에 된장국·미역……518(4.29)
▲Shimp Salad Stuffed in Avacado…… 519(5. 2)
▲새 사업체를 갖는 길…… 521(5.9)
▲비지니스 법규…… 521(5.9)
▲초보자를 위한 골프교실…… 521(5.9)~525(5.23)
▲풍경사진 촬영법(이인덕)……521(5.9)~532(6.5)
▲상품반환과 교환 …… 523(5.16)
▲정원채소 재배법…… 526(5.27)
▲스토어 리스상의 유의점(랠프·M·레빈)……527(5.30)
▲소비자의 자위책…… 532(6.5)
▲Frisbee 던지기……540(6.15)
▲환불과 교환조건……543(6.18)~556(7.3)
▲건강의 비결……546(6.22)~583(8.4)
▲테리·팍스 그 인물…… 556(7.3)~558(7.6)
▲노년의 원조절차(김준순)…… 574(7.24)
▲상점경영의 묘미(피터·태사)…… 587(8.8)~637(10.6)
▲전화상담의 에티켓…… 629(9.26)
▲노년의 사회보장(김준순)…… 632(9.30)
▲관광안내 : 황금의 계절을 찾아……641(10.10)~654(10.20)
▲여행사와 항공요금－그 실태……641(10.10)~685(12.2)
▲칵테일의 창작…… 651(10.22)
▲새차구입 다섯가지 비결……653(10.24)
▲핼로윈 풍습…… 658(10.31)
▲집비우고 여행갈때의 도둑대비책……666(11.10)
▲임산부의 영양관리…… 682(11.28)
▲인터뷰 : 최승락 외환은행장…… 690(12.8)
▲여행안내(김창범)……194(12.12)~697(12.16)
▲법률소개 : 들치기·절도의 형량……696(12.15)
▲맛있는 커피끓이기…… 702(12.22)
▲크리스마스 풍습들…… 705(12.25)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外來語表記 통일된다

文教部, 建國후 처음 내달초試案…연내 用例集배포

外來語 現地발음 우선 굳어진말은 慣例에 따라 리베리아 → 라이베리아, 타나카 → 다나까

로마字 表音주의…불가능한것은 가장 비슷한 方法을채택 SEOUL은 그대로 使用 GEOBUKSUN→GOBUKSUN

義務的사용 法制化하기로

辭典·公文·商品名등單一化

정부·민간의 각기관은 물론 개인마다 다르게 사용해오던 외래어표기, 로마字표기가 건국이후 처음으로 통일, 단일화된다. 문교부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쓰는 외래어표기와 우리말을 로마字화하는 로마字표기에 관한 정부의 통일시안을 마련, 내달초 공청회를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27일 문교부가 학계 (학술원)의 의견과 외무·국방·교통·체육·문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통일시안방침에 의하면 지금까지 각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해온 외래어및 로마字화표기를 하나로 단일화해 이를 모두 문교부가 만드는 용례집에 수록, 모든 기관이 이 용례집에 수록된 표기법을 사용토록 법제화하기로했다.

문교부가 밝힌 통일방안은 ▲외래어표기(코리아나이즈)원칙은 현지발음을 우선으로 하되 지금까지관례에의해 이미굳어진 표기는 그대로채택하고 ▲로마字화 (로마나이즈) 표기는 소리나는대로 적는방식인 표음주의를 채택키로하며 ▲정확한발음으로표기할수없을때는 가장비슷한 표기방법을 만들어쓰는「문자의약속화」방식을채택하기로하고 정부공문서의 표기는 물론 상품명 모든 출판물의 내용의 외래어 표기등은 용례집의 단어를 의무적으로사용토록하기로했다.

또 일본의 경우처럼 국어사전에 통일된 안 하나만 실리도록 한다는것으로 지금까지는 라디오 (RADIO)의 경우 「라디오」항목에 「레이디오」 라지오」등도 기재해 왔었다.

문교부의한관계자는『외래어 표기및 로마자 표기법은 해방후 30년이상의 세월이지났으나 아직도 통일을못본채 각기관마다 표기방법이 틀리고 심지어 정부 각부처도 서로틀려 국민들의 언어사용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해왔다』고 밝히고『88올림픽등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표기법의 단일화는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지난 78년 12월 국어국문학회안 한글학회안 신문편집인협회안등을 반영, 어문관계법 개정 시안의 하나로 외래어 표기 방법을 새로 만들었으나 정부의 통일안으로 채택되지 않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용상의 혼란은 여전했다.

실례로 각지역 이름의 영문표기의 경우 한지역이 몇가지로 표기돼 외국인들을 당황케하고 있는데 관광도시 慶州는국립지리원이제작한지도에는「KYUNGJU」로, 고속도로의 교통안내 표지에는「GYUNJU」로, 문화재관리국은 시내의 안내판에 「KYUNGCHU」로 다르게 표기해놔 큰 혼선을 빚고있다. 釜山도 부처마다 PUSAN·BUSAN등으로 다르게 표기하고있다.

이 밖에도 영어에없는 우리말의「어」나「으」발음을 지나치게 강조, 발음하기 힘든「EO」나「EU」로 표기해놔 오히려 혼선을빚고 있는데 여의도가「YEOIDO」로, 거북선이「GEOBUKSUN」등의 이상한 표기를 해오고 있다.

문교부의 단일시안은 거북선일경우「GOBUKSUN」으로 표기하고 발음은「거북선」이 되도록「문자의 약속화」방식을 채택하고 될수록 모음의 중복을 피하며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알려진 SEOUL등은 그대로 사용키로했다.

로마字표기도

또 각언론기관도 지명이나 인명을 틀리게 표기하고있어 어린이들의 국어교육에도 혼선을 빚고있는데 종전의 웹스터 사전의 발음우선원칙에서 탈피, 현지 발음 우선원칙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영어식 발음에 따르기로했던 일본어표기 (田中→타나카)도 원음에 가깝게 (田中→다나까) 바꾸기로했다.

정부각부처중 외무부는 문교부와 협의를 거쳐 이미 외국명 표기통일작업에 착수, 1백64개국의 국명을 새로 정했는데 리베리아는 라이베리아로, 자이레는 자이르로, 알젠틴은 아르헨티나로 각각 고쳤다.

문교부는 내달 6월초까지 통일시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외견을국어심의회의 재심을 거쳐 확정, 금년말께 용례집을만들어 전국에배포키로했다.【李鍾九기자】

오늘本會議서 張女人사건추궁

임시國會 會期 5일

與, 국민疑惑해소·景氣부양 力點

野, 國調委·辭退권고案 발의방침

張여인사건을 다루기위한 제113회 임시국회는 28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對정부질문을 벌인다.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들은 27일 접촉을갖고 임시국회日程에 최종합의했다. 이틀동안의 본회의 對정부질문에이어 31일 하룻동안 常委활동, 6월1일 본회의등 일요일을 포함, 모두 5일간의 會期로 운영될 이번 국회는 첫날인 28일 劉彰順국무총리의 張여인사건관계, 金俊成부총리의 事後수습책, 鄭致根법무장관의 수사결과등 정부측으로부터 일련의 보고를 들은뒤 李聖秀 (국민) 劉沃祐(民韓) 李亮雨의원(民正)등이 나서 사건의 정확한 眞相규명과 수습책을 추궁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본회가끝난뒤 31일 외무·내무·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常任委를 열 예정인데 6월1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野黨측이 國政調査 特委결의안과 총리사퇴 권고결의안, 관계장관 해임 결의안을 上程시킬 예정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民正黨측과 與反논쟁이 벌어질 것으로보인다.

국회는 28일 하오2시 개회식에 앞서 운영위를 열고 야당측이 제출하게될 國政조사特委구성결의안과 총리등 관련장관解任결의안등과 관련,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협의한다.

民韓黨과 국민당은 國政조사特委구성 결의안과 총리사퇴권고및 부총리·재무·법무장관해임결의안을 28일 국회에 내겠다고 27일 與黨측에 정식통고했는데 野黨측은 이중 特調委구성결의안과 일반 議案인 총리사퇴 권고결의안 이 본회의에서 否決될경우 소속의원들의 서명을받아 다시 발의키로했다.

議政同友會는 27일 의원총회를열고 야당측이제기한 國政조사特委구성결의안과 국무총리사퇴권고 결의안및 부총리·재무·법무장관 해임결의안의 공동發議에 동조키로 결정했다.

民正黨은 이번국회를통해 張여인사건을 수습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측에 더이상 배후가 있는지의 여부와 더불어 특히 民正黨의 관련說등 국민들이 아직도 의혹을 갖고있는 부분에 대해 明快하게 수사결과를 밝히도록 촉구하는 한편 制度의 보완책과 경제 회복책을 추궁키로 했다.

사회안정과 景氣회복에둘 방침이다.

특히 民正黨은 사건의수습 마무리를위해가능한한野黨의 정치공세擴散을 방지한다는 기본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民韓·국민당등 野黨측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나 改閣등 사후조처가 未洽하다는 전제아래 정치공세를 최대한 벌이기로하고 이사건의 배후와 자금의 행방등 의혹의 여지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수 있는 制度적 보완책과 관련 피해자의 救濟방안을 추궁키로 했다.

3黨, 院內대책會議

民正 民韓 국민당은 28일상오 임시국회개회에 앞서 각기 의원총회를열고 원내대책을 협의한다.

民正黨은 이날상오10시 중앙당사에서, 民韓黨은 상오10시 국회146호 회의실에서, 그리고 국민당은 상오10시30분 국회총무실에서 의원총회를 연다.

美·佛정상회담 來3日 파리서

【산타바바라(캘리포니아주) 26日AP=聯合】로널드·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오는 6월3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미백악관 대변인이 26일 발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6월3일 파리에 도착, 5·6양일간 베르사유에서 개최되는 서방선진7개국경제정상회담에 참가하게된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한 정상회담 개막에앞서 현프랑스 보수야당 지도자인 자크·시라크 파리시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安保理, 時限附仲裁 결의

英·아르헨, 受諾 7일동안 케야르總長에 委任

포클랜드

戰鬪격화 우려도

【부에노스아이레스27日=李梓昇특파원】케야르유엔사무총장의 평화협상이 결렬된이후 영국군의 상륙작전등 확전으로 치닫았던 말비나스(포클랜드)島분쟁은 26일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에게 7일동안 시한부로 휴전을 중재토록위임한 유엔安保理의 결의안을 수락함으로써 6일만에 다시 협상의 실마리를 찾게됐다.

유엔안보리는 이날 케야르 사무총장에게 7일동안영국·아르헨티나와 각각 접촉, 유엔결의안 502호의 테두리안에서 양측이 받아 들일수 있는 휴전안을 마련토록위임하고 휴전안에 합의하는경우 유엔휴전감시단을 파견할수 있는 권한도함께 위임하는5개항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와함께 이날 아르헨의한 외교소식통은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이 영국·아르헨측과 휴전방안을 협의하는 동안 양국의 군사적동향이 주목된다고 말하고 양측이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전투가 치열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날도 산·카를로스 지역에서는 영국군과 아르헨군이 치열한 교전을 벌였는데 아르헨군 합참본부는『아르헨군이 산·카를로스지역1백50㎞의 영국군 장악지역에 장갑차부대를 투입, 교전중』이라고 말하고『영국군의 시·킹헬리콥터 2대를 격추하고 다른 2대에 피해를입혔다』고 밝혔다.

아르헨本土 英특공대 潛入說

【런던26日UPI=聯合】영국특공대요원들이 지난주초 아르헨티나본토에 침투, 비밀기습작전을 통해 많은수의 아르헨티나신예항공기를 파괴했다고 런던의 데일리·익스프레스지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칠레소식통을인용, 특공대가 헬리콥터편으로 아르헨 본토에 침투한후 한밤중에 리오·가예고스 비행장에 잠입, 프랑스제 쉬페르·에탕다르 전폭기 5대에 폭발물을 장치했다고말했다.

영국국방성대변인은 데일리·익스프레스지의 이같은 보도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않으면서 『국방성으로서는 그런 보도내용에 관해 전혀 아는바 없다』고 말했다.

英구축함등 또침몰 최대損失

【런던26日UPI=聯合】영국군은 25일 영국해군의 최신예 구축함 코번트리호 (3천5백톤)와 대형수송선 아틀랜틱·컨베이어호 (1만5천톤)가 침몰되는등 개전이래 최대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클랜드의수도 포트스탠리로 진격할 태세를완료했다고 존·노트영국방상이 26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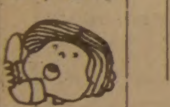
노트국방상은 이날 의회에서 25일 아르헨티나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코번트리號가 수발의 포탄에맞아 침몰, 승무원 20명이 사망하고 다른 20명이 부상했으며 해리어수직이착륙기의 항공모함구실을해온 대형상선 아틀랜틱·컨베이어號도 아르헨티나공군의 쉬페르·에탕다르전투기에서 발사된 엑조세미사일 2발을 맞고 침몰, 선원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영국군의 이날 피해는 포클랜드전쟁발생이후 영국군이 당한 최악의 피해로서 4월2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점령이래 영국군의 인명피해는 총99명, 침몰된 군함은 4척으로 늘어났다.

노트국방상은 그러나 25일의 대대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난21일 산카를로스에 상륙한 5천명의 병력이 동쪽으로 80㎞떨어진 수도 포트스탠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태세를 갖췄다고 말했다.

◇잠수함 잡는 魚雷 英國항공모함 허미즈號의 병기고병사들이 함상 활주로에서 시·킹헬리콥터에 장전할 對잠수함용 토르피즈어뢰를 옮기고있다.【포클랜드근해에서 26日AP特約=聯合】

한국일보



533-2361

"西유럽駐屯 美軍 撤收안해

레이건會見 軍縮으로 誘導彈 쓸모없게돼야"

【런던27日外信=聯合】레이건미대통령은 27일 서유럽주둔 미군을 철수시킬용의가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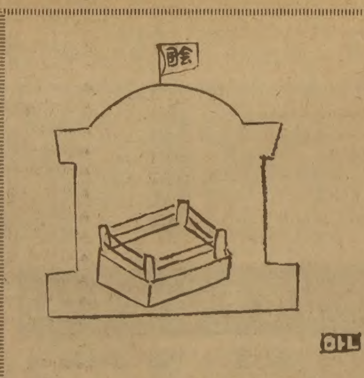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더·타임즈지에 게재된 서유럽언론인들과의 회견기사에서 일부 미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 유럽주둔미군을 철수시키지않을 생각이라고말했다.

그는 미국이 서유럽에 처있는 책임을 깨닫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스스로의 안보문제가 개입됐으며 미국의제1의방위선이기도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방위선을 지키기 위해 서유럽에 파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소군축문제에 언급, 자신은 미·소양국이 협정을통해 미제퍼싱Ⅱ및 순항(크루즈)미사일과 소제SS20미사일을 이지역에서 필요없는물건으로 만들수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밖에도 그리스―터키분쟁, 서방의 인플레문제등에관해 언급했다.

社會漫評



오늘부터 「張女人盃」쟁탈…

地平線

「빛은 동쪽에서」라고 서양사람들이 말할때 엷핏 서양 문화도 그 뿌리는 동양에 있다는 말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의 「동쪽」은 지금의 동양이 아니라 중동의 고대문명을 말하는것이다.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하류, 그리고 지중해 동쪽일대 해안의 고대문명이다. 고대 그리스도 그보다 앞선 동쪽으로부터 빛을 받았지만 서양으로서는 그리스도 동쪽이었다.

▼서양사람들이 「빛은 동쪽에서」라고 했다면 우리의 경우엔 「빛은 서쪽에서」라고 할수 있다. 유구한 그 옛날 청동기 문화도 따지고 보자면 메소포타미아의 뿌리에서 뻗어나와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를 거쳐 이 땅에 들어온 것이었다. 우리선사문화의 거대한 고인돌이라는 유물도 지중해에서 동남아를 거쳐 이 땅에까지 뻗친 巨石 문화의 발자취로 생각되고 있다.

▼역사 시대로 들어와 우리는 새로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게 됐다. 역시 이땅에서 보자면 서쪽의 중국문화가 이땅의 발전에 영향을 줬던것이다. 유구한 선사시대에서부터 따라서 이땅의 문화도 모두 서쪽 해안지대에서 꽃을 피웠다. 북으로는 요동반도와 대동강하류, 그리고 남으로는 금강하류와 영산강하류가 문화의 중심지였다.

▼고대사의 주역인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남북의 서쪽지역에 발달한 고대국가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백제의 역사는 이제 거의 영원한 과거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三國史記가 신라중심으로 쓰였고, 신라왕조의 역사는 백제사를 깎거나 변형함으로써만 이루어질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왕조사관」이 저지른 상처라고 할수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은 백제사회의 규모와 문화의 윤곽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꼬투리를 암시하고 있다. 백제가 망할때 호구는 76만호로 69만호인 고구려보다도 큰 나라로 중국기록에 쓰여 있다. 지금의 북경일대와 산동반도도 백제땅이었다고 梁書·南齊書·北齊書는 기록하고 있다. 崔致遠은 중국대륙에서의 백제의 군사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충남대학교에서는 일본 자유중국 서독등의 학자들도 참가한 백제연구국제학술대회를 갖고 백제사에 대한 새로운 반성을 시도했다(한국일보25일자 7면보도). 여기에서는 특히 고대일본의 국가형성이 백제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전통사학의 편견을 벗어나 이 땅에 빛을 던져준 백제사를 캐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진실을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이 결국 승리한다는 낙관적인 믿음 때문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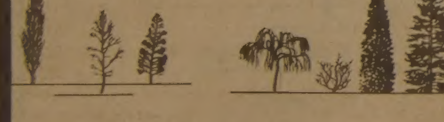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홍익동문야유회
및 총회소집 공고



일시 : 1982년6월5일(토) 오전10시30분부터
장소 : Albion Hills Conservation (8km North of Bolton on Hwy 50)
행사 : 야외어린이사생대회. 사업보고및 사업계획

홍익대 동문회장
이근호

감사문

지난 5월24일(월)에 시행된 한인친선낚시대회에 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총영사관과 한인회, 한국일보의 적극적인 후원과 각 기업체의 찬조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낚시라는 스포츠는 교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수 있는 대중적이고 전체교민의 스포츠이며, 특히 부부가 함께 즐길수 있는 도락임을 확신하고 권하고 싶은 바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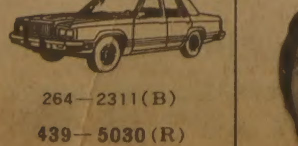
토론토한인낚시협회
회장 정삼열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제4회
고교동창 배구대회

일 시 : 1982년6월19일(토)오전9시
장 소 : Boyd Conservation park (입구바로 왼쪽 Poplar Hill) Hwy 7 & 이스링톤(이스링톤 노스로 3km)
시 상 : 1 2 3등및 응원상 (트로피)
규 칙 : 6인제로 하되 9인제 규칙을 적용함.
참가비 : 팀당 $30(참가를 희망하시는 팀은 5월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김인규(☎ : 960-5736
신강용(☎ : 251-6578)
※음료수는 주최측에서 제공합니다.

주최 : 서울사대부고동창회
후원 : 토론토한인배구협회
한국일보사, 브랜튼스포츠사

教皇 사상첫 訪英길에

가톨릭·聖公會간「450년不和」해소
南美·英 신교도 反對시위 거셀듯

○○○○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28일 역사적인訪英길에 오른다。6일간의 이번 영국방문은 교황으로서는 사상처음이다。교황의 訪英은 가톨릭과 영국聖公會간의 4백50년 묵은 불화감의 해소라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게되지만 요한·바오로2세에게는 어느 여행길보다도 어려운 수난의 순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치르고있는 영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이 교황이 영국을 도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됐을 뿐아니라 영국의 신교도들이 벌일 저항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가톨릭신도수는 5백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0%에 불과한데 비해 영국과 교전중인 아르헨티나는 전체인구의 90%가 가톨릭신도이다。

이같은 사정때문에 교황의 訪英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특히 남미 여러나라들의 반발이 거셌으나 요한·바오로2세는『의사는 환자가 필요로할때 그를 찾아봐야한다』는 자신의 모토에 충실했다。

평화의 사도못지않게 유능한 외교관이 되어야만할 상황에서 교황은 영국방문을 마치고 다음달 10일부터 12일간은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황이 할 수 있는 일은 구체적 협상의 중재자라기 보다는 양국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11번의 여행길에 24개국을 순방했던 것에 비해 이번 여행이 특히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영국의 국내사정 특히 북아일랜드의 종교분쟁과 관련해서이다。

북아일랜드의 강경파신교목사인 이안·페이슬리 목사는 지난3월에 1백여명의 신도들을 이끌고 교황방문반대시위를 벌였다。그는 그뒤로도 옥스퍼드에서 2백여추종자들과 함께 반대집회를 열고 교황을 가리켜「로마의 사탄」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그는『교황이 영국의 지배에 대항하는 북아일랜드의 게릴라들을 도덕적으로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방문을 반대하고 있다。

영국의회는 지난2월 북아일랜드의 자치제와 지방의회구성을 승인, 사태가 비교적 수그러들었으나 다수주민인 가톨릭계는 궁극적으로 가톨릭국가인 에이레와의 합병을 희망하고있다。

◇켄터베리대주교

◇교황 요한·바오로2세

영국신교연합회의 알렉스·로버트총무는 교황의 방문시간에 맞춰 런던시트라팔가르광장에서 5천여명으로 구성된 반대집회를 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는『특히 교황이 여왕 엘리자베드2세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치민다』고 한다。여왕의 선조 엘리자베드 1세는 종교분쟁시기인 16세기에 교황에 의해 파문된바있는데 여왕이 교황과 만나는 것은 신교를 수호해야할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교도들은 여기고있다。설상가상으로 찰즈황태자마저 29일 켄터베리성당에서 열리는 특별미사에 참석하겠다고 자원,이들 신교도들을 실망시켰다。

바티칸당국은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서 교황의신변보호에 배전의신경을 쓰고있으며 안전책임자는 신장1m94cm의 거인 마르킨커스대주교이다。

영국측에서도 교황전용특수차량을 제조하는등 준비를 갖추고있는데 이특수차량은 트럭을 개조한것으로 대규모야외미사에 알맞게 설계되었으며 유리는 방탄유리로 되어있다。

영국과 교황청이 교황의 訪英을 계획한것은 18개월전부터이다。영국켄터베리의로버트·런시성공회대주교가먼저제안한이번방문은 12년간의 논란끝에 영국성공회가『교황의 우월한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본격화됐다。

교황의 訪英은 신·구교에 상관없이 종교적조화를 가장 중요하게여기는 전세계그리스도교 합일의회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있다。【朴來富기자】

인사이드

伊로 번진 포클랜드波紋

EEC 눈치보며 經濟제재 연장離脫
강행땐 수10억弗 交易商談 깨질우려

이탈리아는 24일 EEC의 對아르헨티나 경제제재 연장에 반대하고 대열에서 이탈했다。

이탈리아가 정치적으로는 영국에대한 전폭적인지지를 표시하면서도 지난10여년간 냉랭한사이였던 아르헨티나에 대한 경제제재를 거부한데는 남다른 속사정이 있었다。

그사정이란 이탈리아가 안고있는 고질적인 聯政의 불안과 아르헨티나와 진행중인 거대한 규모의협상등 정치·경제적인 문제이다。포클랜드분쟁의 流彈은 대서양을 건너 이탈리아政局에도 떨어진 느낌이다。

아르헨티나의 국민은 97%가 스페인,이탈리아계로서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는 결국 피로 맺어진 사이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1976년 아르헨티나에 쿠데타로 비델라장군의 군정이 들어선후 인권문제를 이유로 아르헨티나를멀리했다。67년 아민토어·판파니이탈리아 외상이 마지막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후 양국의 왕래는 거의 끊겼다。

78년엔 비델라 대통령이 교황 바오로6세의 장례식에 참석차 이탈리아에 왔으나 페르티니 대통령으로부터 면담을 거절당하는냉대를 받고 돌아간적이 있다。

지난주에도 이탈리아 정부는『아르헨티나 논민들에게는 깊은 동정을 갖고 있으나 집권자들에게는 전혀 동정이 가지않는다』고 말한바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EEC우방국들의 비난과 고립의 위험을 무릅쓰고 울며겨자먹기식의 선택을 하고 만것이다。

이탈리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큰 이유는 1백30만표의 투표권을 의식해서였다。

아르헨티나에는 1천2백만명의 이탈리아계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중 1백30만명이 이탈리아 시민권보유자。

이런 상황에 지금 이탈리아의회에 상정돼있는 이들 해외시민권보유자들에 대한 투표권부여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약한 聯政붕괴로 언제 또 치를지 모를 선거에서 큰 타격을 볼수 있다는 것을 현정부는 의식한 것이다。

또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는두번째로 큰 이탈리아의 무역상대국이다。

◇포클랜드분쟁에대한 공동대책을 마련하기위해서 모인 歐共市(EEC) 外相들。이탈리아는 지난24일 對아르헨경제제재 대열에서 이탈했다。【UPI】

이탈리아의 81년도 對아르헨수출은 영국에대한 수출고의 10분1인 4억5천만달러였으나 현재 의류에서 발전소 건설에 이르기까지 수10억달러의 크고작은상담이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이중에는 25억달러상당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하철공사,17억달러의 댐공사、이탈리아에서 가장큰 피아트 자동차회사의 사업등이 포함돼있다。

한편 제재중지결정에 앞서 사회당의 베티노·크락시당수는 이탈리아가 제재조치에 계속가담한다면 聯政을 탈퇴해 내각을 무너뜨리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했다。

결국 집권基民黨도 아르헨티나와의 계약을 위태롭게하는 제재조치를 중단키로 결정했고 이결정은 브뤼셀의 EEC 외상회의에 참석한 에밀리오·콜롬보외상과 로마의 여러黨간에 불꽃튀는 전화가 계속오고간끝에 최종 채택했다。

이탈리아는 무기판매만은 계속 금지하겠다고밝히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아르헨상품을 구입하거나 구입한 상품을 다른 EEC국가에 재수출함으로써 금수조치를 손상시키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스파돌리니이탈리아수상은 경제제재중지결정후 이 조치가 아르헨티나군사지도자들에 대한 해빙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아니라고 강조했다。

EEC의 외교관들은 콜롬보외상의 유럽정책이 큰 타격을입었다고 말하고 그가 정치위기를 우려한 동료들에게 굴복했다고 논평했다。【兪奭根기자】

海外토픽

로보트가 생선초밥 빚는다

1시간에 1,200개製造…사람 3배일해
日本에320개、"차가운손" 贊反兩論도

세계에서 제일 물가가비싼 東京에서 가장 비싼 음식은 생선 초밥이다。帝國호텔이나 오쿠라호텔에서 생선초밥을 먹으려면 초밥한개에 1천엔(약3천원) 이상을 줘야한다。

그래서 일반대중을 위한 박리다매식의 겐로쿠(元祿壽司) 초밥집이 번창하고있다。東京都내만도 70개의 점포를 가진 이 겐로쿠(元祿) 초밥집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벨트컨베이어에 생선초밥2개를 담은접시가 가지런히놓여져、손님이 마음대로 집어먹도록돼있는 곳이다。가격은 한접시 1백20엔。

10년넘은 숙련공이 수건을 질끈 머리에 동여매고 카운터앞에서 생선 초밥을 쥐어주던 壽司집의 풍모에 변화를 가져온것이다。

東京都의 부도심지인 이께부꾸로(池袋)의 겐로쿠 초밥집은 얼마전 1백60만엔을 들여 밥만 빚는 로보트를 구입、실용화했다。

스즈모(鈴茂) 기계공업이 개발한 이 초밥제조로보트는 로보트의 입에 밥을 넣으면 생선초밥 한개분량만큼 자동적으로 분할되어、로보트가 左右 또는 上下로 두번씩 주물러 한시간에 1천2백개의 속력으로 벨트컨베이어에 쏟아놓는다。

초밥전문가가 빨리 빚더라도 한사람이 한시간에 4백개가 고작이므로 로보트는 세사람몫의 일을 혼자서 해내는 셈이다。거기다가 일급이나 보너스를 줄 필요도 없어 경영자측은 대환영이다。

생선초밥의 완전자동화는 아직 이뤄지지않아 로보트는 밥만 빚을뿐 겨자를 무치고 생선을 얹는 작업은 역시 사람의 손을 빌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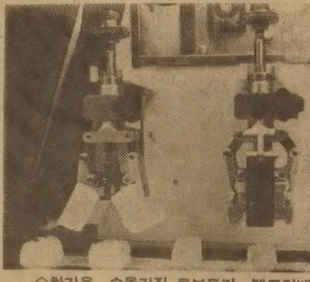
하지만 인건비를 3분의1로 줄이는 이 초밥 로보트는 최근 급격히 보급되어 일본 전국에 3백20개가 팔렸다。

초밥집에서는 로보트의 차가운손이 빚어주는 초밥에 고객이 반발할까 겁이나 초밥 로보트를 주방에 감춰두고 부려먹고 있다。

로보트가 빚은 초밥은 10년을 수련한 전문 초밥장사가 빚은것과 그맛이조금도 손색이 없지만, 로보트가 손님앞에서 초밥을 빚는것에는 거부반응이 뒤따라 당분간은 로보트가 주방에서 나오지못할것 같다。

오쿠라 호텔 초밥집의 이마다(今田洋輔) 지배인은『사람이 먹는 음식을 로보트에게 만들도록 하는 것은 찬성하기에어렵다。피가흐르는 따뜻한 손이만든 음식과 차가운 손인기계가 만든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로보트의 발달과 보급은 각분야에 큰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東京=宋孝彬특파원】


◇차가운 손을가진 로보트가 벨트컨베이어에 생선초밥을 빚어내고있다

蘇、「SS20」306基 實戰배치

4월末현재 核彈 3개씩 장전…34個基地에
거의 西歐·日·中共등「全方位지역」을 겨냥

【본26日AP=聯合】소련이 그동안 생산, 실전배치한 SS20중거리미사일은 4월말현재 총3백6기로서 그가운데 상당수가 서구와 중공·일본등 아시아지역을 다같이 사정거리안에 들수있는 이른바 소련의 전방위지역내에 배치돼있다고 정통한 서독소식통들이 26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소련이 3개핵탄두를 장착하고있는 이 SS20미사일을 각기9개발사대를 가진 34개미사일기지에 분산·배치하고있으며 그가운데 2백16기가 유럽을 겨냥하고있다고 밝히고 이는 소련의 SS20미사일핵탄두 9백18개중 6백48개가 유럽을 겨냥하고 있는셈이라고 말했다。

지난1월만해도 소련이 실전배치한 SS20미사일은 모두 2백80基였다고 이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카니아 政界복귀
국가評議員임명

【바르샤바26日UPI=聯合】폴란드의회는 26일작년10월 공직에서 축출된 前당제1서기 스타니스와프·카니아를 최고통치기구인 국가평의회의원으로 임명, 政界일선에 복직시키는 중대조치를 했다。

의회는 이와함께 계엄통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톨릭계정치인 리자르트·레이프와 강경파 블라디스와프·크루체크를 국가평의회에서 탈락시키고 종교상에르지·쿠베르스키를 폴란드의 바티칸공식대표로 임명했다。

특수권한을 가진 일종의집단지도체제인 국가평의회에서 레이프를 축출한 의회의 조처는 평의회가 계엄선포여부를 결정할때 그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것과 관련, 수개월전부터 예상돼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가평의회의원 交替중 가장 눈에띄는것은 카니아의 재등장으로서 그의 임명과정에서는 약17명의 의원이 반대표를던지고42명의 의원이 기권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카니아는 1980년9월 에드바르트·기에레크의 뒤를 이어 당제1서기가 됐으나 自由勞組에 대한 宥和정책때문에 13개월만인 81년10월 해임됐었다。

◇버리고 撤收한 이라크軍의 철모　지난24일 호람샤르를 탈환한 이란軍병사들이 이라크軍人들이 버리고간 무수한 철모사이를 지나가고있다。【호람샤르26日ㅣRNA항공편=聯合】

美、對이 武器판매

F16機 75臺 단일去來론 最大

【워싱턴26日UPI=聯合】레이건 미행정부는 지난4년동안 對이스라엘무기판매가운데 단일거래로서는 최대규모인 25억달러어치의 미제F16기 75대를 이스라엘에 판매키로 결정、이를 최근 의회에 은밀히 통고했다고 26일 국방성관리들이 밝혔다。

관리들은 이와같은 미국의 對이스라엘 대규모 군사판매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강제병합한후 발생한 양국간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78년 군사장비구매 협정에따라 미국으로부터 F16기75대를 이미 도입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10년동안 83억달러어치의 각종 군사장비를 이스라엘에 판매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현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금년 14억달러、내년에 17억달러어치의 군사장비를 각각 이스라엘에 판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日貿易자유화
곧 2단계조치

【東京26日UPI·AP=聯合】스즈끼·젠꼬(鈴木善幸) 일본수상은 외국상품에대한 수입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미국과 유럽등 주요교역상대국들과의 무역마찰을 완화하기위한 대폭적인 무역자유화조치를 곧 발표할것이라고 26일 정부소식통들이 밝혔다。

28일 특별각의의 승인을거쳐 발표될 8개항의 2단계 무역자유화조치는 일본이 1천6백여개품목에 대해 평균 2%의 관세를 인하한 1단계무역자유화조치이후 2개월만에 나온것이다。

소식통들은 스즈끼 수상이 이번조치로 일본의 무역정책에 대한 외국의 비난을 종식시키고 국내산업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蘇、새KGB총책
페도르추크 任命

【모스크바26日AP·AFP=聯合】소련비밀경찰(KGB)총책임자 유리·안드로포프의 후임에 비탈리·페도르추크 우크라이나 공산당 정치국원이 임명됐다고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26일보도했다。

타스통신은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의가 안드로포프의 타보직임명과 관련、그를 KGB의 장직에서 해임했다고 보도했는데 안드로포프는 24일 소련공산당중앙위서기에 임명된바있다。

포클랜드通信

美政府 딜레머에

○…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정부는 포클랜드분쟁에서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거둬 이군도에 대한 영국의 식민통치를 완전 회복할 결의를 다짐으로써 레이건 미행정부를 딜레머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26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레이건행정부 관리들이 아르헨티나에 굴욕적 패배를 안겨줌으로써앞으로 오랫동안 미국·영국및 유럽의 對중남미국관계가 악화될것과 아르헨티나의 공격방지를위해 영국이 대규모군대를 남대서양에 주둔시킴으로써 영국의 對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공약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있다고지적했다。

西歐·南美관계惡化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분쟁은 미국과남미국가들간의관계를 악화시킬뿐아니라 남미국가와 서구간의 관계에도 쐐기를 박고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있다。

이들 관측통들은 남미국가들이 포클랜드사태를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영토분쟁으로 보기보다는 제3세계와서구간의 투쟁으로 간주하는경향이늘어나고있다고말했다。

아르헨機 59臺격추

○…영국은포클랜드전쟁발발이래아르헨티나전투기50대와 헬리콥터9대를 격추시켰고 조종사46명을 포함、모두 3백21명의 인명을 빼앗았다고 26일 밝혔다。

영국방성은영국은해리어기5대、헬리콥터8대、구축함셰필드호 프리기트함 아던트호와 앤티로프호를 상실하고 수송선 아틀랜틱호가 크게 파괴됐으며 특공대원74명등 99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海外토픽

稅金에 못살겠다

★배우샤리프 佛떠난다 푸념

「의사지바고」와「아라비아의 로렌스」등으로 유명한 이집트출신 영화배우 오마·샤리프(50)는 프랑스세무사찰원들이 자꾸 자신을 못살게 괴롭힌다면『프랑스를 떠날수밖에 없다』고 짜증。

지난 15년간 파리에서 주로 생활해온 그에 따르면 세무사찰원들이 그의 집을 덮쳐 연애편지를 포함한 모든 개인서류를 뒤지는가하면 그를 3시간동안이나 혹독하게 신문했다는것。

프랑스세리들은 이밖에 그의 바서 말조련사및 재홍사까지 조사했다는데 이러한것은 그가 프랑스영주권자임을 입증하기 위한것이지만 샤리프자신은 프랑스시민으로서의 이렇다할 혜택을 입은것이 없다고 주장。【파리=AFP】

메아리

그림의 뽈

이솝寓話엔 사슴이 뿔때문에 목숨을 잃는 한탄스런 이야기가 나온다。물속의 제그림자를 보고 사슴은 뿔의 아름다움에 도취한다。그런데 앙상한 다리는 마음에 안들었다。

이때 사자가 갑자기 달려 들었다。가느다란 다리힘으로 사슴은 必死의 도주를 하다가 그만 뿔이 나무에 걸려 사자밥이 되고 말았다。사슴을 죽인 뿔이 사람들의 눈엔 신비의 靈藥으로 비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삼과 함께 녹용은 強壯·補身의 仙藥으로 맹신한다。東醫寶鑑에 나오는 녹용의 효능은 오히려「強精」의 뜻이 강조 되고 있다。「허약하고 마르고 사지·허리등이 쑤시는것을 고치며 남성의 정력이 약하여 다리·무릎에 힘이 없을때 좋다」는것이다。洋醫界의 실험결과도 強壯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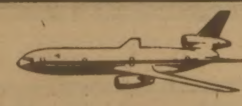
사슴은 뿔만이 아니고 몸 전체가 돈덩어리다。고기 가죽 피 골 쓸개 힘줄등 모두가 요긴하게 쓰인다。사향은 죽어가는 생명까지 살리는 秘藥처럼 여긴다。

사슴사육이 번창한 나라는 뉴질랜드—。소다음으로 많이 기르며 고기는 유럽에 대량 판매하고 녹용수출은 세계제일이다。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입녹용이 국내수요의 90%를 차지했다。8백50만달러의 외화를 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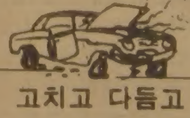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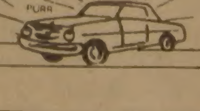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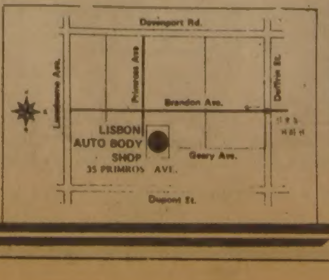
그래도 공급이 달린다。녹용하면 흔히 가짜·밀수의 汚名이 따라 붙는다。우리의 녹용 愛用이 유별난것임을 알수있겠다。지금 국내엔 1만1천여마리 사슴이 사육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수익성이 좋아 사육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 그 분양가는 엄청나게 뛰어 올랐다。지난3월 永川지방에선 북미산 엘커가 한마리 2천만원까지 呼價되었다。한쌍을 기르면 3백~4백만원을 한해에 벌어 들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슴을 기르기에 알맞다。世宗地理誌에 나오는 녹용 약재생산지는 전국에 고루 퍼져 있다。사육기술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육농장을 늘려가면 수입에 드는 엄청난 외화는 줄일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슴수입을 다시 허용한다는 방침이 검토되고 있다지만 녹용에 대한 지나친 補身기대는 가라앉혔으면 좋겠다。일반인에겐 값비싼녹용은 그림의 떡같이 그림의 뽈로만 보일 뿐이다。


IATA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6004
R) 293-9970

LISBON AUTO COLLISION INC.
⊙A급 BODY MAN
⊙A급 페인터.
⊙수리중 차대여
⊙사고후 보험처리—책임보증.
⊙TOWING 써비스
⊙철저한 신용

고치고 다듬고

때빼고 광내고
※완전 BODY WORK!
주소 : 35 PRIMROSE AVE. TOR.
전화 : (B)533-8507, 8508
(R)439 6548, 266-8925
이영두, 이건학 형제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금주의 새리스팅
1. (버라이어디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 (버라이어디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낫츠·숍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년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B), 286-1548(R) M3B 1Z3

生計와 召命사이 한국의 職業人들

한국일보 (특집판)

奇拔한 着想 별난직업도 많다

돈벌이는 가까운데 먼저 한사람이 임자

60~70年代에걸친 고도경제성장 추세에따라 우리나라의 직업도 사뭇 多樣·細分化되고있다。「직업은 직업을 낳는다」라는 말대로 숱한 직업들이 새끼를쳐 나날이 異色직업, 별난직업도 계속 늘어나고있다。바위에 붙은 이끼를 따모아 花園이나 農園에 팔아 학자금을 마련하는 아낙네들이 있는가하면 건망증이 심한 부인들이 열쇠를 안에 놓은채 잠가버린 문을 열어주는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도있다。바닷돌을 퍼다 파는 장사도 벌이가 되며 튼튼한 수캐 몇마리로 생계를 유지해나가는데 큰지장을 받지않는 돈벌이도있어 눈길을 끈다。문명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화에따라 새로운 직업이 탄생했으며 그에반해 수요감소로 한때는 盛業이었던 직업들이 사라지기도했다。특히 복잡한 사회구조와 인간욕구의 다양화는 많은 新種직업을 탄생시켜 생활을 윤택하게했다。

급변하는 産業구조…「新種」속출

택시「잔돈바꿔주기」에 수십만원 권리금까지

지난 연조 야간通禁해제와 더불어 운전代行業이생겼다。代行운전사들은 살롱 요정 나이트클럽등 고급유흥음식업소주변에 진을 치고있다。이들은 자가운전사들이 거나하게 취해 운전을 할수없을때에 운전을 대신해주어 무사히 귀가시켜주고 1만원을 받는다。손님에 따라서는1만5천원~2만원까지 준다고한다。공무원 회사원 중간관리자들중 손수운전을하는 오너드라이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보면 운전대행업은 앞으로 각광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이끼를 따모아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학비에 보태어 쓰는 아낙네들도 있다。驪州 廣州 碧蹄등 서울주변에 사는 이끼팔이 아낙네들은 花盆수요도 늘어나고 그에따라 화분장식용인이끼수요가있자 바위나 돌에 있는 이끼를 따모아 서울의 … 園에 팔아 가정용돈에 보태쓴다。이끼 한보자기에 1~2천원을받고 파는데 한보자기는 화분30개정도를 덮을수 있는 분량이다。

核가족화는 看病人의 수요를 낳고있다。맞벌이등 사회활동을 하는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간병인이 새로운 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다。집안에 급한환자가 생겼거나 돌발사고가 났을때, 장기持病으로 누워있는 노인이나 産後몸조리를 해야할 필요가있는 가정들은 간병인을 필요로한다。

현재 서울에는 30여명의 간병인들이 가정을 방문, 환자를 돌보고있으며 한국간병인협회에는 1백5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있다。전직간호원 간호경력자 일정기간동안의 양성코스를 밟아 자격을 딴 간병인들은 중환자를 하루12시간보살펴 주고 8천원~1만원을 받는다。경환자의 경우는 5천원~7천원을 받는다고한다。

온갖 향내의 기억과 식별은 말할것도없고 새로운 香을창조하는 調香師란 이색직업도있다。T화장품회사에 근무하는 Y씨는 누구나 調香師가 될수있는것은 아니며 전문지식을 필요로한다고 말한다。외국의 전문가들은 1천여種의 香을 기억하고 식별하는초능력의 소유자들이지만 Y씨의 경우는 5백여종의향을 식별해낼수 있다고 말한다。우리나라에는 화장품회사등에 5~6명의 조향사가 근무하고있는데 급여수준은 전문직인 때문에 높은 편이다。10년 정도는 꾸준히 일해야 베테랑의경지에 이를수 있다한다。

仁川港등을 드나드는外航船의 길잡이인 導船士들이 항구의교통순경역할을 하고있다。외항선박이안전하게 항구를 드나드는것을 돕자면 이들은 항만사정에 밝아야하고 수초 수… 심지어는 선박선등까지 잘알아야한다。仁川港과 釜山港에 각각19명과 15명, 群山 蔚山 墨湖 木浦 麗水 馬山 浦項등에 각1~4명의 도선사들이 일하고 있어 현재 국내에는 55명안팎의 도선사들이 있다。

10여층건물의 屋上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오금이 저리고 발바닥이 간질간질하며 현기증이인다。그러나 6부밧줄(직경2·5㎝)에 생명을 맡기고20~30층에 달하는 고층빌딩의 유리를 말끔히 닦아주는 강심자들이 생계의수단으로 이직업을 택하고 있다。월급제도 日當制도 아닌 時給制여서 작업위험에 비해 벌이가 시원찮다는 고층빌딩유리닦기들은 겨우 생활을 해나가는실정이다。三一路빌딩등 서울의 고층빌딩에는 5~6명에 달하는 고층빌딩 유리닦기들이 기용돼있으며 주문에의해 이빌딩저빌딩을돌며 일감을찾는 품팔이들도있다。

대도시에서 찾아볼수 있는 또하나의 이색직업은 잔돈바꾸어주기ㅡ。도심을지나다보면 시장아줌마들이 차는 돈주머니를 허리에차고 택시정류장에서 서성거리는 잔돈바꿔주는 부인들을 볼수있다。택시운전사가 1만원권을건네주면 잽싸게 달려가 1천원권과1백원짜리 동전으로 바꿔준다。이들은 수수료조로 2백원을 뗀다。목에따라 수입의 차이는 현격한데 통상 하루벌이는 2천원~3천원에 달한다는 것。노른자위라 불리는 자리는 수십만원의 권리금까지 붙어 거래되고있다 한다。이들 아줌마들은 은행을돌며 잔돈을 바꾼다。

지금은 철이지났지만 한겨울엔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에서 연탄불을 피워파는 불장사를 볼수있다。가게문을 연 상인들은 잔뜩 움츠린채 연탄집게를 들고 대형화덕에 달아있는 연탄불을 사고 2백50원~3백원을 주인에게 건네준다。하루벌이가 8천원안팎이라는 이들불장사들은 여름에는 얼음등 다른장사를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상점들이 밀집돼있는곳에 연탄불가게를 연다。

수캐 몇마리로 먹고사는데 별지장이 없는 犬公交尾業도 각광받는 新種직업중의 하나ㅡ。이들은 총각개를 장가보내주고 1만원~10만원을 받고있으며 애견일수록 그값이 비싸다는 것。치와와 스피츠 셰퍼드동은 한번 교미를 시켜주는데 1~2만원씩받는다。

아파트촌의 상가주변에는 뛰어난 손재주로 잠긴문을 열어주고 대포값정도를받는 재주꾼들이있고 산업발전에따른 공해로 대기오염연구원이새로운직업으로 각광을받고있기도하다。

이밖에도 별난 돈벌이가 많다。농원이나 화원의花盆대여업、水族館이나 熱帶魚기르는 사람들을 위한 실지렴이 장사、고급아파트 호텔등의 카피트를 씻어주는 카피트세탁업자、아기를 대신 봐주는 탁아모、좌판에 책을 싣고 다니면서 빌려주는 이동도서관、말발굽을 다듬어 주는 裝蹄師、사장실과 여비서賃貸業、디스코 탱고 삼바스텝을 밟으면서 관중들을즐겁게 해주는 라운드·걸、전화받아주기、피부관리사등 우리주변엔 별난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있다。

현대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있다。컴퓨터工學 생명工學등이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발전을 거듭해가고있다。이에따라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면서 한편으론 소멸하는 직업도 크게 늘어날것이다。【朴英鎭기자】

◇曲藝師를 연상케하는 고층빌딩 청소부들은 한줄기 밧줄에 생명을 걸었지만 벌이에 여념이없다。이들을 따르는 직업위험에비해 수입은 시원찮다고 털어 놓는다。

바위이끼 따 모아 花園納品
술꾼상대 自家用 대리운전 盛業
연탄불 피워파는 市場 불장사도
냄새로 化粧品감정…調香師

貴賤없는 自負心 日本의 家業정신

살길은 "自己분야의 제1人者"

4代째이은 學士 나룻배사공
大學나온아들 밥집 6代주인

【東京=宋孝彬특파원】東京남쪽 에도가와(江戸川)에 아직도 노를저어가며 사람을 건네주는 나룻배가 있다。광나루의 나룻배와 다름없다。3대째이어온 올해 67세인 기무라(木村)할아버지는 17세때부터 뱃사공이 된뒤 꼭 반백년이 흘렀다。東洋專修대학을 나온 아들(27세)이 아무 저항 없이 근대화에서 낙후된 이위대한(?)家業을 4대째 이어받아 할아버지는 은퇴했다。

駐日한국대사관가까이 이즈미(泉)라는 초밥집이 있다。3대를 내려온 이 초밥집주인은 작년 미국유학을마치고 돌아온 장녀(22세)를 자기집에서 일하고있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착실한 더벅머리총각과 짝을지어 요꼬하마(橫濱)에 分家시켰다。

東京의 부도심지인 시부야(澁谷)역앞에는 5대째 1백년가까운 장어덮밥집이 유명하다。이집 주인 할아버지가 고혈압으로 갑자기 사망하자 명문 慶應대학 경제학부를 나와 대재벌기업의 부장이었던 장남이 사표를 내고 가업을 이었다。

일본에서는 중앙관서의 局課長을 지낸관리가 정년퇴직후 수위나 고속도로의 매표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흔하며 가업을 이어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카운터에서자랑스럽게 손님을 맞는 일이 흔하다。

경제大國인 일본에서는 직업의 貴賤이 없다。어느 民放TV가 금년정초 東京시내 공립국민학교를 찾아 졸업반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비춰줬다。『내각총리대신이나 국회의원이 되고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는 아나운서의 요청에 1반40명의 학생중 단 한사람도 손을들지 않았다。각양각색이지만 모두가 전문기술자나 과학자 또는 프로야구선수가 되겠다고 응답했다。또 어느TV의 직업의식조사결과『지금보다 월급이 나은 직장으로 轉職하겠느냐』는 물음에 54·3%가『아니오』라고 대답했고『예』라는 대답은 36%。일본국민들이 자기직장을 天職처럼 생각하고 근면성실히 일하는 자세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3代째 내려오는 오뎀집 오다끄。東京의 明洞인 긴자(銀座)의 名物이다。

일본의 직장에대한 충성심과 天職의식은 종교적인 의식에서라기 보다는 7백년간 계속됐던 武士정신과 봉건제도에따른 體得主義에 기인한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이 다같은 유교문화권으로 士農工商의 身分制度가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직업의 귀천이 없게된 것은 힘의사회인 무사제도가 확립됐기 때문인것 같다。

文班의 사회였던 우리나라는 땀흘려 일하기보다는 派爭과 朋黨으로 空理公論에 치우쳤고、무사들이 지배했던 일본은 말보다는 칼이 앞서 실질적인 힘을 기른는것만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정립됐다고 볼수있다。

손끝의 기술이나 칼을 휘두를 묘기가 없는 자는 목숨을 부지할수가 없었다。신분을 뛰어넘을수 없는 봉건제도하에서 생존할수있는 유일한수단은 자기분야에서 제1인자가 되는 것이었다。

일본에선 얼굴이 예쁜 미인은 있으나 손이 예쁜여자는 찾기 힘들다。일류 탤런트나 가수도 화면에 비춰진 손을 보면 손마디가 거칠고 굵다。

가정부가 없어 스스로 빨래를하고 밥을 짓는등 가사를 돌보기 때문이다。무엇을 하던 열심히만하면 먹고 살수있는 안정된 사회에서는자기직업을 천직삼아 한눈팔지 않고 최선을 다할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일본의 强點이다。

傳統·가족적 분위기 美國기업의 原動力

준법정신이 바로勞使團合

스타인웨이社 百29년歷史

"최고의 물건 최고의 값을"

【뉴욕=金泰雄특파원】포드·케티·록펠러는 미국산업을 대표하는 家門이다。建國2백년과함께 미국자본주의사회건설에 기둥이 된 것도 이 이름들이다。

지금도 집안이름은 물론創業主의 기업철학과 정신은상징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전통으로 命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국제화와확대발전으로인해 一家의 사업으로 시작했던 미국굴지의산업들은 기업공개와 함께 속속 그이름과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속에서도 한집안이 이룩한산업들은 그전통과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확고한 기반위에 발전일로에 있는것을볼수있다。

오늘날 미국사회가 발전하고 부유해지며 살기좋은나라가된것은 준법정신에서 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들이많다。미국의준법정신이기업윤리를 가져왔고 勞使간에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스타인 웨이 하면 세계적인 피아노로 손꼽힌다。스타인웨이 피아노 創業主는 헨리·스타인웨이(1797~1871)。나이 50이넘은 스타인웨이는 1850년에 뉴욕으로 移民온 중부독일출신의 장롱만드는 목수출신피아노 제작가였다。당시 살기 어려웠던 독일을 떠난 헨리는 뉴욕에 도착하자 마자 피아노 공장을 세웠으며 1855년엔 그가 손수만든 피아노로 미국산업展 金賞을차지했다。

「스타인웨이 앤드 선코퍼레이션」은 현재 4代인 존·H·스타인웨이가스타인웨이의 회장으로 위업을 계승하고 있다。

제5代라고 할수있는 헨리엄·T·스타인웨이는 현재 연구담당이사로 근무하고있다。

헨리의 유시는『최고의 피아노를 만들고 품질을 유지하고 최고가격으로 팔라』는 것이었다。

"1백29년이란 역사를 가진 이 회사는 1972년에 CBS와 합병、자매관계를 갖고 있으며 현재는 CBS가 임명한 42세의 예일大學출신 경영전문가 피터。페레즈가 사장으로서 실질적인 회사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전직원의 반이상이 5년이상근무자이며 20년이상 근속자가 수두룩하고 40년、50년 근속자도 있다고 그는 회사원 인적사항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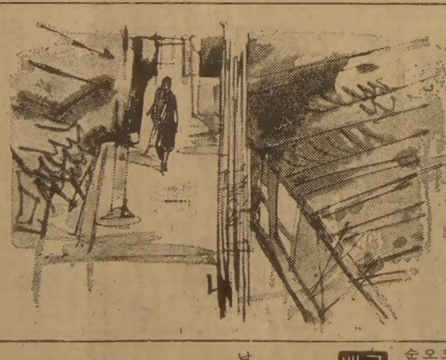
3백80여를 헤아리는 스타인웨이피아노를 사용하는 소위「스타인웨이 예술가들」중에는 한국출신인 韓東一교수가 최근에 유명해진 안드레·왓츠와 함께 유일하게포함되어있다。스타인웨이회사는 사원주택과 사원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을 갖고있는등후생시설이 손꼽을 만하다。

同苦同樂하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바로 오늘과같은 세계굴지의피아노회사명성을유지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21>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①



오목은 몸을 웅크리고 불없는 뒷골목만 골라서 걸었다。불빛이 싫었다。골목이 끝나고 환한 큰 길이 나오면 깜짝 놀라 오던 길을 되짚어 걷기도 했다。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숨겨줄 것은 어둠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언제 어떻게 그 양식집을 나왔는지 잘 생각나지 않았다。슬픔이 복받치는 깐으론 눈물도 나지않았다。

정결한 식탁위로 나지막하게 드리웠던 크리스틀등이 꿈의 한장면 처럼 황홀하게 떠올랐다。인재와 알고부터 오목이는 정말 꿈처럼 행복했다。인재와의 일이 꿈이라면 크리스틀등은 꿈속의 꿈이었던가?

언제 깨어날지 몰라 조마조마했었다。스스로 그꿈을께뜨리고 나와야한다고 몸부림치기도 했었다。오늘이야말로、이번에야말로 인재를 만나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별렀었다。그러다가도 막상 인재를 만나면 인재를 속이고 자신을 속임으로써 더 깊은 꿈에 빠져들고 말았다。언제고 한번은 벌 받을 줄 알았다。그렇지만 이다지도 비참한 벌을 받을 줄을 누가 알았을까。

하필이면 수지에 의해 모든것이 탄로가 나다니。수지가 한발만 늦게 왔어도 그 얘기를 내 입으로 할 수 있었으련만。

오목이는 그 사실이 탄로가 난것보다 하필 수지에의해 탄로가 난게 원통하고 굴욕스러웠다。그녀가 인재를 만나 유창하게 거짓말을 시킬때마다 정말 하고싶은 참말은 바로 혀 밑에서 뱅뱅돌고있었기 때문에 탄로가 난 시기가 어느때든지간에 자기입으로 그 말을하기 직전에 탄로가 난 것처럼 억울하건 마찬가지였을테지만 그게하필 수지였다는건 희귀한 악운이었다。

오목이는 원래부터 수지가 싫었다。「오누이의 집」에서 잔뼈가 굵는동안 무수한 자선가를 만났지만 거의 다 얼굴도 생각이 안났다。수지만이 바로 엊그제 헤어진 것처럼 뚜렷하게 남아있음은 적개심때문이었다。고아원에 와서 자선이란 착한 일을 하고싶어하는 사람은 대개 천당을위해 적선을 꿈꿀만큼 나이 먹은 사람 아니면 착한 일 그자체가 때묻지않은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었다。수지처럼 소녀시절부터 대학생이 될때까지 한창 꽃다운 나이를 계속해서 고아원 단골이 돼주는 일은 드물었다。오목이 역시 수지처럼꽃답고 자존심이 일생중 가장 예민한 나이였다。혹、누군부모 잘 만나서…하는 터무니없는 앙심이 없을수없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가참을수 없었던건 수지의 몸에 밴 위선의 우아함이었다。

눈치껏 자선에 기대야하는 고아주제에 남이 베푸는 자선에서 위선을 분리해내고자 한다는건 비럼뱅이가 더운밥 찬밥 가리는 것만큼이나 가당치않다는걸 알면서도 수지의 위선은 하도 감쪽같이 우아해서 덥썩들어 그속셈을 까뒤집어보고싶은 무분별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었다。

아아、수지가 감쪽같이 감추고있던게 그렇게 잔혹한악의(惡意)일줄이야。오목이의 귀엔 수지가 경박하고도 매력적인 달변으로 인재에게 정체를 낱낱이 고해바치는소리가 아직도 쟁쟁했다。

수지를 만나자 갑자기생기있게 빛나던 인재의 표정도 잊을수 없었다。둘의 사이도 보통사이가 아닌것 같았다。자신의 정체가 무참히폭로되는 자리에 차마 있을수가 없어서 발딱일어나 나오면서도 인재가 붙들거나 따라 나오리란 한가닥 기대까지없을순 없었다。

5백원짜리 銅錢 6월12일 나온다

앞면에鶴 뒷면에숫자새겨

5백원짜리 동전이 새로 나온다。한국은행은 5백원짜리 동전을 새로발행、韓銀창립32주년기념일인 오는 6월12일부터 현행 5백원짜리지폐와 함께 유통시키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새로나오는 5백원짜리 동전은 직경 26·5미리로 1백원짜리 동전보다 약간크며 앞면에는 鶴、뒷면에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소재는 1백원짜리와같은 白銅貨(구리75%、니켈25%)이며 무게는 7·7g。

5백원짜리 동전발행으로 동전은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1백원짜리 5백원짜리등 6종류가 통용되게 됐고 지폐는 종전처럼 5백원짜리 1천원짜리 5천원짜리 1만원짜리등 4종류가 사용되게됐다。한국은행은 5백원짜리지폐는 앞으로 점차 동전으로 대체해나갈 방침이다。

◇전 면　◇뒷 면

연예話題

李瀅河와 丁允姬 人氣度 가장높아

영화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녀배우는 李瀅河와 丁允姬로 나타났다。現進영화사가 서울의 학생、사무원、서비스업종사자、기타직업인 2천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의하면 좋아하는 남자배우는 李瀅河(19%) 南宮遠(14%) 林東鎭(14%) 申一龍(11%)、崔佛岩(10%)、여자배우는 丁允姬(37%) 兪知仁(26%) 張美姬(14%) 元美京(6%) 鄭愛利(3%)의순으로 나타났다。그외 가장좋았던 한국영화는「엘무새 몸으로 울었다」(16%)、TV프로는「장희빈」(18%)이라고 대답했다。

◇李瀅河

◇丁允姬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861

4千8百萬弗요구

○…「슈퍼맨」의수익금배당을 놓고 3년동안 송사를 벌였던 말론·브랜도가 이번에는「현대묵시록」의 수익금배당에 불만을 품고 또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

브랜도는「현대묵시록」의 감독 프랜시스·코폴라와 조이트로프스튜디오및 배급사 UA社를 상대로 4천8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이유는 약속대로 수익금배당을지키지않았다는것。

브랜도는 지난 76년 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출연료를 자신의 받던 평균치의 반밖에 안되는 1백만달러를 받는대신 8백80만달러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11·3%의배당을 받기로 했다는것이다。

브랜도는 이영화가 지금까지 8천만달러이상을 벌어들였으나 자신은 2백70만달러밖에받지못했다고주장했다。

축

일간지발행　1주년기념

북미의 25시를 지키는 파수대 토론토· 한국일보

민중의 목탁으로써 교민을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타운 번영회 회장 장순채 및 회원일동

大都市 어린이들에
알레르기性질환 猛威
기관지천식 심하고 위궤양까지
住居·食生活변화에 公害등 원인
70년대이후 나타난「文明病」…對策시급

요즈음 어린이들에게 기관지천식등 알레르기性 질환이 크게번지고있다.

이같은 질환은 아파트등주거환경과 식생활개선, 주택가로 확산되고있는 공해등이 원인이돼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있어 「문명병」이 어린이들의 세계에까지 파고들어 왔음을 의미한다.

5살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많이 걸리는 이질환은 기관지 천식외에도 소아십이지장궤양, 위궤양등이 있어 부모의 관심과 적절한 의료대책이 절실하다.

어린이기관지천식의 경우 10년전까지만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수없었고 70년대초부터 발생하기시작,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대한소아과학회가 지난80년전국24개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의하면76년2백6명에서 78년에는 3백6명으로 2년사이에 무려 50%가 늘어났다.

또 慶北大의대 具滋薰교수가 大邱시내종합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로는 전체 소아과환자중 15～25%가 알레르기성 기관지천식환자였다.

최근 서울시내종합병원 소아과에는 매일 6～7명의기관지천식환자가 찾아오고 있으며 의원급진료기관까지 합치면 전체소아과 환자의10～15%가 알레르기성 지관지천식환자라는 추정이다.

기관지천식은 기관지가 수축돼 기도가 좁아지면서주기적으로 발작적인 호흡곤란을 느끼는 질환, 천식에 걸리면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숨이 어려워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어린이는 안색이 나빠지고 땀을 흘리며 괴로와한다.

호흡곤란의 발작은 심한경우 24시간에서 3일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감기를 앓거나 모세기관지염을 앓은후 천식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알레르기가 원인이돼 나타나는데 열이 없이 기침을 하며 호흡곤란을 일으키는것이 감기와 다르다.

천식에 걸리는 어린이는80%가 만5세이전이고 특히1살～3살사이에 발병하는경우가 많고 남자어린이가 여자어린이보다 3배가량많다.

알레르기性기관지천식을일으키는 원인은 대개 대기오염과 집먼지·음식물등에 알레르기반응을 일으켜 나타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립의료원소아과장孫慶春박사에 의하면 소아기관지천식환자의 증가는 주거양식의 서구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것.

온돌방에서는 물걸레질을 하기때문에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집먼지와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종류등이 쉽게 제거되었으나 카페트와 침대, 기타 가구가 많아지면서 집먼지가 늘어나고 있다는것이다.

이밖에 음식물이나 부모의 과잉보호등 정신적인 요인도 큰원인으로 알려져있다. 모유대신 우유나 분유를 먹으면 쉽게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데 일단 우유 알레르기에 걸리면 다른 음식물에 대해서도 쉽게 알레르기성반응을 일으킨다는 것.

어린이들에게 흔히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 식품은 우유·달걀 (대개 흰자위)·밀가루·초콜릿·치즈·콩·토마토·생선류·닭고기·버섯·조미료등이며 각종 식품첨가제도 주요한 유인으로 꼽힌다.

음식물에의한 알레르기현상은 대개 소화기와 피부,기관지천식등에서 나타나지만 혈뇨 방광염 결막염 수면장애등 신체각부위에서도 증상이 나타난다는것.

延世大의대 李琦寧교수는 과잉보호로 아파트등 집안에서만 지내는 어린이의경우하이든 코리손·에피네프린등 호르몬 분비가 결핍돼 이같은 질환에 약하다고 지적하고있다. 【姜秉泰기자】

◇알레르기性천식 警報, 전체어린이 환자의 15～25%가량이 알레르기성기관지천식을 앓는 어린이가 급증, 있다.

國校生 9명에 소매치기시켜
10대3명 釜山서 꾀어 서울 데려와

서울永登浦경찰서는 27일 부산에서 국민학교학생을 꾀어 서울로데리고와 소매치기를 시켜온 朴모군(15·부산影島區東三洞)과 金모양(17·)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및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金모군(18·주거부정)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꾐에 빠져 소매치기를해온 申모군(11·D국교5년) 등 9명을 귀가, 조치했다.

朴군등은 지난20일 동네어린이 9명에게『서울에 가면 구경할것이많다』고 꾀어 밤열차로 서울에올라온뒤 23일하오7시께 서울 永登浦시장지하상가에서 30대주부의 핸드백에서 현금 1만5천원을 소매치기시키는등 지금까지 永登浦시장과 龍山시장등지에서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10만원을 소매치기시켜온 혐의이다.

이들은 汝矣島목방등지에서 잠을자고 훔친돈으로 극장구경등 유흥비로써 왔는데 26일하오 부산에내려갈 차비를 마련하기위해 永登浦시장근처에서 다른 범행대상을물색하다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붙잡혔다.

잇단 大型사고낸 시내버스代表
整備책임물어 拘束

【釜山】부산西部경찰서는26일 연달아 대형교통사고를낸 부산태화여객 대표 문화윤씨(47)정비주임 김갑진씨(35) 정비공 이한식씨 (22) 등 3명을 도로운송차량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화여객은 지난19일 상오7시께 부산北區鳴旨洞에서 운전부주의로 1백여명의 사상자를낸후 지난24일밤 10시40분께도 부산西區東大新洞 화랑국민교앞길에서 정비불량인 부산5자1430호 이회사소속 시내버스(운전사 김치용·35)가 화랑국민학교담을 들이받아 타고있던 승객1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켰었다.

『예장』 明목사등 說敎에 불만
佛教徒들 聲討벌여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와 학생승려 2백여명,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대학생1백여명등 3백여명은 27일하오3시부터 지난25일 原州시 대한예수교장로회 南山교회부흥회장에서 있었던 기독교신도와 불교청년신도들의 충돌사건과 관련, 예수교장로회소속 明奏弘목사(46)등 일부 개종교회목사들에대한 성토대회를 가진후 일부승려는 이날하오5시께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성토대회에서 승려들과 대학생들은『明목사등 일부개종교회 목사들은 허위날조된 승려경력을 내세워 간증이란 명목으로 불교를 비난하는 설교를 일삼고있다』고 주장,『개종교회 목사들은 이같은 파렴치한 설교행각을 즉각중지할 것은 물론『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이번 原州사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지고 국민과 불교도들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승려들과 대학생들은 또 原州사태처리과정에서 편향적이고 미온적인자세로 사태를 미연에 수습하지못한관계기관의 책임있는태도를 촉구하는 내용의 4개항으로된 결의문도 채택했다.

성토대회를 마친 일부승려들과 대학생들은 하오5시께 조계사밖으로나와 시위를 벌이려다 경찰과 충돌했는데 이들중 30여명은 세종로,동아일보사앞까지 나가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경찰과의 충돌로 4、5명의 승려와 대학생들이 부상했는데 경찰은 동국대불교대1년 이동배군 (20) 등 70여명을 연행했다.

在美교포 女人납치 욕뵈고 돈까지뺏어

【光州】광주경찰서는 27일 친정에온 20대 재미교포여인을 강제로납치,호텔에 감금시킨후 폭행을하고 미화1백달러등을 빼앗은 尹秉哲(30·경기安養市虎溪洞)과 崔弘奎씨(29·주거부정)등 2명을 강도및강간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尹씨등은지난25일밤 8시30분께 光州市東區錦南路5가 한일은행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있던 재미교포 明모씨 (여·29) 에게『차한잔하자』며 접근,거절당하자 지나던 택시에강제로 태워 光州市東區雲林洞 G호텔로 납치한뒤 번갈아폭행했다는것.

釜山원진산업에 불 신발창등 億臺피해

【釜山】27일 상오 9시50분 부산北區掛法洞520의1원진산업 (대표 서진·47) 작업장에서 불이나 목조90평짜리 공장건물과 신발밑창9천족, 기계, 화공약품등을 태워 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은 공장과 10m떨어진 근화금속 (대표 서화열·45) 과 국제상사종업원 소비조합건물로 옮겨져 근화금속의 기계와 소비조합건물60여평내의 슬라브진품에 쌓아두었던 각종소비재상품도 모두 태운뒤 10시35분께 진화됐다.

불이나자 종업원들은 재빨리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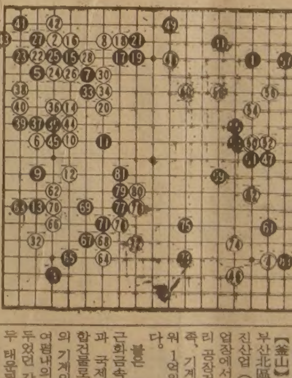
趙治勳 本因坊、實利앞서
下邊만 수습하면 이길듯

【東京27日=宋孝彬특파원】趙治勳名人·本因坊十段(25)과 고바야시·고이찌 (小林光一·29) 9단은 27일 속개된 제37기 本因坊戰 (每日新聞주최) 도전 7번승부 제1국의 둘째날 대국에서 라이벌답게 시종 치열한 접근전을 펼치고 있다.

黑을 쥔 趙名人은 일단 현금(實利)을 벌어놓고 상대편의 세력을 깨뜨리는 趙治勳流를 이번 대국에서도 유감없이 발휘, 83수까지 먼저 둔 이점을 잘 살려나가고 있다.

고바야시는 집부족을 느낀듯, 白82로 黑陣속에 특공대를 투입, 두터운 세력을 발판으로 黑의 약한 말들을 공격하고 있다.

하변의 공방전에서 趙名人이 약한 말들을 별탈없이 수습할 경우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제37기 本因坊戰 도전7번승부 제1국 (1～83)
黑 本因坊 趙治勳 9단
白 도전자 小林光一 9단
〈黑5집반공제·제한시간 각9시간〉 ※29—22의곳이음

"어음사기主犯은 李哲熙"
檢察발표
"前職이용…張여인도 利用당해"

李哲熙·張玲子부부의 어음사기사건은 張여인에의해 주도된것이아니라 李씨가 전직을 이용, 치밀하고 원대한계획에의해 꾸며진 것이며, 李씨는 이를위해 자금능력이있고 배후가 든든한 張여인을 이용했음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張玲子여인은 전직중앙정보부차장이었던 남편 李哲熙씨에의해 치밀하게 조종됐다. 사진은 구속된뒤 검찰에 출두하는 李哲熙씨.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10·26이후 정치규제자로 묶이게 되자 자신의 숙원사업이던韓·中東합작은행설립과 해외농장건립자금을 마련하기위해 기업체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는것이다.

李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에근무하던 부하직원들을 大和산업직원으로 끌어들여 각기업에대한 치밀한 기업경영분석을 통해 기업체의 약점을 캐며 이정보를 증권투자에도 이용하는한편 張여인의배후관계와 재산을 사전에탐지, 끈질기게 따라다닌 끝에결혼했다는것이다.

李씨는 지난해12월 全南大興寺에서 결혼식을 올린후에도 張여인의 배후관계를 과시하기위해 지난2월 실력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사파리클럽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張여인은 李의 각본대로기업체 대표와 은행장등에게접근하면서 권력층의 비호를받는것처럼 위장했으며 李씨역시부하인 전직 중앙정보부요원들을 거느리고나와『특수사업을 추진중이다』라는등 실력을 과시하는 수법을썼다는것.

검찰은 李씨가 중앙정보부에서 줄곧 해외정보분야를맡아 해외관계에 밝은점을 중시, 지금까지 밝혀진 외에도 해외도피자금이 또 있을것으로 보고 계속조사중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李씨가 부하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보회사를 경영하기위해 大和산업의 방계회사인「大和정보산업」이란 회사도 설립, 간부진 임명까지 끝냈음을 밝혀내고 權영백씨등 大和에 관계했던 전직 중앙정보부 직원 4·5명을연행, 조사중이다.

보관시멘트 6億상당
빼내판 通運직원拘束

서울시경은 27일 보관의뢰받은 시멘트 5억8천만원어치를 빼내판 대한통운始興출장소 출하담당과장 朴鍾植씨(26·서울九老區禿山4洞94―1)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출장소장 許鍾大씨 (45)、참고책임자 許東淳씨 (47) 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등은지난해 1월부터 금년4월까지 현대시멘트와 서한실업에서 보관을 의뢰한 시멘트 1백여만부대중 30만1천60부대 (싯가5억8천만원상당) 를 입고회사의 출하전표, 출고지시서등을 엉터리로 만들어 빼내 서울시내와 경기도일원의 건축자재상에 팔아 그대금을 가로챘다는것.

「栗山」소재로한 책 발매금지처분 申請
辛善浩씨

전 栗山그룹회장 辛善浩씨(35)가 27일 최근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신화의 사나이 辛善浩이야기―서울은 지금 몇시인가」(저자朱致鎬)라는 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이서적 출판사인 麒麟苑대표 徐錫源씨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서적인쇄및 발매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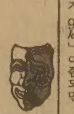
白內障 수술받은 患者절명
"치료잘못"…家族진정따라 搜査나서

서울 中部경찰서는 27일서울中區筆洞 S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받은 李義永씨(41·회사원·서울江東區可樂洞시영아파트30동402호)가 병원측의 치료잘못으로 11일만에 숨졌다는 가족들의 진정에따라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

가족들에 의하면 李씨는지난11일 S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기위해 입원, 정밀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판정을받고 12일 수술을 받았는데 온몸이붓고 소변을 못보는등 신장에 이상을 일으켰다가 23일 하오6시께 숨졌다는것.

李씨의동생 義中씨(32)는 『형이 수술후 마취때문에이상이 생겼는데도 병원측은위장이 나쁘다고 오진, 위장치료만해왔을뿐 신장치료를 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60代 肉體美
「미스터 서울」 장려상받은 李龍賢씨
"늙었다고 포기하면 더 늙어"



우람한 가슴, 팽팽한 피부, 목부위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근육은 리드미컬하게 꿈틀댄다. 남성미 만점의 육체미 소유자는「뜻밖에도」60대 노인이었다.

제2회「미스터 서울」선발대회(서울시육상연맹 주최)서 연2회째 특별장려상을받은 李龍賢씨(63·사진·서울西大門區 忠正路3가45의1)。몸은 그의 나이를 20세나 평가절하시킨다.

수치로 나타나는 그의 몸「신장1백75、가슴둘레 1백25、팔둘레48㎝、몸무게 90㎏」이쯤되면 손자를 본 할아버지는 아니다.

그의 초인적 젊음은 아무나 할수 있는 평범한 운동에서 비롯된다. 매일 실내체육관에 나가 1시간남짓 역도 아령등을 만지는게 고작이다.

그러나 남다른 점은 있다. 이 평범한 운동을 그는 젊은시절부터 수십년을 쉬지않고 계속해 온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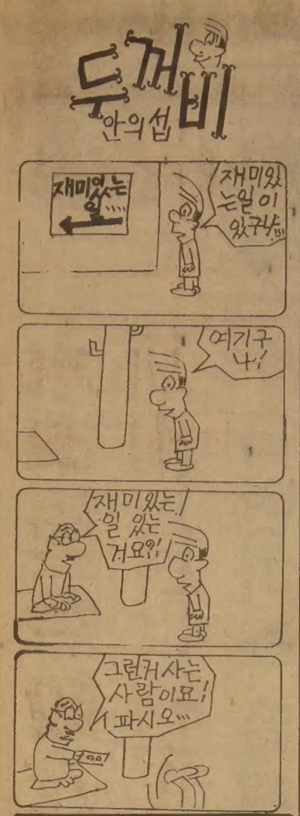
3대독자였던 그가 시멘트를부어 만든 2개의 덩어리로「역도」를 시작한것은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였다. 집이 가난해 진학을 못하고 철물공장에 다니면서 운동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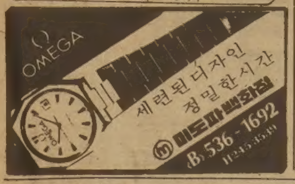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대단했던 그는 몸으로라도 이기기 위해 힘을 기르는 역도를 택했다. 말하자면 가난과 적개심이 운동을 하게 한셈이었다.

지금까지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패는 1백여개로 방안에가득하다. 부인 金明淑씨 (56)도 남편을따라 매일 줄넘기를해 나이보다 훨씬 젊어보인다.

『시집올때부터 바깥양반이 어찌나 억지로시키는지…。지금은 즐겁기라도 하지않으면 온몸이 뻐근해요』부부의 금슬도 운동으로 조절될수있다는게 李씨의 지론이기도하다. 주위에서는 이같은 李씨부부를 『잉꼬부부』라며 부러워한다.

경로당을 기웃거릴 나이에 李씨는 또「뜻밖의말」까지 잊지 않는다. 『노인이 스스로를 늙었다며 매사를 포기하는게 가장 큰 노인문제입니다』그는 몸뿐아니라 마음까지도 젊었다. 【金宗來기자】





축

개점

캐나다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주소 : 627 BLOOR ST. W.
전화 : 533—8593

이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주소 : 627 BLOOR ST. W.
전화 : 533—7923

교민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위 두기관의 발전을 축하하며 앞으로 무궁하게 번성 하시기 바랍니다.

재 캐나다체육회 이사 임원 일동

알뜰 해외여행

初行者를 위한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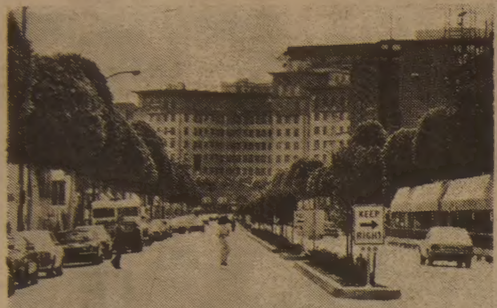
「쇼핑動物」의 汚名 씻자

高價品만 골라 무더기로

2백弗짜리 핸드백 혼자8개도

한국人 관광코스 不景氣 없어

세계에서 가장 쇼핑을 많이 하는 여행자가 한국인들이다。외국의 유명가게에서 2백달러나 하는 구찌(Gucci) 상표의 이탈리아제핸드백을 한꺼번에 7、8개씩 사는가하면 뉴욕의잡화상 에서는 게브랄리(비타민)를 몇병씩이나 사담는다。홍콩의 가짜우황청심환은 한국인이 찾는 인기품목。파리에서 돌아오는 여행자 가방안엔 향수병이나 디오르화장품、피에르·가르뎅넥타이、세라느·스카프가어김없이 담겨있는가하면 미국에서 귀국하는 우정의 사절단원들은 으레 런던포그·코트를 걸쳐입고오기 일쑤다。하다못해 이웃 일본엘 다녀와도 제산기、전기밥통은 하나라도 더 사오려고 안달이다。



◇세계최고급제품을 파는 상점이 즐비한 LA의 로데오·드라이브街。근래 한국인관광객이 몰려 찾아와 가게주인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있다。

하여튼 우리나라여행자는 좋든 싫든간에 「한국여행자는 쇼핑동물」이란 오명을 세계도처에서 따놓고 있다。쇼핑방법도 무식하고 우악스럽다는 평을 듣고 있다。좋아보이면 무더기로 사고 남이 사면 빠질세라 덩달아 산다。한가게에서 1백달러짜리 지폐를 몇장씩이나 물쓰듯 한다。아무리 구경이 좋아도 쇼핑이 흡족치 못하면 외국엘 헛걸음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金浦공항에서 눈여겨보면 출국자의 짐보다 입국자의 보따리가 배이상 무겁다。보름일정의 단체여행자들이 귀국할때는 출국때 못보던 가방 한두 개를 으레 공항 세관대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꼬리가 길면 밟히게마련。4년전 우정의 사절단이 美몬태나주 헬레나市에서 과잉쇼핑으로 드디어 말썽이 생겼다。당시 그곳 지방신문이 『한국인들이 바늘에서 보석까지 닥치는대로 물건을 사는 바람』에 쇼핑센터 물건이 동이 났다。

이들은『값은 따지지않고 미제(美製)면 무엇이든지 사려고 덤볐다』고 보도했고 이 소식이 국제통신망을 통해 전세계에 타전됐다。쇼핑총액이 26만달러로 사절단 한사람이 쓴 돈이 평균1천달러였다고 경악하는 투의 기사였다。

당시 단장이었던 J씨 (대한 총장) 가 부랴부랴 신문사로찾아가 항의、정정기사를 내게끔 했으나 정정내용은 체면을 세워주는것에 지나지않아 사실의 진위에 관계없이 이미 쏟아 놓은 물이 되고 말았다。

1인당 쇼핑비용이 1천달러로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은 다른 단체여행객들이 듣고 웃을 일이라고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개탄한다。미국헬레나市에서문제가 된 이유는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고작 인구 2만의 소도시에 국내에서도 돈께나 주무른다는 2백70명의 여행자들이 들이닥쳐 조그마한 쇼핑센터를 휩쓸었기 때문。특히 우정의 사절단엔 여자들이 많아 구매력도 왕성하고보니 사실과 달리 좀 과장돼서 보도됐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다。

쇼핑에 몰두하다보면 추태도 나오게마련。무계획하게 덩달아 사다보니 쓸데없는 물건도 생겨 여행사직원에게 어설픈 선물을 하는가 하면 돈이 모자라 일행으로부터 高利를주고 쇼핑비용을 비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또 절약해서 쇼핑하자는 아내와 구경이나 충실히 하자는 남편사이에 부부싸움이벌어지기도 일쑤。달러를 남기고 귀국했다간 주위로부터 병신취급이나 받을것으로 생각하는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한국인이 머무는 관광코스엔 이들의 구매에 맞는 물건을 갖춘 쇼핑가게가 잡비하게 들어서고 장사는 번창하게 마련이다。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호놀룰루·홍콩엔 교포들이 경영하는 가게가 도심지에 과잉정도로 장사가잘되는 것을보면 한국여행자의구매력은짐작하고도 남을만하다。

하루 5백명의 한국인이 드나드는 홍콩은 쇼핑천국으로 교포가게만도 13곳。한국여행자가 들어오면 2백~5백달러어치는 예사로 산다。롤렉스시계나 한약재 보석등 고가품은 남의 이목이 두려워 밤에 호텔방에서 전화로 주문하기도 한다。잘되는 교포가게는 하루매상액이 1천만원까지 오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대만에도 한국인가게가 생겨 점원이 워키·토키를 들고 공항에 대기했다가 한국단체관광객이 도착하면 상점으로 이들의 숙소와 사람수를 연락、세일즈작전을 짠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국이건 홍콩이건 교포가게들은 金浦세관의 통관추세까지 알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

비버리힐즈라면 LA에 위치한 세계 최고급 주택가。로데오·드라이브는 이주택가를상대로한 쇼핑가로 여기에 사는 배우나백만장자들을고객삼아장사한다。따라서 세계 최고급품이 진열돼있기때문에 이곳에서 값을 물으면 혼사람이다。

고급품을좋아하는 한국인들이 근래 이곳을 뒤늦게 찾아내 몰려들고 있다。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들자 여러가게가 한국어를 할줄아는 점원을 고용할 정도。그러나 이곳까지 찾아온 한국인들이 값을 깎자고 덤벼들어 미국인 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있다는 이야기다。

파리에도 곳곳에 한국인점원을 고용하고 있는 쇼핑 가게가 시내에 늘고있고 프랭탕같은유명백화점에도 한국어에 능통한 점원을 배치할정도로 세심한배려를하고 있다。또 뉴욕파리항로의 기착지인 알래스카의 앵커리지공항 매점에도 한국인들의 왕성한 구매력에 못이겨 한국인점원이 많이 고용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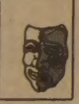
단체여행객을 기준으로 할때 소지금액의 60%는 쇼핑에 쓴다는것이 여행업계의 공통된견해다。숙식비등 단체경비를 빼고 1천5백달러 정도를 여행자수표로 끊어주는데 쇼핑할때보면 1백달러짜리 지폐가 주머니에서 막 나온다는 것。많이 쇼핑하는 사람은 7、8천달러까지 쓴다는 말도있다。그러나 관세문를 각오를하고 산는것까지야 큰문제는 없지만 그많은 돈을 갖고 해외여행경비 제한에 걸리지않고 어떻게 출국할수있는지가 궁금한 일이다。

여행할때 짐이 많으면 구경인들 제대로 할수가 없다。더구나 입국하는나라의공항마다세관에 신경을 쓰게되고 쇼핑한물품을 간수하는데도 여간 거추장스럽지않다。

적당한 여비만 들고나가 구경할곳을 두루구경하고 먹어볼것을 맛본후 남는 돈으로는 특산품이나 간단한 선물을 알뜰하게 쇼핑하는것이 여행의 지혜가 아닐까。무질서한 쇼핑행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는 일은 이제는 자제할때가 온것같다。【金首宗기자】

이 「작은손」 證券街서 모습감춘 金할머니

“어떤돈인데…”絶叫하며 눈물



은행장2명이 검찰에 연행되면서 張여인사건이 껍질을벗기시작한 지난14일상오 明洞D증권 매장에서는 큰소동이 벌어졌다。

젊은 증권회사간부의 멱살을잡은 한 할머니는『내돈을 내놓으라』고 악을썼다。순식간에 매장을 둘러싼 고객들은 깜짝놀랐다。돈 내놓으라는 소리야 하루에도 몇십번씩 듣지만 너무도 의외의 인물이 고함을쳤기 때문이다。

金月女할머니(62)。明洞증권가에 드나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단정하게 차려입은 한복、곱게늙은 얼굴에 금테안경이 기품있어보이는 金할머니는 안방에서 손주의 재롱을 보고있다면 어울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루머와 역정보 투기와 한탕치기가 난무하는 한국의 월스트리트에 나와 정확한 정보와 판단으로 증권시장을 주름잡는 난다긴다하는 큰손들 틈에서 날렵한 작은 손으로 솜씨를 과시해온 인물이다。

더우기 다른 투자가들이 시세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발을구른다」、「회죽거린다」해도 金할머니의 그 단아한 표정이 흐트러진것을본 단골들은 아직없었다。

그런 金할머니가 이날은 여늬 시정배와 조금도 다를것없이몸매가마구흐트러져 있었던 것이다。

매장을 둘러싼 증권시장사람들의 놀라움은 곧 깊은 공명으로 연결된다。눈밑주름사이로 타고흐르는 눈물을 닦을줄도 모르고 외쳐대는 金할머니의 목소리는 그러나 이성을 잃는게아니었기 때문이다。

주가가 떨어진것에 비해 이무렵 갑자기 거래량이 폭주했는데 가격이 쌀때 사두어야하는 당연한 이치에따라 외상거래나 신용거래를한는 소액투자가들이 오히려 「팔아야할 형편」에 이르렀다는것。다시말해 이들 보호하기위해서는 당국이 거래를 즉각 중단시켜야 마땅한데도 이를 방치해 또다른 큰손들에게 폭혜를 준꼴이됐다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일어서고 거꾸러지는게 흔해빠진 증권가에서 누가 아우성처봐야 귀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때는 달랐다。

우리나라 전체상장주식은 43억주、파동이 일기시작한 지난달29일 현재 단순주가 평균6백85원이 보름후인 지난13일에는 6백4원으로 하락함으로써 전체 투자가들은 3천5백억원의 손해를 앉아서 당했다。

金할머니가 언제부터 증권을 시작했는지 또 자금은 어떻게 만든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대부분의 작은손들이 그렇듯이 남편의 퇴직금을 들고나왔거나 아니면 알뜰이 모은 곗돈을 불려보려고 나왔거나 몇가지중의 하나일것이다。

그러나 金할머니의 모습은 이제 볼수가없다。처절한 울부짖음을 남기고 떠난 金할머니는 증권시장안정책이 발표됐어도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있다。【鄭[illegible]기자】

남자、最終戰도 快勝

韓·日 배구定期戰 日에 2승1패로 앞서

水準높은 競技로 팬들 갈채

兩國 심판判定에 흠…玉의티

【原州=金仁奎기자】한국남자배구 대표팀은 27일 原州치악체육관에서 벌어진 韓·日 배구대표팀정기전 최종3차전에서 日本을 3-1로 물리쳤다。이로써 한국은 이번정기전서 2승1패를、역대통산 전적서 25전10승15패를 기록했다。

이번 韓日정기전은 양국대표선수들이 수준높은 경기를펼쳐 국내배구 팬들로부터 갈채를 받았으나 양국의 심판진들은 서로 자기팀에 유리한 판정을 계속내려 냉정한 의미에서 실력평가는 다소 미흡했다。

3차전제2세트서 한국의 安相浩주심은 日本팀에 불리한 드리블및 홀딩판정을 내렸으며 日本의 고미까부심역시 자기팀 중앙선침범등 반칙을 묵인하기도했다。

첫세트서 한국은 柳重卓 文湧冠등이 2차전서 日本승리에 결정적 역할을한 1m87의 오꾸노를 블로킹으로 철저히 차단하고 姜斗泰 張允昌 李鍾歆등 트리오의 맹타에 힘입어 13-4까지 크게 앞서나갔다。

이때 日本부심 고미까씨는 후루가와가 서브를 넣을때 한국에 위치반칙이라는 석연찮은 판정을 내려 日本에 블로의 1득점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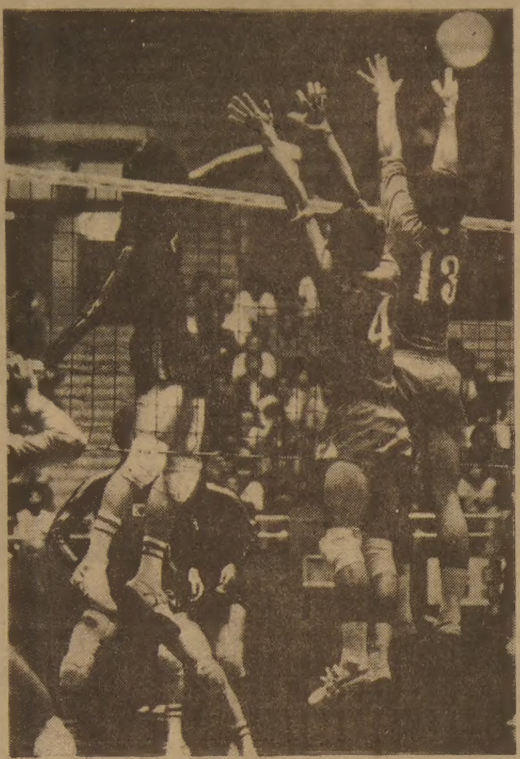
이어 日本은 오꾸노 이와다등의 강타와 한국범실에힘입어 9-13까지 추격。한국은 전날 2차전서 13-3으로 크게 리드하다 15-17로 역전당한 악몽이 되살아난듯 했으나 張允昌의 라이트강타로 魔의 13점대를 탈출、스기모도의 공격실책、文湧冠의 블로킹으로 25분만에 첫세트를 15-10으로 따냈다。

제2세트서 한국은10-7、12-9로 앞서다가 오꾸노、소부등에게 잇달아 4실점하는등 12-14로 또다시 리드를 빼앗겼다。

姜斗泰의 블로킹과 李鍾歆의 서브가 그대로 득점에연결됐으나 攻·守 실책으로 잇달아 2실점、한국은 1차례의 듀스끝에 2세트를 뺏기고 1-1 타이세트를 허용했다。

제3·4세트서 한국은 李鍾歆·張允昌·姜斗泰등의 오픈공격과 柳重卓·文湧冠등의 시간차 공격이 맹위를 발휘、게임의 주도권을 되찾고 15-4、15-10으로 승리했다。

日本은 노장 다나까가 피로로 주로 벤치에 앉아있었으며 오꾸노가 한국 블로킹에 철저히 막혀 왼손잡이 스기모도、2m3cm의 이사까등이 분전했으나 한국의 다양한 공격에 무릎을 꿇었다。



◇巨砲 張允昌의 왼손強打 한국의 주공張允昌이 日本의 미쓰바시 (三橋·4번)와 후루가와(古川·13번)의 블로킹을뚫고 왼손강타를 날리고있다。

한편 26일하오 장충체육관에서 열린2차전서 한국여자대표팀은 3-2로 신승했으며 한국남자는 3-1로 패했다。

한국여자는 2시간20분간의 접전끝에 陳春梅의 막판활약으로 힘겹게 승리했다。

한국의 제3세트는 비참했다。마가다、이시다、에가미등의 오픈공격과 속공에 연속으로 점수를 허용、겨우 한점만따냈다。3세트서의 졸전은 오히려 기폭제가됐다。

단신南明禮가 상대 블로킹을 이용한 터치아웃 타법으로、李恩敬이 좋은 점프를바탕으로 맹공격、제4세트를 3점차로 따냈다。

마지막세트는 주장 金英淑대신 벤치에서 쉬고있던 陳春梅를 기용、효과를 보았다。陳春梅는 10-6으로 앞서있을때 중앙속공、라이트강타로 연속3득점 한국이 12-6으로 확고한 리드를 잡는데 공헌했다。이어 李榮㤅가 미즈하라의 오픈공격을 블로킹으로 차단、1득점을 따내 15-6으로 제5세트를 따내 승리했다。

한편한국남자 대표팀은 첫세트서 姜斗泰 文湧冠등의 활약으로 13-3까지 크게앞섰다가 日本의 시간차공격에 허를찔려 15-17로 내준뒤끝내 3-1로 패했다。

◇최종3차전

▲남자부

한국 3	15	15	14	15	(2승1패)
日本 1	10	4	16	10	(1승2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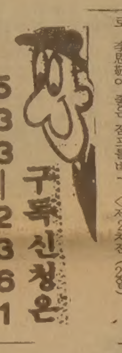
◇제2차전(26일)

▲여자부

한국 3	15	15	1	15	10
日本 2	6	12	15	9	15

▲남자부

日本 3	15	15	15	17
한국 1	9	8	17	15



프로야구

金城漢、5連敗의 해태救援

投打수훈… 靑龍연승 沮止

해태 타이거즈는 26일 야간경기로 벌어진 MBC靑龍과의 프로야구전기시즌 서울 고별전에서 에이스 金城漢이 7회부터 구원역투하며 연장 10회초 1死후 우중월결승 2루타를날려 5-4로승리、지난23·24일 서울서 당한 연패를 설욕했다。해태는 5연패의 부진에서 헤어났으며 MBC는 7연승에 종지부를 찍고 2위를 三星에 내주고 3위로 물러났다。

해태는 1회초 첫공격에서 金奉淵이 2점홈런을 날리며 선발金勇男의 호투로 일방적인 우세를 보였다。金勇男은 6회말 MBC 俞百萬코치의 어필에 흔들려 4포볼、1안타로 동점을허용했으나 계투한金城漢이위기를막아냈다。

◇26일(서울)전적

해태	3 0 1 0 0 0 0…1	5
MBC	1 0 0 0 3 0 0…0	4

〈10회연장〉

▲홈런=金奉淵(1회·2점·해태)

아시아 卓球聯合에 한국加入 거의확실

요미우리 報道

【東京=鄭東吉특파원】한국의 아시아탁구연합 (ATTU) 가입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日本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ATTU집행위원회에서 종래 한국가맹을 반대해온 中共이 총회의제채택안에서 반대의사없이 기권해 한국의가입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ATTU는 한국문제를 27일 총회의제로 정식채택키로 결정했으며、회원자격유무에 관계없이 우선 내년 제7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때부터 한국팀의 참가를 인정키로했다。비회원국에대한 대회문호개방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탁구무대서의 고립탈피를위해 日本등 동남아국가들과의 교류확대에 힘써왔다。

그러나 ATTU 신규가입은 먼저 집행위원회의 만장일치결의를 거친후 총회서추인받도록 되어있어 한국가입안이 총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北韓은 한국의 ATTU가입및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에 반대하고 있으며、中共은 한국의 아시아선수권 참가만을 허용、가입문제는 내년4월 東京집행위원회의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안게임 派遣선수選拔 전국陸上 오늘開幕

2백4개팀 出戰

제11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 대회겸 아시안게임파견 선수 선발대회가 2백4개팀에서 1천1백22명이 출전한 가운데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운동장서 열린다。이대회는 韓·中 친선육상경기 대회도 겸해서 열린다。대한육상경기연맹은 이번대회서 한국신기록 수립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IOC 總會개막

【로마26日UPI=聯】환·안토니오·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26일 로마에서 개막된 IOC 85차총회에서 올림픽운동은 온갖 우울한 정치전망에도불구하고 점차 강화되어왔다고 말했다。

사마란치위원장은 총회개막연설을 통해 지난번 바덴바덴총회는 올림픽정신에 새로운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지적하고『우리는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생동적임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는『IOC가 국제경기연맹들과 각국가 올림픽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의 스포츠를 주도해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림픽운동은 모든 난관과 고난을 극복해왔다고 지적하고 IOC의 단결이 바로 IOC의 힘이라고 덧붙였다。

IOC 두女性위원 로마總會서 첫就任

【로마27日AP=聯】핀란드의 피르요·하그만 베네수엘라의 플로르·이사바·폰세카 두 여성이 2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위원이 됨으로써 88년에 걸친 IOC의 禁女전통이 깨어졌다。

23國서 참가意思 뉴델리 亞洲競技

【뉴델리26日UPI=聯】금년가을 印度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의사를 밝힌 국가는 지금까지 32개초청국가운데 23개국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신청 533-2361

日 人種차별反對委 對南阿共 무역비난

일본 인종차별반대위원회는 24일 막대한 對南阿共和國무역거래에서 나타나고있는 日本의『위선』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 위원회는 마닐라에서개최중인『南阿共의 인종차별정책에 관한 아시아 지역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南阿共은 70~80년사이 對日무역량이 5배가 증가한 아프리카 대륙 최대의 對日 무역국이라고지적했다。

80년 현재 일본의 對南阿共 총수출량은 18억달러、총수입량은 17억4천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이른바『강력한 인종차별반대』에도 불구 南阿共은/두나라간의 교역증대때문에 일본인을『명예白人』으로 대우해 주고있다고 개탄했다。【마닐라=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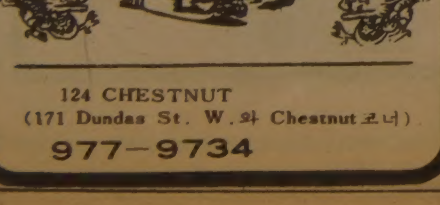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 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8 PAPE AVE.
전화 : 425-5656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 金蘇東) ⑫

고달팠던 還都전후

지리하고 고달픈 나날이 흘러 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東京에와 머물고있던 이병일감독이 대구로 나를 찾아왔다. 오래간만의 해후다. 그의 부인은 괴뢰군이 후퇴할때 친미파라는 이유로 무참히 총살을 당했다. 그는 슬픔을 안고 東京으로 돌아갔다. 영화감독 李康善과 배우 李集吉도 대구에서 타계했다.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절을 예술을 한다는 기백하나로 버텨나갔다.

끼니를 굶고 피난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안타깝고 처량했다. 내가 경영하는 자유신문 대구 지국에는 매일같이 신문이 서울에서 온다. 그러나 몇몇 친지외에는 구독 신청자가 없다. 그래서 국민학교에 다니는 3남매가 가두판매에 나섰다. 해질무렵 대구의 거리거리에서 「서울자유신문」을 외치던 자식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들려온다. 그 지리한 피난생활을 끝내고 1953년 가을 서울로 환도하기까지 신문, 잡지에 글을 쓰거나 각본, 演出, 從軍으로 보낸 셈이다.

아이들시켜 日刊紙街販
雜文·각본·演出로 生計

전후 새로운 영화사조로 팽배한 네오리얼리즘과 레지스탕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도 바로 이 시절이다. 롯셀리니의 「무방비도시 로마」는 우리영화 예술에 큰 충격을 주었다. 카롤·리드의 「제3의 사나이」도 이무렵 개봉되어서 신흥 영국영화의 우월성을 보여주었다.

예술성이 높은 흑백작품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무렵 오랫동안 소식이 두절되었던 배우겸 제작자 林雲鶴을 우연히도 대구극장앞에서 만났다. 그는 1사단에 종군하면서 북진하는 아군의 모습과 인민군의 만행을 각처에서 필름에 수록해왔다. 5천피트가 넘는 방대한 기록이다. 林雲鶴은 이것을 작품화 하기위해서 대구에 온것이다. 며칠을 수소문해 나를 찾았다고 한다.

사실 이날 나는 아침식사도 못하고 거리로 나왔었다. 아이들은 죽을먹여 학교에 보냈고 우리부부는 허전한 심정으로 서로 쳐다만보다가 집을 뛰쳐나온때다.

그와 음식점으로 들어갔으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내더니 『여보, 이거 아주머니께 우선 갖다주시오』했다. 그는 제작비 수백만원중에서 80만원을 내놓고는 영화를 완성해달라는 것이다. 거액의 돈을 받아들고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바로 대구방송국으로 달려갔다.

필름의 시사를 보고 나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기막힌 기록이었다. 진중의 포연을 누비면서 생사를 걸고 촬영한 혼적이 역력하다. 밤을 새워가면서 편집을 하고는 녹음대본을 쓰기시작했다. 며칠후 음악과 효과와 내레이션 녹음작업에 들어갔다. 내레이션은 남에게 맡기지않고 내육성을 담았다. 이영화가 바로 당시 부산에서 개봉된 「進擊萬里」란는 기록영화다.

◇필자가 감독한 영화「아리랑」의 한장면. 張東輝의 데뷔작인 이 영화는 홍콩에 수출돼 호평을 받았다.

서울수복후 동료 연출가들을 규합해서 한국영화감독협회를 탄생시켰다.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어서 전후 약8년, 藝總산하에 映畫人協會가 탄생하기까지 일선에서 일했다.

1955년 한국영화가 면세조치를 받은 직후 李喆爀제작 李圭煥감독으로 「春香傳」이 나왔다. 오랫동안 우리영화에 주렸던 서울시민들이 몰려들었다. 한국영화사상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했다. 그러는동안 李淙庚씨가 이끄는 「民劇」이 중앙극장에서 나의 「제2의 生命」을 무대에 올려 큰성과를 거두었다.

「春香傳」이후 제작자 이철혁과 나는 콤비가되어 그후 몇편의 영화를 완성했다. 1956년 春史 羅雲奎의 20주기를 맞아 우리들은 「아리랑」을 만들었다.

춘사작품에 출연했던 申一仙과 林雲鶴을 출연시켰고 張東輝를 픽업해서 주연「永鎬」역으로 배정하고 조미령, 김승호(故), 유일봉, 김칠성(故), 최남현, 변기종(故), 서월영(故), 윤봉춘(故) 제씨가 등장해서 재미있는 작품이 되었다. 「아리랑」의 촬영을 마치고, 요절한 춘사의 유해를 찾아 안장하고 묘소를 만들었다. 시공관에서 추도식이 끝나고 시사회를 가졌다. 많은 관객들이 울었다.

수준작이상으로 평가되었고 흥행에서도 큰성과를 거두었다. 「아리랑」은 드디어 홍콩으로 수출되었다. 한국영화수출제1호로 기록된다.

마침 내가 홍콩에 체재하는 동안 「阿里郞」(아리랑의 홍콩제목)이 개봉되었다. 그곳 관객에게도 전후 처음으로 피압박민족의 호소가 큰 충격을 준것같다. 객석에서 중국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일본인 관객들도 찬사를 보냈다. 張東輝를 픽업해서 그의 처녀출연이 이처럼 큰 성과를 올린것을 이향에서 기뻐했다. 「아리랑」에 감명을 받은 홍콩의 열렬한 중국인 팬이 감독인 나에게 양복한벌을 선사한일이 기억에 남는다.

기자의 눈

新宋襄之仁

포클랜드전쟁은 영국군이 東포클랜드의 산카를로스항구에 상륙,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지금까지의 海·空戰에 地上戰이 가세되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영국측은 산카를로스상륙에 앞서 말과 행동으로 수없이 아르헨티나측에 상륙을 예고했다. 상륙임박설은 전쟁초기부터 귀가 따갑게 들려왔다. 그소리는 유엔중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영국특공대가 포클랜드북쪽 페블島에 상륙한데 이어 영국정부가 영국기동함대에 대해 전면상륙명령을 하달한 직후인 21일 새벽 마침내 산카를로스기습 상륙작전이 감행되었다.

상륙지점까지를 가르쳐준것은 아니지만 어느날 어느시에 어떤방법으로 상륙할 것인가는 이미 알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작전을 노출시키고도 상륙에 성공했다면 방어측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영국군이 상륙을 예고한것은 신사의 나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20여척의 영국전함과 수송함이 東西 포클랜드 섬을 가르고있는 좁다란 포클랜드해협 깊숙이 침투, 1천여병력과 장비를 상륙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국함대를 궤멸시키기위한 아르헨측의 유인작전이었다고하면 딱 어울릴 대담한 작전이었음에도 아르헨군은 고작 어둠과 짙은 안개때문에 영국함대의 접안이 가능했다고 얼버무리고있다.

아르헨측이 반격을 개시했다고는 하나 포클랜드에 한치의 발도 못붙이게 하겠다면 그들의 되풀이돼온 경고는 결국 호언장담에 지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春秋戰國시대 中國 宋나라의 襄公은 强國인 楚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襄公은 적이 싸울태세를 갖추지않았는데 처들어가는 것은 君子의 道가 아니라는 이유로 楚軍이 전투대열을 갖추기를 기다렸다.

결과는 그렇지않아도 약세인 宋軍의 대패로 끝났다. 襄公은 잘했으면 이길수도 있었던 이 전쟁에서 입은 상처로 끝내 목숨까지 잃었다.

宋襄之仁은 쓸데없이 인정을 베풀다 자신과 나라를 망친 襄公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뜻으로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산카를로스상륙작전에서 보여준 영국군의 작전은 宋襄之仁으로 끝날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무엇보다 襄公에게 힘이 없었지만 영국군에겐 힘이 있기 때문이다. 【林鍾乾기자·外信部】

◇美女王 저격순간 런던을 여행중이던 서독인이 지난해 6월잡은 영국여왕 엘리자베드2세 저격순간. 이사진은 라이프誌(5월)가 뒤늦게입수, 단독보도했다. 여왕 탄생기념 공식행사중 한 청년이 말을타고가는 여왕에 총구를 겨누고있는 순간. 마커스·사전트(17)로 밝혀진 범인은 다행히 모의권총을 사용, 이 해프닝은 별탈없이 끝날수있었다. 미모의 여배우 보·데릭을 짝사랑하며 연애편지를 띄우기도 했다는 사전트는 존·포스터를 사모한 레이건美대통령의 저격범 존·힝클리를 연상케했다. 그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라이프誌】

流星의 賊 <393>

李炳注 作 李友範 畫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⑪

이 전투에 이어 홍계남은 고지에 성새를 쌓아 양성, 안성, 용인, 진위, 직산등지의 적을 기회 있을 때마다 무찔러 꼼짝 못하게 하고, 난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이 곳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

아버지 자수가 죽은뒤 홍계남이 호서(湖西)의 진중으로 보낸 격문(檄文)은 의(義)와 정(情)에 넘쳐, 그야말로 성루(聲淚) 함께 떨어지는 호소력을 지닌 문장이다. 다음에 옮겨본다.

『불효 고자 홍진, 제, 퇴, 전, 계남은 호서의 진중 장병에게 고하옵니다. 나라가 불운을 당하여 해중(海中)의 도적들이 방자하게 날뛰어 우리 백성이 고초를 당하게됨은 실로 형언키 어려운 심정입니다. 특히 천(天)이 하필이면 우리 가문에만 가혹한 화(禍)를 내렸는지 억울한 마음 없지 않습니다. 우리 가문은 여조이래(麗朝以來) 대대로 충의로써 일관해 왔읍니다. 선고께선 불원관직(不願官職)하시고 오로지 전원(田園)에서 수덕(修德)하신 처사이시온데, 돌연 국란을 당하자 가문의 전통으로된 충의를 다하고자 형제들과 고종 이덕남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켰읍니다. 그리하여 죽산 좌찬령에서 대적을 무찌르길 삼전삼승(三戰三勝), 그여력으로 이지방에 평온을 얻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자가 외지에서 분전하는동안 아버지께선 호서군과 합세하여 왜적을 치려했던 것인데 호서군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선고께선 단신으로 약소한 군을 이끌고 싸우시다가 종배들에서 고종(姑從) 이덕남과 더불어 전사순국하셨으니 이 슬픔이야말로 망극지로소이다.

이에 고자등은 위로 국치를 씻고, 나아가 부형의 원수를 갚기로 천지신명께 맹세하였읍니다. 바라옵건대 호서의 장병들이시어! 고자 홍계남의 슬픔은 만백성의 슬픔일줄 아옵니다. 우리의 적이 바로 여러분의 적일줄 아옵니다. 이제 우리 힘을 합하여 나라의 원수인 왜적을 격멸해서 나라의 위신을 되찾는 동시 부조의 한을 푸는데 전심합시다. 이뜻 널리 퍼지기를 바라며 통곡과 아울러 격문을 전하옵니다』

이글에서 문무 겸전한 그의 면목을 볼 수 있거니와 제이덕남(祭李德男)이란 문장에서도 만만 찮은 그의 정서를 얻을 수가 있다.

『고종으로 사촌(四寸)의 항렬이니 형제와 다름이 없었고, 게다가 뜻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자랐으니 나와의 나요, 나 가운데의 당신이란 감회는 극히 당연한 바요. 한집에서 같이 살며 우리 아버지와 가르침을 같이 받아, 당신의 재략으로 나에게 영광을 주었고, 그 웅위한 포부로써 나를 편달함이 있었으니 이 어찌 갸륵한 인연이 아닐손가…』

하고 이어지는 문장은 그 정감에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하여금 가슴을 치게한다.

홍계남의 이 안성전투에 있어서의 혁혁한 무공과 그 지성한 효심은 몇몇 부관추리(腐官醜吏)들이 가리려고 해도 구름속의 태양과 같이 드디어 그 광휘를 발하고야 말았다. 홍계남의 용명은 급기야 천하에 떨치게 되었다.

이윽고 임금의 귀에까지 계남의 이름이 알려졌다. 장군의 면목 차츰 그빛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세계의 社會面

아프간接境 파키스탄 武器市場으로 흥청

戒嚴令 비웃는 無法지대

2천여店舖…거의 手製品

각종 마약에 暴力까지 亂舞

觀光客들 피스톨사가 蘇製헬미트등 나돌아

파키스탄의 다라는 살인자, 산적, 깡패, 사냥꾼, 게릴라, 그런가하면 질투심에 가득찬 남편에서부터 평화보호주의자, 겁장이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내들이 몰려드는 무기시장이다.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서 32km 떨어진, 그러니까 유명한 카이버고개가 한눈에 보이는 다라에는 약 2천개의 무기상점이 줄지어 있다.

이곳에서는 무기뿐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평화」 즉 마약과 아편도 구할수 있다.

상점의 유리진열장 속에는 「아프간투제품」이라고 쓰인 마약들이 말보로 담배, 카세트, 총탄들과함께 버젓이 진열돼있다.

이마을은 폭력과 마약으로 번창하기는 했으나 당연히 이에뒤따르는 섹스가 없다는것이 특징이다.

다라는 주위에 여자까 없는 회교남성들만의 마을이기 때문이다.

한주일에 약50정의 소총을 판다는 미나·굴 이라는 총기상은 다라의 판매경쟁이 격렬하다고 말한다.

좁다란 진흙길에 다닥다닥붙어있는 2천개의 점포에서는 모두 직접무기를만들고있다.

모든 무기가 수제품이니만큼 이마을은 매일 총구멍을 들여다 보는 기술자, 소총의 개머리판을 깎는기술자들로 붐빈다.

사람들은 더러운 흙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쇠를 두들겨 기관총 총신을 만들거나 로키트포를 만들기도 한다.

그옆에는 발로 풀무질을 하며 석탄위에 놓인 쇠를 벌겋게달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리」라이플을 원하십니까? 쌉니다. 1천달러만 내십쇼』라고 한점원은 말한다.

『아프가니스탄서 노획한 소련제 칼리시니코프기관총입니까? 그건 1천5백달러입니다. 회전로키트포는 포탄빼고 1만2천달러입니다. 로키트탄은 한발에 2백50달러고요…』

『레이건 대통령요? 좋은사람입니다』 ─ 한상인이 외국손님에게 열을 올리며 떠들어 댄다.

『외교정책도 아주좋고, 소련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아주 맘에듭니다』

그가 공중에대고 주먹을 휘둘러대자 젊은 아프간게릴라를 포함해 가게앞에모여있던 손님들이 같이 고개를 끄덕인다.

다라에는 법이 없다. 모두가 살아 남기 위한 그들간의 잔혹한 규약이 법을 대신한다.

지아·울·하크 파키스탄 대통령은 계엄령을갖고도 그들을길들이지못했다.

외국관광객들은 페샤와르에서 2시간동안택시를빌어 다라를 방문하곤한다.

모험심이 강한 방문객들은 때로 10달러를 주고, 그 유명한 펜·피스톨을 산다.

펜·피스톨은 약간 굵고 무거운것외에는 보통 볼펜과 잘 식별이 안되며 잉크대신 총알을 넣으면 어디서나 비밀리에 사용할수있는 可憐의 기념품이다.

인근국경서 소련군과 아프간반군간의전투가시작되면서부터는 소련제 가스·마스크, 탱크전망경, 헬미트등이 다라의 주요 상품이 되고 있다.

거리에서는 손님들이 꿈을 실현하기전에 총기의 성능을 테스트하느라고 총성이 그치지 않는다.

【다라(파키스탄) =UPI】

축

1주년 기념

토론토 · 한국일보의
날로 성장함을 축하하며 교
민사회의 건전한 거울이되
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토론토 무역관)
☎ : 977—8784

Your Business is Our Business
-AT SITRA '82-

When it comes to trade, Korea means business. That's why we're inviting you to come to the Fair in 1982 and see for yourself why it pays to be one of Korea's "partners in profit.

This year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is hosting the Seoul International Trade Fair from September 24th to October 18th. As the first large-scale general merchandise exhibition in Korea, SITRA '82 offers foreign businessmen a unique chance to cash in on the world's fastest growing market.

No matter what your line of business, SITRA '82 is for you. In Seoul, you're sure to find a hearty welcome and a wealth of profitable opportunities. SITRA's key location, spacious fairgrounds, and superbly equipped facilities guarantee the maximum product impact at a minimum cost.

Your host —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 understands what businessmen want and need based on its 20-years' experience of dealing with overseas traders. With its extensive network of 86 Korea Trade Centers worldwide, KOTRA has already assisted thousands of foreign companies to do business with Korea. From information to introductions, KOTRA can provide a wide range of services, free of charge, at your request.

So why not let SITRA '82 be your gateway to East Asia? It could do you a world of good.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C.P.O. BOX 1621 SEOUL, KOREA. CABLE: KOTRA SEOUL. TELEX: KOTRA K27326, 23650 TEL: 753-4180/9

MINILAB

⊙당신은 6만불 미만으로 매일 3~400명 손님을 대하는 MINILAB의 모든 프린팅 프로세씽 장비를 구입할수 있읍 니다. 아래주소로 1차 왕림해 주십시요.

일자 : 6월8일, 9일
주소 : 20 Apex Rd. (로렌스×더프린)
전화 : 789-4586
(재정적인 계획을 의논할 수 있음)

풍문여고 동문께

풍문여고 동창회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갖고저 하오니 공사다망하실 줄로 믿사오나, 한분도 빠짐없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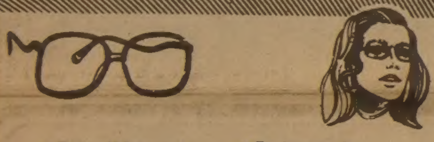
※연락처 : ☎ 299-3182(R)
757-8323(B)

고 명 희(Mrs. 양)

Digital Excellence DX

지난 반세기 이상을
연구발전한 결과 가와이는
우수한성능을 자랑하는 건반 악기
회사로 비약 발전함으로
타사의 추종을 불허
하게 되었읍니다.

블 루 어 안 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 9 : 30AM~7AM
금 · 9 : 30AM~8PM
토 · 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종 합 보 험

김 홍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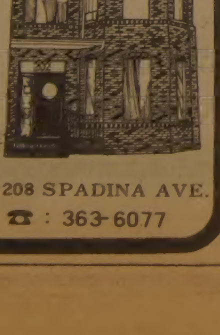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푸 3000점 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피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및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밍크외 각종 털코-트 쟈켙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MRS. 전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주5일 식품점에 신문배달

식품점에 가시면

⊙새로나온 〈한국일보〉가 있읍니다.
⊙아내에의 선물〈주간여성〉도있읍니다.

※토론토한국일보사는 토론토 부근 10개 한국식품점에 당일 발행된 신문을 매일 배달, 판매합니다.(단 : 미시사가소재 식품점에는 당분간월·수·금요일만 배달)

—한국일보사—

THE BIGGEST SAVINGS OF SINGER HISTORY

싱거 재봉틀 특별세일

기간 : 6월15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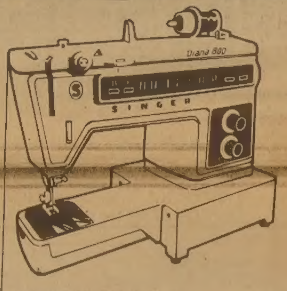
SAVE $50 ON SINGER* 247

SALE $119.95
REG. $169.95

The Fashion Mate* ZIG-ZAG machine

A great performer at a great Singer price! Features front drop-in bobbin, sews buttonholes and stretch fabrics.
Model 247

SAVE $200 ON SINGER ELECTRONIC 860



TOUCH-TRONIC MODEL 860

This Canadian-made Touch-Tronic machine also provides push-button selection of 14 stitch patterns, built-in buttonholer, twin needle sewing, automatic pattern start and many other features for smooth, easy sewing.

SALE $499.95
REG. $699.95

SAVE $120 ON SINGER 5137

Stretch Stitch
Model 5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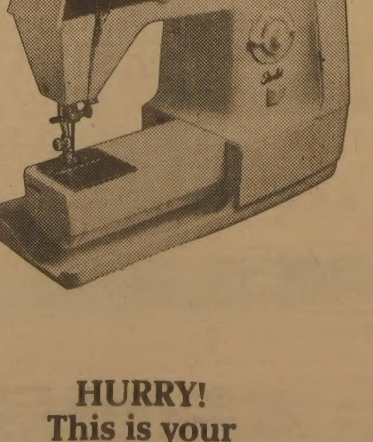
A great performer at a great Singer price! With buttonholer and 7 stitches built in; lightweight and easy to operate.
carrying case or cabinet not included

SALE $169.95
REG. $289.95

SAVE $90 ON SINGER 496

- Portable design makes this machine easy to carry and store but still gives you "big" machine capability.
- Free Arm makes sewing hard-to-reach places extra easy.
- Sew faster and smoother with electronic needle control.

SALE $299.95
REG. $389.95



※어떤 종류의 재봉틀이든 고칠 수 있읍니다.

SINGER (APPROVED DEALER)

HURRY! This is your last week to save!

EAST
SINGER CENTRE
GERRARD SQUARE
1000 GERRARD ST. E (& PAPE)
☎ : 461-9764

VISA
MasterCard

WEST
SINGER SQUARE ONE
MISSISSAUGA
☎ : 277-0341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SHERBOURN써브웨이옆
☎ : 923－9948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유 현 구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섐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 류 수 선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 530-1046. 7 p.m~10 p.m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운전학교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idwest Auto Body Shop 전화 : 751-9280
▲완전 바디 숍. 신용본위
▲260 Midwest Rd. Unit 8 (미드웨스트×로렌스) 임 종 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퍼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Baby Sitter (베비 씨터) 구함.
입주하셔서 월 2회 쉬시면서 1살된 아기 돌봐 주실분. 부모님같이 모시겠읍니다.
(월/$600)
전화 : 536-0290

Spray Painter 동업주 구함.
Epoxy Finish 유경험자로
자본 $10,000~$15,000을 투자할수 있는분
자세한 내용은 서면 문의바람.
P.O. Box 3046, Station B,
Rexdale, Ont. M9V 3Z6 Mr. Kim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피아노 레슨 학생구함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

입주하셔서 애기 둘(한살반, 네살)
보아 주실분 구함.(Steeles × Bathurst)
전화 : 889-4574(B) 225-7143(R)

식품점에서 일할 젊은이 구함.(40세 미만)
◉정직하고 양심적인 분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
◉자동차 면허 있는 분
대우는 능력에 따라 우대함. 가급적 직접 내방바람.
삼복식품

의류수선 (복식 양재, 또는 봉제하청)
동업자 구함 - 기능자에 한해서 남녀 불문
상세문의 오후6시~9시 전화: 530-1046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좋은장소에
지령이잡이 하실 분. 높은 수입 보장함.
전화 : 466-1461

일요일 가게 Cashier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Kingston × Midland) 전화 : 266-6355

◉주말에 일하실 남자학생 (파트타임)
시간:(금·토·일)
◉젊은 여자 Full Time 일하실분 구함
(월·토)
전화: 762-1572, 769-9854

직원모집 (운전면허증소유자)
M & J 인터내셔날·비데오 Co.
◉. Operating 직원
◉. 전기 기술자
◉. 비데오·아케이드 매니저
전화 : 630-0313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현찰 지불함.
전화 : 922-3061

경험있는 미용사(헬퍼) 구합니다.
킴스 미용실 전화: 532-7094

일본음식과 한국음식 만들수 있는분 구함.
538 St.Clair. W. 전화: 654-6609

남자분 가게 Full Time Helper 구함.
전화: 431-0979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20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착실한 26세부터 34세 사이의 신부감 구함
57 Willows Lane Pickering, Ont. (Mr. Kang)
꼭 관심있으신분은 서신 연락바람.
(비 영주권자라도 관계없음)

본인은 당년 38세의 신체건강하고 생활력있는 독신 남자입니다. 초 재혼 불문하고 여생을 함께 하실 뜻있는 여성을 찾읍니다. Mr. 박
★주소 : P.O. Box 1217 Station B
Weston, Ont. M9L 2W9

매매및 양도

Milk Store 매매.(여자혼자서 운영할수 있음)
주매상: $3,500 보증, 아스킹: $28,000+스탁
위치: 777 Danforth Rd.

Copier (복사기)
Model : Mita 500D. (Very Good Con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토론토 북쪽 새로지은 Mall안에 있는 Fish & Chips Restaurant 팝니다. (Private Sale)
장래성이 대단히 좋음.
전화: 886-3375 6:00p.m.~9:00p.m. (Peter)

House for Sale (Christie & Bloor 지역)
Subway근처, 6년된 새집, 12 Room, 3 Bathrooms
지하실 꾸밈, $119,990 전화 : 534-5985

House for Sale (Private)
3 Bedroom Mortgage($75,000) 13% until 84년
Mortgage 좋은 Side Split Bungalow
가정사정상 급히 팝니다.
Markham × Lawrence
전화 : 439-1433(R) 463-7423(B)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어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1) Coffee Shop in Office Building, 렌트: 약 $1200/mon.
주매상: $5000, 주5일영업, 아스킹: $16만
2) Donuts Shop, 현재 주매상: $8,000 리스: 20년
렌트: $3500(옆에 달린 Office포함), 아스킹: $325,000
다운페이: $15만 요구.
3) Fish & Chips in Mall
주매상: $4,000, 아스킹: $130,000
다운페이: $70,000, 주6일영업. 월~금: 10:00a.m.~7:00p.m.
토: 11:00a.m.~5:00p.m.
4) 교회 건물
가격: $319,000 (토론토 동쪽지역)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Full Liquor License가 있는
40석 Family Restaurant 급매
전망이 좋고 이윤이 높음.
꼭 뜻있는 분은 1166 Morningside Ave. at Sheppard로 오셔서 Mrs. Kim을 찾으세요.

공장지대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경쟁없는
Donuts Shop, 도너스 만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주매상: $3,500~$4,000
Open: 오전 6:00~오후 6:00
아스킹: $150,000
연락처: 665-0790 Mrs. Lee

Restaurant For Sale (Tavern)
동쪽끝에 좋은 환경에 위치한 식당 급매.
Good Lease(20 Years), Good Terms. 가격 : $350,000. 좌석 : 300
영업시간 : 7:00 a.m~1:00 a.m (Mon.~Fri.)
9:00 a.m~10:00 p.m (Sat.~Sun.)
자세한 내용은 오후 5시이후에 연락바람.
전화 : 284-0304 (Alex)

"Fish & Chips" Fast take out Business for Sale
with option to purchase building.
(빌딩도 겸해서 팔수 있음) 전화 : 828-6103

자개, 문갑, 자개 삼층장 매매
전화 : 661-4581

미국이주관계로 꽃가게 급매. 미시사가 초입
Plaza 안에 있음. 전화: 624-7597 (Mr. Lee)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피아노 급매.
Chickering Piano(Walnut Wood)
3년된것이나 거의 새것임. Eaton에서 새것 $4,500나감.
가격 : $2,500
전화 : 463-7423 Mrs. Kim 439-1433(R)

6년동안 한주인이 경영했던 성업중인 큰 규모의
Variety Store 매매
넓이: 1700 Sq.ft. 리스: 8년반, Rent: $1,168/mon.
주매상: $7,000이상+로타리오, 아스킹: $93,000+스탁
790 Military Trail(Morningside &Military Trail)
꼭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바람.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

2 Bed Room 달린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500
전화 : 694-1912

Kingston Rd.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좋은 위치의 빌딩과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로타리오머신과 딴 여러종류의 복권등 있음
전화 : 537-6296 Tom

---

3 Bed Room Town Home 매매
Air Conditioning, 실내 Pool장, Sauna,
Ensuite Laundry 구비되어 있음.
Mortgage : 11¾%. 가격 : $62,900
(영×스틸 북쪽)
전화 : 881-9232 5시반 이후 (Mr. Kim)

GOOD BUSINESS OPPORTUNITIES

1)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 스토아
매우 좋은 위치에 있음. 좋고 긴 리스(Lease)
주매상: $8,500 이상. 아스킹: $325,000

2) 서북쪽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2년 되었으며 좋은 조건의 Lease임
주매상: $6,500 이상. 아스킹: $190,000

3) Drive in fast food.
3년간 성업중이며 좋은 조건의 Lease임.
주매상: $4,000 이상. 아스킹: $195,000

4) 도너츠 숍(Shop)
최고의 Lease조건과 좋은 위치에 있음.
주매상: $4,500 이상. 아스킹: $250,000

5) Drive in fast food.
매우 좋은 위치에 있고 최고의 Lease조건
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525,000

For more details(상세한 문의는-)
전화: 967-1151 Ben
Benhur Real Estate Ltd.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농장매매
토론토 서북쪽에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여러가지 동물(소, 말, 양 등)을 기를수 있는
100에이커의 농장을 가정사정으로 급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46-3458
(오전11시에서 오후9시사이에 연락바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하우스 렌트

사무실 세놓읍니다.(다운타운 소재)
월: $220. Own Sign available. (any size)
전화 : 444-1322, 365-1489

Bloor한인상가 중심부에 위치한 가게 Lease함.
선물센타나 금·은방에 알맞음.
전화 : 481-3677 (Frank)

가게 Rent 합니다.
698 Bloor St. W. (1500 Sq.ft.)
전화 : (B)533-7966, (R)826-5118

Detached Building
버라이어티 또는 도너츠가게를 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구비한 건물이며 또한 최고의 리스조건을 갖추고 있음.
넓이: 2,400 Sq.ft. 20여대의 차를 Parking시킬수 있음.
(Airport & Derry Rd.)
전화 : 967-0019 Sam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소석빈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춘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SALON YOUNG (블루어×로얄욕)
남·녀 컷 & 파마전문
3074 Bloor St. W. 전화 : 231-4285
월요일 휴업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191 Lakeshore Blvd.(에이크너 ×브라운) 전화: 255-4715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열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일보 기사는 세계로 전파됩니다

토론토한국일보의 기사는 28개 해외지사망을 통해 전세계로 퍼집니다.

단하나의 예를 들면 로스엔젤레스 미주본사발행 1982년5월 25일자에는 토론토한국일보의 기사가 크게 4건이나 실렸읍니다.

토론토에서 발행하는 캐나다 소식은 바로 세계무대로 진출, 수많은 해외동포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일보만 가능한, 한국일보만 가진 장점중 하나입니다.

1982년 5월25일 (화요일) 한 국 일 보 L.A. (地方종합판) (7)

美修交기념 퍼레이드取消
本國서 支援이행늦어 불가피 하다고
보관 "본국서의 支援·퍼레이드계획 취급안해"

토론토韓人會 赤字에 허덕허덕
4월말 현재 약5천弗·회비 적극징수키로

교육국 자문위원장에 달라스 김인곤씨뽑혀

한복차림 民俗공연갈채 어린이날기념 학예회서

母國語를 正規과목으로
토론토市敎委, 열띤論議끝에 15대10으로 가결
英·佛語 다음의 外國語로서敎育·범위도 확대

生計막연…航空정비사들
職場구할길없는 80여 '獨立移民'

不況으로 業界부진…난감한 生活대책
토론토에만도 41세대…'속은기분'

…거에 단독후보
6월선거 앞두고 타결

구독신청 : 487—5323
광고문의 : 487—1080

在캐나다 서울올림픽 후원회
運營위원단등 構成
캘가리 冬季올림픽 후원계획도 마련

여권갱신代行 큰성과
라스베가스 한인회

토미·조 [황과나] 출연 울·부린너와 소演

한인觀光안내 實費로
시카고韓人여행사協, 올 觀光계획 마련

◆지난 5월25일자 LA판 단 하루치에 실린 토론토기사들

◆해외지사망 (28개소)

- 북 미 : 토론토 · 뱅쿠버 · L.A · 뉴욕 · 시카고 · 워싱톤 · 휴스톤 · 샌프란시스코 · 시애틀 · 호놀루루
- 유 럽 : 본(서독) · 프랑크풀트 · 파리
- 아세아 : 홍콩 · 대북 · 싱가폴 · 인도네시아 · 마닐라 · 동경 · 대판등 일본 7 개자국
- 기 타 : 브라질 · 괌 · 시드니

◆토론토한국일보를 움직이는 언론의 역군들.

일간발행 1주년(6월1일)을 맞아 우리 토론토 한국일보사

사원일동은 더욱 분발, 더 좋은 신문을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교민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 한국일보사 사원일동 —

2ND CLASS MAIL NO. 5248